


에어 포

AIR FORCE QUARTERLY

1987년 제 4호



부 편 권 10



오늘 조국의 하늘은
환희의 함성을 귀 기울이고 있다.
서 명동한 눈빛을 보라
저 푸잔한 꽃보라 되어
우리의 행군은 멈출 수 없으리
아 조국의 하늘은 오늘,
힘찬 개선가를 아련해 두었다.
저 광활한 자유를.

마 줄 기
祖國의 하늘은 중에서

우방국과의 유대강화



왼편 공군참모총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는 세종영 참모총장

이 박령양 공군 부사령관이 공군본부
방문하여 격양행차를 자설했다.



영지

AIR FORCE QUARTERLY

권두언 고인규 (2)

논 단

- 우리경제 현실과 향후 정책 과제 김 정 태 (5)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과 선진국 도약 채 창 병 (16)
분단 중국의 변화와 그 장래 전 낙 희 (28)
-

기 획 '87년을 돌아보며

- 민족사적 분기점 서 흥 교 (40)
조계 비행 장 형 삼 (45)
남방지강의 힘 천 기 화 (49)
-

정훈교육

- 외아 사상전 전력 배양 과정 비교 김 행 철 (54)
장조적 지휘관리 이 인 형 (86)
매관 자본론 비판과 우리의 과제 김 해 창 (103)
-

- 전산화 원료가 군 현대화에 미치는 영향 김 광 진 (111)
북괴의 '88서울올림픽 방해 색동과 대비책 윤 한 립 (125)
-

군사지식

- 태평양 주둔 미군의 전력분석 장 덕 봉 (137)
기상과 화학전 반 기 성 (156)
Tilt Rotor기 V-22 Osprey에 관하여 김 형 식 (177)
통솔력과 관리능력 장 상 용 (189)
-

공군 가족과 함께

- 조종사의 아내로서 김 희 숙 (199)
자랑스런 우리아빠 반 효 정 (202)
공군부대 방문기 김 승 현 (205)
-

교양 및 문예 창작

- 한국 종교의 발전 방향 남 상 열 (210)
“시” 하늘높이 날으라 전 호 명 (217)
“공트” 군인과 군발이 고 영 규 (220)
“수필” 사랑에 관하여 손 민 호 (223)
-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초동 및 중동비행을 마치고 각고의 인내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고동비행과정을 수료하여 정예의 전투조종사가 탄생하였다.



전투조종사들의 각종 전술 및 전투기량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87승공작전에서 공군 3679부대의 승명전조종사가 최우수 자격함의 영예를 차지하여 부상으로 승용차를 받았다.



최우수 부대 시상식

3만시간 및 2만시간 무사고 비행대와 무사고 차량운행에 대한 시상식이 서울역 공군참모총장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단에 서 열렸다.

특별 강연회

장병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사명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공군본부에서는 연세대 김동진 교수를 초빙하여 "안보현실과 군의 사명"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의사 발표 대회

정신교육의 날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장교들의 교수기법 및 의사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교육 교관 교인 및 조급장교 의사발표 경연대회가 공군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장교들의 힘의 적이고 슬리악인 사고력의 배양과 일상불안함 지회회제를 화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87 공군 진중 창작 미술전



■ 그리움 병장 조창용

병영생활의 열광과 전쟁터의 사기전차, 그리고 걸서한 당의 피터침공으로 어사선용 작을 위한 제2회 공군진중 창작품 전시회가 10월 21일 자음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격회관 함보 및 장령들이 참석할 가운데 공군본부 대장단 세력 개최되었다. 작형시절 쓰는 의미생활로 쓰고 그림 작품활동을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제후하여 장병들의 훈공의 지를 표현한 서해, 한국화 이화 등 총 1백 10점이 출품되었다.

■ 나의고향 병장 김영대



■ 비상 병장 이기영

■ 필승무장 병장 김병태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정서순화를 도모하는 국민들에게 공군을 홍보하고 공군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심판을 최고의 목표로 '87년공군악악회회가 제 10회 문화의 날에서 성취되에 힘썼다.

차라리는 국민의 꿈나무들에게 아라사랑하는 마음과 글공예 대한 이해와 뜻을 같이하기 위한 '87년공군예향사기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불우이웃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 공군장교부인회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선교회와 국군통합병원을 방문하여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영역

AIR FORCE QUARTERLY

1987년 제 4 호 (통관203호)

영 군 본 부

“한 민족의 용트림”



정 훈 감

공군준장 고 인 규

오늘과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는 예상했던 혹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과 부딪히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 발전한다.

갈브레르가 언급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대회를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한민족 특유의 은근과 끈기로서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일어난 민족적 쾌거이며, 더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발전만큼 우리의 정신문화가 성장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 단지 물질적 풍요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에 수반되는 정신문화의 숙성이 요구되고 민족의식의 심화가 필요로 된다. 물질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복지사회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성의 상실, 소시민적 개인주의의 범람, 그리고 배금적 사회풍조의 만연 등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산업사회의 그릇된 풍조들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한 내부적인 도전인 것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개헌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평화적 정권교체의 새로운



전통수립이 진행 중이며, 국민적 단합과 선진조국 창조의 희망 속에서 목전에 다가온 민족적 대역사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향한 한민족의 용트림이 솟구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해는 소위 문화지체현상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선진시민으로 진일보했던 뜻 깊은 한해로 평가하고 싶다. 또한 그렇게 애타고 목마르게 갈구하던 민주화로 성장된 시민의식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에 편승해 학내 소요와 노사분규 등을 획책하며 기승을 부리던 좌경 용공세력의 기세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반공사상으로 설 자리를 잃어 쇠퇴해 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여겨진다.

정묘년이 저문다.

대망의 '88년이 눈 앞에 우뚝서 있다. 평화와 안정 속에 세계사에 높이설 그 날이 저기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힘의 뒷바침이 없는 평화와 안정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우리의 목표인 선진도약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보유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특히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선 남침야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괴공산집단의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극복할 수 있는 만전의 태세를 평소에 미리미리 완비해 놓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을 미리 막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국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투철한 정신무장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은 물론 모든 간부들은 우리가 수호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최상의 체제라는 확고한 자신감과 민족옹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대북경계태세 강화에 한치의 착오도 있을 수 없다는 책임의식 속에 맡은 바 소임완수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저무는 정묘년을 바라보며, 다시 떠오를 '88년의 찬란한 태양빛을 기대해 본다.

우리 經濟 現實과 向後 政策課題

金正泰

(韓國經總 수석연구원)

1. 머리 말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好況을 누려 오던 우리 經濟는 올 하반기부터 다소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성장의 둔화추세는 대내외적인 經濟與件의 변화와, 또한 최근 들어 진 정은 되었지만 勞使紛糾의 영향을 받은 데 힘입은 바 크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향후의 經濟展望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라 하겠다.

'80년대에 들어서서 世界的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기반을 꾸준히 구축해 온 우리 經濟는 '85년을 전 환점으로 安定成長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룩한 黑字基調는 우리 經濟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어렵게 달성한 先進經濟로의 진입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經濟가 처해 있는 상황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方向

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아무리 주변환경이 어렵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우리 産業의 體質을 보다 굳건히 하고, 나아가서는 高度産業社會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우리 經濟의 어제와 오늘을 개관하고, 또한 최근 들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海外 經濟與件 및 앞으로의 經濟展望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課題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高率成長勢의 둔화

우리 經濟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지난 '86년은 매우 고무적인 해였다. 지속적인 물가안정하에서 12.5%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제수지면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대폭적인 흑자를 실현하였다.

物價安定의 기반이 더욱 다져진 가운데 '85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

이기 시작한 우리 經濟는 연중 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그 결과 '80년대에 들어서서 가장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高率成長의 시현은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안정화시책에 힘입어 우리 産業의 對外競爭力이 뚜렷하게 개선된 데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엔화 및 유럽주요국의 통화강세와 석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도 높은 成長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름다운 이러한 성장추세는 금년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즉 전년 동기대비 15.3%에 이르는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였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종래와는 달리 수출과 투자의 활성화에 의해 高率成長이 주도되었고, 그 결과 제조업,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의 成長이 여타산업에 비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의 高率成長이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편재된 성장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기 전 업종에 걸쳐 골고루 확산되었다는 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를 각 부문별로 살펴 보면, 商品輸出에 있어서는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물량기준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輸入增加率 21.5%를 상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출증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41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外換事情을 호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외채의 조기 상환과 함께 국제금리의 하락 등에 힘입어 對外利子支給이 줄어든 것도 成長을 더욱 알차게 해 준 것 중의 하나이다.

즉, GDP와 GNP의 차액인 해외순수취요소소득의 적자규모는 상반기 중 7천 5백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3천 1백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富가 그만큼 해외로 덜 빠져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消費支出에 있어서는 정부의 물건비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민간의 경우는 6.7%의 소폭적인 증가에 그쳐 우리 經濟가 안정기조하에 高率成長을 시현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物價上昇率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즉, 상반기 중 도매물가의 경우 평균 1%,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하는 데 그쳐 政府의 목표선 이 내에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우리 經濟는 높은 成長率을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들어서서 우리 經濟의 興件은 크게 변화하였다. 즉 지난해부터 高率成長의 근간이 되어 온 3低現象이 최근 들어 점차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잇따른 水災와 하반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勞使紛糾는 어렵게 다져진 성장기반을 잠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經濟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보완되지 못한 여건하에서 생산부진과 수출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선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진 設備投資가 당초의 목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우려성이 있다 하겠다. 더우기 최근 들어 기업의 투자 의욕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物價不安要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

物價安定은 제 5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고도 성장기였던 지난 '70년대의 경우 10%를 상회하는 높은 物價上昇率은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렇지만 '80년대에 들어서서 안정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힘입어 物價는 '82년부터 한자리 숫자로 안정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우리 産業의 체질강화와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결국 국은 輸出増大를 可能케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세가 재현되는 조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쟁대상국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物價安定勢를 유지하고 있어, 對外競爭力의 확보를 통한 국제수지의 흑자유지 및 적정성장을 추구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3. 海外經濟與件의 變化

우리 經濟는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世界經濟의 여건변화에 특히 민감한 편이다. 지난 제 2차 석유파동 이후 世界經濟는 고유가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先進各國의 경제정책, 즉 고금리현상과 달러화의 강세라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貿易 및 金融去來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조화현상은 世界經濟를 회복시키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80년대 중반이후 先進各國은 국제금리와 달러화 가치의 하락 노력과 함께 국제 원유 가격의 급격한 안정화추세로 경기회복을 가능케 한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각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OECD (經濟開發協力機構)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을 상반기에 부진을 면치 못하였던 先進國經濟는 하반기에도 2.0 ~ 2.5%의 완만한 성장에 그쳐 연평균 2.2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난해의 2.5%보다 다소 낮은 것이다.

이를 각 부문별로 보면 世界交易量에 있어서는 올 상반기 중 0.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주로 原油交易量의 增加率이 대폭 줄어든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보복조치와, 지난해 하반기 중 급격히 증가하였던 金輸入량의 감소로 인해 主要先進國의 全体輸入物量이 둔화된 것 또한 交易伸張率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하반기 중에는 소폭적이거나 交易量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례적인 상반기 중의 감소요인이 다소 해소되고, 原油交易에 있어서도 또한 OPEC의 산유량 증대로 증가세를 시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國際收支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 선진국 간의 불균형현상이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랫동안 달러화의 약세에 따른 美國의 가격경쟁력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반영, 國際收支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OECD의 收支改善에도 불구하고 全体 經常收支는 가격상승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제원자재가격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원유가격에 있어서는 지난해 7월을 전환점으로 하여 어느 정도 회복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과거와 같은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80년말까지는 平均油價가 20달러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물가격은 일시적으로 배럴당 20달러선을 상회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금년말까지는 19달러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OPEC의 平均輸出價格 역시 금년에는 대체로 18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非石油 1次產品은 올 상반기 중 '80년대에 들어서서 장기적인 하락추세

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에 들어서서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가격상승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 經濟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美國과 日本의 經濟展望을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美國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한편, 금리인상과 인플레이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經濟成長이 침체될 우려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올해의 成長率은 지난해 12월의 전망치 3%보다 낮은 2.25~2.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貿易收支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일본과 서독에 대한 무역적자가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日本은 정부가 樹立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신속하게 실시되지 않을 경우 지난 제 1차석유파동 이후 가장 낮은 成長率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금년도의 經濟成長率은 지

난해 2.5%보다 더욱 낮아진 2%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에 있어서의 흑자규모는 輸出增大에 힘입어 1천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단기 간내에 世界經濟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특히 輸出面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美國의 경우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우리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經濟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4. 앞으로의 經濟展望

올 상반기까지 높은 成長率을 기록한 우리 經濟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KDI가 발간한 「經濟展望과 政策對應」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1.5%의 成長率에서 내년

에는 7%, 그리고 내후년에는 6.5%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둔화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世界交易量의 감소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 또한 원화절상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對外競争力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우선 輸出에 있어서는 지난 상반기의 경우 전년동기비 26.1%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輸入量은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엔고에 의한 對日輸入單價의 상승 및 勞使紛糾에 따른 수입증대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貿易收支는 40억~50억 달러의 흑자가 기대되며, 이와 함께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가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60억~70억 달러의 經常收支 黑字가 전망된다.

한편,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던 物價는 최근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政府의 지속적인 努力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전망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즉,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해외부문의 통화증발로 인한 수요압력, 노사분규에 기인한 인건비의 상승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物價를 불안케 할 우려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物價는 통화관리상의 애로와 수해에 따른 일부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원유가상승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工產品價格의 안정을 주축으로 하는 종합적인 物價安定對策의 추진으로 도매물가는 1~2%선, 소비자물가는 2~3%선 수준으로 안정시킬 방침이었다. 이러한 政策目標은 이미 무너졌고, 앞으로의 物價展望도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중 급격하게 절상되었던 원화환율은 美國에서의 절상압력이 하반기 중 지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확대시책으로 經常收支增加가 다소 완화되고, 특히 일본과 대만의 환율절상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이

예상되어 하반기중에는 완만한 속도로
절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
지 1달러당 770원 수준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雇傭事情은 '85년까지는 크게
악화되었으나 지난해부터 호전되는 추
세를 보여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失業率은 2.6%로 크게 改善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연초에 예
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즉
勞使紛糾의 영향으로 賃金上昇이 예상
보다 커지게 되면 많은 기업이 노동
절약적인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결국
新規採用을 抑制시킴으로써 雇傭事情은
크게 악화될 우려성이 있다.

KDI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勞使紛
糾가 원만하게 수습되고 평균임금이
상반기의 10% 수준보다 2~3% 포
인트 추가상승을 전제로 할 경우, 失
業率은 3.8%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
였다. 그런데 최근 勞使紛糾가 진정
되는 가운데에서도 추가적인 賃金引上
率은 거의 10%에 이르고 있는 실정

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
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新規採用을
줄일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것은 결
국 앞으로 雇傭事情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金利는 원화절상에 따른
기업수지의 악화와 국제금리차로 인한
이전수지의 확대 등 때문에, 앞으로
인하시킬 必要性은 높으나 物價上昇의
우려성 및 총통화증가율의 목표유지를
위한 채권발행의 확대로 은행권의 金
利는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
능을 확충하고 또한 경영의 건실화를
도모키 위해 제2금융권의 金利는 소
폭적이거나 마 引下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
겠다.

이같은 金利展望과 함께 企業의 資
金事情은 다소 꺾박할 것으로 예상된
다. 즉, 총통화증가율을 억제하기 위
한 政府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하
반기 중 수출관련 大企業에 대한 무
역금융의 대폭적인 축소 및 직접금융
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與信規制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제 1 금융권으로부터의 차금차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5. 當面하고 있는 政策課題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우리 經濟의 대내외적인 與件과 展望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經濟가 해결해야 할 課題는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그 첫째는 適正成長을 견지해야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適正成長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新規勞動力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勞動市場構造를 감안할 때 新規로 經濟活動人口로 유입되는 숫자는 평균 40 만에 이른다. 이를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7~8%의 經濟成長이 必要한 실정이다.

둘째로는, 어렵게 다져진 安定基調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 高率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物價安定을 통

해 對外競爭力을 꾸준히 배양한 데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가오름세심리는 그동안 온國民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꾸준히 다져 온 安定기반을 송두리째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政府는 安定화외지가 견고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도록 通化政策 및 健全財政을 유지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시키고, 勞使紛糾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원자재와 부품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企業의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國內石油製品價格과 電氣料金を 인하시키는 한편, 생활필수품 및 일부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세째, 換率은 가급적 安定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國際收支가 黑字로 돌아섰고, 또한 美國의

지속적인 壓力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원화절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輸出增加勢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勞使紛糾에 따른 기업의 경영수지 압박과 賃金上昇에 기인한 競爭力弱化要因을 감안하면 환율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현수준에서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産業構造를 점차 고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經濟가 중진국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선진제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勞使紛糾는 더이상 노동집약적인 輸出産業에 의존해서 經濟成長을 도모하는 데 한계에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건비부담의 압력을 피할 수 있는 高附加價值産業으로 점차 개편하고, 종래의 勞動集約的인 산업은 시설개체 등을 통하여 합리화시키는 努力이 필요하다. 또한 對外競爭力을 확보하기 위하여 生産性向上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과 소재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견실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근로자의 福祉向上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제와 의료보험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보호와 함께, 最低賃金制의 실시를 앞두고 지나친 임금격차의 축소 및 低賃金階層을 일소하는 데 政策的인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의 경감과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건립 등 실질적인 所得向上을 꾀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政府의 努力과 함께 또한 企業으로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企業經營에 임해야 할 것이다. 즉, 국제원자재가격과 인건비의 상승 등 價格上昇要因이 있다 하더라도 生産性向上으로 이를 최대한 흡수하고, 앞으로도 원화의 절상추세는 소폭적이거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해 輸出價格의 상승을 통한 체산성의 유지와 경영 전반에 걸친 체질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美國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엔화상승에 대비해 部品の 國産化 努
力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함께 협조적인 勞使關係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勞務管理의 과학화와 勤勞條件
의 개선,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과 선진국 도약

채 창 병

〈중위 공군대학〉

목 차

- I. 인류화합의 대제전 서울올림픽
- II.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과 선진국 도약
 - 1. 서울올림픽의 국제적 의의
 - (1) 인류 평화·화합에의 기여
 - (2) 비동맹국·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 2. 서울올림픽의 경제적 의의
 - (1) 올림픽을 통한 경제발전의 예
 - (2) 경제선진국으로의 도약
 - 3. 서울올림픽의 사회적 의의
 - 4. 서울올림픽의 문화적 의의
 - (1)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 (2) 서울올림픽의 문화적 효과

Ⅲ. 올림픽국민으로서의 자세와 각오

1.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2.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규범확립

I. 인류화합의 대제전 서울 올림픽

'81년 9월 30일 밤 11시 45분 경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총회에서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 위원장이 '88년 올림픽 개최지를 「세에에우울」이라고 발표할 지 어느덧 6년이 흘러가 버렸다.

외국의 일부 언론들이 「기적」이라고 표현했듯이, 서울이 그렇게 큰 표차이로 제 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되리라고는 감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온 국민이 모든 정치가 모든 사회가 모든 문화가 모든 체육이 88서울올림픽에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7천5백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엄청난 인력과 자원 및 국가에

너지 소모로 부단히 손익시비를 불러 일으켰으며, 분단국이라는 지울 수 없는 현실의 멍에는 기회있을 때마다 공산국가에 의한 보이코트 주장의 구실과 핑계가 되어 왔다. 또한, 국내 사정이 안좋을 때마다 국내외로부터 정치쟁점화되어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울들어 격심했던 소요·시위·분규때에는 「개최지변경설」까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7년 9월 17일 IOC가 세계 1백 67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초청장을 발송함으로써 바야흐로 서울올림픽은 개막을 향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실로 '76년(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동과 서의 모든 크고작은 나라들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참가, 문자 그대로 사상 최대·최고의 인류화합 대제전이 될 서울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주최국은 영예와 책무를 함께

걸머진다.

「이제 서울올림픽이 열리느냐 못 열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남은 관심은 한국이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20세기 말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에 쏠린다」는 어느 해외언론의 지적과 같이,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여부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에 있어서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88서울올림픽의 국가발전적 의의와 우리의 자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과 선진국 도약

1. 서울올림픽의 국제적 의의

(가) 인류 평화, 화합에의 기여

IOC는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발송했던 올림픽 참가초청장을 '88대회부터는 IOC 주관아래 시행하도록 '85년에 헌장을 개정했었다. 이는 가능한 한 어느 국가에도 올림픽 불참구실을 주지 않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87년 9월 17일 IOC가 전례없이 올림픽초청장 발송식까지 가진 것도 세계 1백 67개 회원국에 '88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한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다. 아울러, 올림픽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올림픽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올림픽은 개인 간의 경쟁이지 국가간의 경쟁은 아니다'는 것이 올림픽정신이기는 하지만, 올림픽이 정치문제화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72년 「뮌헨」올림픽에선 대회 중반에 「팔레스타인」게릴라단체인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선수단 숙소를 습격, 11명의 선수단이 피살됐다.

'76년의 「몬트리올」올림픽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역 26개국의 불참소동을 겪었다. 또한 '80년 「모스크바」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한 미국 등 67

개국의 보이코트로 반쪽대회가 되었다. 이어서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도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14개국은 개막 2개월여를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4년 전 미국이 주도한 서방 세계의 올림픽 보이코트에 대한 보복 불참이었다.

3차례('76년, '80년, '84년)의 연이은 보이코트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올림픽운동은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 국내외의 일반적 관측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최국 한국 내부의 정치적 소요사태로 인해 올림픽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설혹 올림픽이 개최된다 하더라도 북한에 동조하는 동구권국가들이 불참, 또 다시 반쪽 올림픽의 운명을 거듭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IOC를 괴롭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정(政情)이 지난 6월말을 기점으로 일대반전, 민주화의 도정에 들어선 것은 국제스포츠계의 일부 서울올림픽 반대론자들까지도 「한국민은 과연 세계 16개 올림픽개최

국의 선민대열에 들 만한 저력있는 국민이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안간힘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북한은 일부 종목을 북한에 분산 개최한다는 IOC의 제안을 거부,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IOC가 당초 분산 개최라는 제안을 내놓은 것은 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킴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이상과 함께 반쪽 올림픽을 방지한다는 현실적 배려도 작용했던 것이다.

IOC는 현재 자체의 방대한 정보망을 바탕으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도 IOC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실로 '76년 「몬트리올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동과 서의 크고작은 나라들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참가하는 문자 그대로 사상 최대·최고의 인류 화합 대제전이 서울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하게 분단이론 현실로 굳어져 있는 한반도에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면, 평화를 지향하는 지구촌의 염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 비동맹국·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88 올림픽의 서울유치는 올림픽 정신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반석 위에 올려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외교면에서 우리의 자주외교역량을 자유세계는 물론 비동맹국과 공산권에까지 뻗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73년 「6.23 평화통일의외교정책선언」을 통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문호개방을 추구한다」고 천명한 이래, 동구권을 포함한 제3세계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스포츠를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스포츠가 정치적 이권조정이나 국가 간의 우호친선

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비동맹국가들과의 스포츠의 교류를 통하여 장벽은 점차 해소될 것이며, 이들과의 우호관계도 점차 개선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서독의 경우 「뮌헨올림픽」을 계기로 공산권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수교의 길을 트게 되었던 사례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올림픽제전에 직접 참가하여 한국의 참모습을 목격할 경우 우리와 동구공산권 및 비동맹권과의 관계개선은 더욱 넓혀져 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의뢰로 발표한 「서울올림픽의 국가발전적 의의」라는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단국·개도국이던 제약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비동맹·제3세계 개도국들에게 발전의 모델국가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이다.

올림픽 유치이후 유엔에서 비동맹·제 3 세계국가들의 한국지지율이 '73년 13%에서 '86년 42%로 크게 호전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2. 서울올림픽의 경제적 의의

(가) 올림픽을 통한 경제발전의 예 스포츠는 국력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인류최대의 잔치인 올림픽을 성공시킨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달라지는 요소들이 많다.

올림픽을 경제발전에 가장 잘 활용한 나라는 일본으로 동경올림픽을 전후한 GNP 증가율을 살펴 보면 개최확정 전의 10.1%에서 개최확정 뒤에는 25.9%로 급증했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26.1%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GNP도 1966년의 1천 54억 달러에서 1970년에는 2천억 달러, 1975년에는 5천억 달러, 1979년에는 1조 달러로 올림픽개최 뒤 4년에서 5년마다 2배로 늘어났다. 1인당 국민소득도 대회개최 전인 1958년의 3백 46달러에서 1964년 올림

픽 당시 8백 25달러였다가, 1970년에는 1천 9백 49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수출은 1958년에 38억 6천만 달러이던 것이 1964년에는 80억 3천만 달러가 되었고, 1970년에는 2백 29억 8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일본이 동경올림픽 개최 이후 이처럼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승용차·가전제품·정밀기계 등 제조업부문의 국내수요가 증가함은 물론, 일본제품에 대한 해외신뢰도를 크게 높였고, 상도의의 양양·유통구조의 개선·공중도덕과 질서의식의 함양 등으로 전 세계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준 때문이었다.

지난 '84년에 개최되었던 LA올림픽도 완벽한 경기운영과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흑자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림픽이 끝난 뒤 미국 경제에 미친 효과가 매우 커, LA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익 1억 7천 5백만 달러를 포함해 33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부수적으로 올림픽경기의 지방개최로 인한 지출경비의 분산, 숙박시설능력의 증대, 재정수입의 지방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광범위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경제선진국으로의 도약

「88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스포츠용품·전자·통신 등 관련 산업의 품질이 개선되고 한국의 상표가 세계시장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이들 산업은 물론 수출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것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의 전통문화, 역사적 유산 등을 소개함으로써 세계유수의 관광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산업도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으로 유망성장산업이 되고 있는 스포츠 및 레저용품

산업도 기술개발·투자확대·전문인력양성·품질고급화 등이 이루어져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가 풍기는 전통공업의 경우, 올림픽상품화의 전망이 가장 밝다고 할 수 있다. 무역, 외환거래 및 자본시장에서도 자유화정책을 추진하여 국제사회 속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림픽 개최비용은 대체적으로 대회 자체를 치르기 위한 직접개최비와, 지하철·고속화도로의 건설 등 도시도로망 확충과 숙박시설의 개선·신축 등 간접사업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처음 「88올림픽」의 서울유치가 논의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올림픽을 열어야 하느냐고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지하철, 호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어 있어 올림픽을 대비하여 동경대회와 같이 막대한 여건조성사업의 투자 없이도 대회준비가 가능하며, 대회시 필요한 각종 경기장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적은 반면 대부분 기존시설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과다한 신규 투자 없이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주택, 체육 및 위락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몬트리올대회와 같이 유희화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T.V중계료 등 해외수입의 획기적 증대가 기대됨에 따라 외화수입이 많고, 대회운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휘장사업·기념주화판매·복권·광고·선수촌아파트 기부금·입장권 분담금 등 조직위 수입으로써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흑자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은 세계시장에서의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 우리 자체의 상표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서울올림픽의 사회적 의의

한국개발원이 서울거주 18세 이상 70세 이하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

인 4백 54명이 올림픽대회 개최 자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가량은 서울올림픽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믿고 있으며, 사회의 안정과 선진화에도 각각 52%와 89%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들은 이 밖에 의식과 생활의 합리화(57.2%), 사회질서 확립(74%), 여가에 대한 관심증대(84%), 애국심 고취, 협동심 배양(78%) 등의 플러스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개최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효과는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86아시안게임 개최의 경험과 한국개발원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서울올림픽은 사회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군 이래 5천년의 민족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전이 벌어질 88서울올림픽은 이제 정파를 초월한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 목표로서 애국심과 협동심을 고취하게 될 것이다.

또, 서울올림픽은 발전의 속도를 늦

추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조명해 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의 합리화, 시민정신의 함양, 여가의 건전한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이 교통질서, 공중도덕 및 각종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올림픽을 통한 국민체육 진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림픽을 통하여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전상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생활과 의식을 성숙시켜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편하고 자유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게끔 해야겠다는 것이다.

4. 서울올림픽의 문화적 의의

(가)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희랍시대부터 올림픽은 스포츠행사와 함께 춤과 노래와 시가 있는 문화의 제전이였다. 오늘날의 올림픽 대회도

세계의 젊은이들이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제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각종 문화행사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종합예술의 극치인 것이다.

대회운영과 조직력이 다소 미숙하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다면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올림픽 개최국 중 덜 알려진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은 우리가 독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보여 주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IOC 회원국 1백 67개 나라 중 80여개국이 참가할 사상최대의 「문화올림픽」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88서울올림픽은 올림픽 본래의 스포츠 제전과 더불어 방대한 규모의 문화예술축전을 펼쳐, 말 그대로 「인류의 대제전」이 되게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88년 8월 17일, 올림픽 막이 오르기 한 달 전부터 시작될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은 10월 5일까지 50일간 전국 각 도시의 전시·공연장과 마당에서 각 행사마다 독특한 성격과 축제의미를 갖추고 하나씩 개화된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와 문화공보부가 확정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기간중 펼쳐질 프로는 전시행사 5개에 24건, 공연행사 5개에 11건, 특별행사 6개 7건 등 모두 16개 42건이다.

개회식은 1만 3천 명의 요원이 우리문화의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인의 공감을 살 수 있는 16개 작품을 공연하며,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파라슈터들의 고풍 낙하시범도 펼쳐진다. 10월 2일 하오 7시부터 시작되는 폐회식에도 5천 8백여 명이 출현해 10개 작품을 공연, 천연색 레이저쇼 등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한 첨단예술 표현기법을 선보인다.

(나) 서울올림픽의 문화적 효과

서울올림픽의 문화적 효과는,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전통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는 점이다. 또한 서울올림픽을 통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문화가 외국에 널리 전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림픽 문화축전에는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동구권국가들이 대거 참가, 이태올로기를 초월한 문화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올림픽국민으로서의 자세와 각오

1.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88 서울 올림픽이 어느새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이 '88년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 후 6년간 우리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북한 등 몇몇 공산권의 방해공작을 무릅쓰고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역대 어느 대회장보다도 웅장한 올림픽 스타디움을 우리 손으로 완성했으며, 서울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다. 가시적 외형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이 더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한국의 올림픽 개최능력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없게 되었다. 1988년 9월 17일은 5천년의 민족사에 새 지평을 여는 날이 될 것이다. 또 1백년을 바라보는 근대올림픽운동사에 있어서도 거대한 분수령을 이룰 게 분명하다.

이 날은 세계가 서울을 향해 물러 들고, 서울의 세계를 향해 팽창하는 날이다.

한민족 5천년 역사 초유의 대사를 멋지게 치러냄으로써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43개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올림픽개최국의 영광을 안았다.

불과 40여년 전 극동의 신생후진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세계의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88서울올림픽이 기폭제 역할을 해낼 것이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비단 개최국민인 한국인만의 염원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염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한은 「공동개최」라는 영동한 생트집

으로 웨방을 획책하지 말고 혼연히 이 민족공동의 영광된 축제에 무조건 동참하여 남북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이처럼 뜻깊은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국민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적인 요청은 한 마디로 국민적 단합이 아닐 수 없다. 개최국민인 우리의 단합이 전제될 때 세계는 우리에게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어떤 불순한 책동, 어떠한 저지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그리고 대회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분발이 요청된다.

2.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규범 확립

올림픽이라는 범인류적 축제는 경기장시설만 훌륭하다고, 개·폐회식이 멋지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회기간 중 각국의 참가선수 및 임원, 보도진, 관광객 등이 받는 인상과 느낌

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진정한 성패가 가려진다.

국민 모두가 성숙시민의 매너와 절도있는 생활관습을 갖도록 해야 한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의젓한 문화국민상을 모두가 보여 줄 수 있느냐 여부가 서울올림픽 성패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침뱉기, 휴지버리기, 새치기, 공공시

설의 불결한 이용, 경기장 소란 등 일체의 반질서 비문화적 행위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시민모두가 공동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올림픽이 국제적으로 세계의 평화와 인류화합의 기틀이 되고, 안으로선 신진조국의 창조, 나아가 성숙한 한국·한국인을 세계에 알리는 도약대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겠다.



I. 머리말

분단
중국의 변화와
그 장래



全 樂 熙

〈政博 檀國大學校〉

중국에 있어 지난 백 년이란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의 세기이었다. 그리고 이 세기는 「굴욕의 세기」인 동시에 부강과 영광을 갈구했던 시대로, 중국민족이 그 역사상 일찌기 가져보지 못했던 자각의 세기이기도 하다.

중국역사상 사회변동이 가장 심했던 때는 춘추(B.C. 722-480)와 전국(B.C. 480-서황 6국통일)의 시대였다. 사실상 지난 백 년은 춘추와 전국을 방불케 하였다. 이같은 상황은 1840년 아편전쟁이후 수 년 동안 굳게 닫혔던 대문들이 「洋槍」에 의해 부서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인들은 그들 특유의 붉은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중국중심의 「天下」 밖에 또 다른 천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천하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이른바 「洋夷」의 새로운 각종 문물을 접하면서부터 더욱 중요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중국의 活路-富強은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부강에의 꿈은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학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나 산업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는 발달하지 못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서구식 민주주의를 시도하여 보았지만 그것 또한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재적인 사회경제적 혼란과 외적인 열강의 압력은 내우외환을 더욱 장기화시켰다. 그 결과 현대중국은 오늘날과 같이 두 개의 중국으로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1949년 이래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한 두 정권은 어떠한 접촉이나 협상도 없이 일방적인 흡수형식의 재통일을 기도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결여된 지극히 명분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던 두 정권은 최근에 와서 상호간에 그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새로운 조짐을 보이더니, 급기야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고려한 대단한 「변화」를 보임으

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의 두 정권이 보이고 있는 변화의 내용을 밝히고, 그 추이를 전망하여 보고자 한다.

II. 현대중국의 분열과 통일 입장

중국이란 사회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중국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 온 「역사체」인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광대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체」이다. 이같은 시공 속에서 형성된 중국문화는 그 특성으로서의 유구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은 과거 수천 년 간 이른바 「영광의 고립」을 누리면서 주변국가에 대해 문화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주변의 변방민족의 문화는 그들의 문화와 동등하지 못한 저급한 문화로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중국을 萬國 중의 한 나라가 아닌 만국의 나라로 믿고 있었다. 이같은 중국인

들의 「자아영상」은 이른바 「종족중심주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종족중심주의는 중국중심의 문화주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문화주의는 「불변의 상태」에서 형성·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변의 상태하에 있던 중국문화는 드디어 서방문화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도전은 아편전쟁에서의 군사적인 실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경제 및 사회 등 각 분야로 확산되어, 이른바 「洋務運動」 「維新運動」 및 「五·四新文化運動」 등으로 변모·발전하였다. 이같은 중국의 변화는 기술적인 변화에서 제도적인 변화로, 그리고 다시 사상·행위적인 변화로 발전하였다. 과거의 중국은 변화의 필요도 능력도 없는 사회였다. 왜냐 하면, 중국은 정태적인 농업사회로서 유가중심의 가치체계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상유지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방문물이 중국에 유입되면 서부터 중국인들은 孔·孟 외에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四書五經 의

에도 민주주의와 과학이, 그리고 李白·杜甫 외에도 셰스피어와 괴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같은 그들의 새로운 인식은 중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문화정향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中」·「西」의 충돌에서 발생되었고, 「新」·「舊」의 취사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으로부터 현대로의 전향을 뜻한다. 이 전향은 자율이든 타율이든 간에 전통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서 「현대화」로 가려는 「선택의 변천」, 그것이었다.

이러한 선택의 변천과정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살 수 있는 길이란 서구의 민주주의와 과학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Mr. 민주주의」와 「Mr. 과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처럼 초기 중국의 현대화는 일종의 자강운동 그것이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과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자극받아 일어난 「5·4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동년 12월 북경대학에서는 「사

회주의연구회」가 조직되었고, 동연구회에는 백여 명의 교수와 학생이 참가하여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연구·토론하게 된 것은 「Mr. 민주주의」와 「Mr. 과학」만이 중국의 살 길이라고 믿고 있던 중국인들의 믿음을 동요시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민주화」와 「과학화」에 대한 실망이 그 반동으로 중국의 살 길을 사회주의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중국을 그 내부로부터 분열·대립시킴으로써 급기야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으로 치닫게 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1949년을 정점으로 하여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오랜 투쟁의 결과 國府와 中共·國·共이라는 두 개의 다른 정권으로 분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두 정권은 공히 통일을 제 1의 목표로 설정하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중공의 통일공세에 국부는

수세에 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년 간 중공은 계속해서 국부에 대한 「평화공세」·「해방대만」이란 구호를 통해 「一國家体制」의 통일공세를 전개하여 왔다. 특히 중공은 국부에 대하여, 이른바 「三通(通商·通部·通航)」을 제의한 바 있는가 하면, 대만의 현정권, 생활수준·외국투자·군사력 등의 계속적인 유지를 보장하는 統一四原則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80년 초 鄧小平은 '80년대의 3大課業(4個現代化·反霸權·視國統一)의 하나로 중국통일을 제시한 데 이어, 2개항을 추가한 「視國統一六個原則」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일련의 중공의 제의와 제스처에 대하여 이른바 三不政策(부접촉·부단판·불타협)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같은 국부의 소극적 태도는 첫째, 중공과의 27년간에 걸친 국공합작 결과 대륙으로부터 쫓겨난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는 한 동일집단인 중공의 제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공의 평화공세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가 반공정책을 퇴색시킴으로써 그것이 대만 내부에 미칠 파급효과를 극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셋째, 중공은 1951년 5월 23일 「티벳」과 이른바 「평화해방협정」 17조를 체결하였는데, 1959년 봄 중공은 군대를 동원, 티벳을 점령함으로써 반란을 진압했다. 이 사실을 대만당국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지금까지 중공이 국부에 제시하고 있는 「관대」한 조건을 단호히 거부해 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태도라 하겠다. 이처럼 국부는 그간 중공의 통일공세에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여 온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다.

Ⅲ. 國·共의 기본정책과 변화

1. 國府의 기본정책과 최근의 변화

국부의 기본정책은 간단히 말해서

三民主義에 의한 대만건설이다. 바꿔 말하면, 反共大陸의 혁명기로서 대만을 공고히 구축한 후, 기회를 타서 光復大陸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사회의 「新中國」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부의 기본정책은 그 성질상 지극히 정치적인 것, 비군사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 국부가 강조하여 온 「三分軍事, 七分政治」와 「主義前鋒·武力後盾」이란 반공대륙의 전략만 보더라도 정치우선주의의 입장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같은 기본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부는 1949년 대만으로 후퇴한 다음해인 1950년 7월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는가 하면, 1953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4개년계획을 시발로 하여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실시한 결과 이른바 「台灣의 奇蹟」을 이룰 수가 있었다. 특히 그들 정치지도자들은 대만을 둘러싼 국제기류의 변화무쌍한 상황 아래서도 반공정책을 고수하면서 정치·경제, 그리고 군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왔

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절대다수의 인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밖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비정치적)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끈질긴 內·외의 도전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첫째, 중공의 대만해방이란 이른바 「統一」에 대한 도전이요, 둘째 대만출신 지식인들에 의한 대만자치, 즉 「台獨」이란 도전이 그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경제·군사적인 난관이 없지도 않았다. 그런데 전자에 대한 대만의 정치지도자들의 고민이란, 만일 그들이 중공과의 통일을 위해 모종의 협상을 벌인다면 그것은 그들 정부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고, 후자의 경우 현존하는 두 정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대만독립을 선포한다고 할 때, 이는 중국의 민족적 감정과 역사적 전통에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 데 고민이 있었다.

이같은 대만의 통일과 독립이 가지는 背理에 대한 해결모델로서 버네트(R.W.Bernet) 교수는, 대만이 중

공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경제체제가 중공의 자유무역함으로서의 이중경제체제의 單一中國案을 제시한 바 있고, 웨어뱅크(J.Fairbank)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일부로서 국제적 지위를 향유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만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類의 모델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고려한 바 없었다. 특히 그들은 중공에 대하여 일종의 피해의식같은 성격을 띤 이른바 「三不政策」이라는 폐쇄적이고도 방어적인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台獨」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냉혹하리만큼 타부시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30여년 간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국외로 추방되었다. 이처럼 국부는 국내외의 정치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고도 폐쇄적인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하여 왔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민주」를 표방하면서도 정치현실은 「독재」의 요인과

제도가 엄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국부는 지난 40년동안 사회·경제적인 현대화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86년도 국민총생산액은 727억 불에 이르렀고, 1인당 평균국민총생산액도 3,751 불에 달했는가 하면, 외화보유고에 있어서도 730억 불에 이르렀다고 행정원통계처는 밝히고 있다. 국민평균수명에 있어서도 '85년 남자는 70.8세, 여자는 75.8세로 스웨덴과 일본보다는 낮으나, 미국·영국·서독 등 선진국과는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의 인구증가율은 1.29%로,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인구구조상 老化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구의 노화문제는 대만이 안고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성장 아래서 종래의 폐쇄적이고도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에 대한 대만출신 지식인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더욱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인들은 그간 정치적 민주화 내지 자유화

를 위한 요구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高雄事件」과 「美麗島事件」과 같은 사건 들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대만인들의 정치적인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지 못한 국부의 경직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개방요구에 대하여 일부 진보적인 국부의 정치지도자들은 종전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이 시의에 적합치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권 밖으로부터의 민주화의 압력과 제도권내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지금 외신이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만의 「變化」를 가능케 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두터워진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입법원(국회와 상응)선거에서 다수의 야당세력이 진출함으로써 가속화되었다. 이같은 상황의 변화는 지난 7월 15일 0시를 기하여 장경국총통으로 하여금 지난 38년간 실시되어 온 계엄령 해제를 선포하도록 하기에 이르

렀다. 지금 대만에는 계엄령 해제와 더불어, 과거에는 타부시되었던 각종 금지조항이 해제 또는 완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반정부적인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것을 비롯해서 외환규제 및 三不政策이 완화되어 공무원과 군인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중공방문이 불원장래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 금지조치되었던 중공작가들의 작품이 서점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만의 반체제인사들은 최근 40년 전에 선출된 중신입법위원의 교체를 포함한 입법원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만일 국민당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의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심지어 대만의 중립계 신문인 自立晚報의 두 기자는 지난 14일 밤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대륙의 실상을 취재하러 북경공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취재한 「북경발신」은 대만의 전역에 보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이제 대만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었던 시위는 이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퇴직공무원이나 해고근로자, 농부,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주장을 서슴치 않고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치사회의 비판적인 출판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용을 베풀지 않던 검열당국도 이제 이상하리만큼 관대하여졌다고 한다. 이처럼 지금 대만에는 변화의 거센 물결이 그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년 전만 하여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하여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중공의 기본정책과 최근의 변화

중공의 기본정책은 1979년 7월에 개정된 헌법전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 아래 계속 혁명을 견지하고, 계급투쟁·생산투쟁·과학실험의 3대 혁명노선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금세기내에 농업·

공업·국방 및 과학기술이 현대화된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공의 제도적인 준비는 이른바 12전대회(1981. 9. 1~11)에서 마무리되었다. 「12전대회」에서는 중공의 중요방침 및 정책 결정, 당규개정, 중앙위원 선출에 따른 당헌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에는 과거이념(紀)보다는 실질적인 건설(專)을 중시하여 온 그들의 이념과 목표를 위해 노선과 기구를 수정·개편하는 「제2의 창당」과 현대국가의 면모를 구축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른바 실용주의노선을 공식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실용주의의 등장은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4개현대화」만이 중국의 빈곤과 낙후, 그리고 독재주의적 잔재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를, 경제적으로는 번영과 사회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용주의의 총수인 덩소평은 「4개현대화」를 적극추진하는 한편,

대의정책에 있어서는 脫이데올로기화를 내세워 서방측과의 관계개선에 전력하였고, 문화혁명기간 중 파탄에 빠졌던 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런 실용주의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폐쇄적인 중공사회가 서구선진국과 접촉하는 가운데 생활·의식 등 여러 면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가 하면, 경제개혁보다는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갈구하는 「캠퍼스 엘리트집단」의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는 지난해 12월 5일 안휘성 솜페에 있는 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의 시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 중공의 지도자들이 ①사회주의노선 ②인민민주專政 ③공산당의 지도 ④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의 견지 등과 같은 「4개항기본원칙」을 준수한다고는 한다. 그러나 지난 백년이래 중국이 현대화작업에 실패한 중요한사실 중의 하나가, 서구의 기술·자본과 문화·정신을 분리한 이른바 「中道西器」논쟁에 불필

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 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기억하는 한 이제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서방의 발전을 가능케 한 정신 기반을 완전 배제한 채 기술적인 도입만을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정치제도의 민주개혁을 비롯해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원용하는 등, 각종 자본주의 원리와 정신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허용 내지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강국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공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중공이 사회주의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큼 서방제국과의 관계는 증대될 것이고, 그것은 중공 자체의 수정과 개혁이라는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1949년 모택동은 「一定要解放台灣」(반드시 대만을 해방시켜야 한다)의 구호아래

대만문제를 무력에 의한 「一個中國論」을 주장하여 왔다. 그 결과 1950-58년 金門島 포격으로 國·共 간에는 치열한 무력충돌이 있기도 했다. 그 후에도 중공은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만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임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요구함으로써 「一個中國論」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1981년 9월 30일 십검영이 「중국통일에 관한 9개 방안」을 제시한 이래 중공은 대만에 대한 평화공세를 전개하다가, 3년 전 덩소평은 「一國二體制」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통일방안에 관한 중공의 변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한 「台灣의 奇蹟」을 이룩한 국부의 성공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인식상의 변화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중공의 변화 이면에는 전략적인 계략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 제안의 전제로 국부는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버려야 할 것이고, 국방과 외교분야에서는 중공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국부가 이룩한 정치·경제·군사적인 업적은 그들의 자주성을 유지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중공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이 제시해 온 「還鄉」(고향방문)과 「會親」(친지상봉)·「三胞」(화교·대만동포·홍콩 마카오 동포) 등의 대륙투자문제를 국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간 그들이 굳혀 놓은 전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IV. 맺는 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를 종합·검토할 때, 이는 과거 국민당정부가 이데올로기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정책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그들이 지난 30여년간 쌓아올린 경제적인 「富」와 사회·정치적인 안정기초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대만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완화조치, 군인·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중공방문 허용, 홍콩, 마카오의 자유로운 관광허용 등은 그간 「一國二體制」라는 중공의 통일공세와 대만 내부로부터의 민주화요구로 시달려 온 국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한 두 체제의 우열을 직접보고 비교하라는 개방조치로 풀이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말할 것도 없이 체제적인 우월성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두 기자의 중공취재만 하더라도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륙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국의 묵인 내지 허용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의미를 지닌 계획된 취재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중공에 관한 뉴스는 서방 통신들이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므로 두 기자의 중공방문은 뉴스를 취재하려 간 것이 아니라, 동포들의 생활상을 「본토방문 허용조치」이전에 알려겠다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계획된

것이라는 동신문사 吳豊山 사장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민당정부는 과거 그들의 대중공정책은 그 폭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三不政策이 대중공정책의 전 부라면 전부였고, 탈이데올로기적인 국제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반공」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국부는 지난 7월 12일 발표된 「3민주의 통일중국」에 관한 성명에서 ①선전에서 행동으로 ②대만에서 대륙으로 ③點과 線에서 全面이라는 3개항의 절차와 방법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의 수세와 소극에서 공세와 적극이라는 정책적인 전환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대중공정책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한다.

동시에 사회주의체제를 기본체제로 유지하면서도 개방경제정책을 통해 자

본주의적인 경영방식을 상당부분 원용하고 있는 중공도, 국부의 이같은 능동적인 공세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실리적인 접근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國·共간의 관계는 예를 들면 대만의 기업체들이 노동집약적인 공장을 중공에 세우고 홍콩의 대리점을 통해 경영하는 간접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버네트와 웨어뱅크 두 교수가 제시한 모델을 절충한 형태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관계개선만이 國·共 쌍방의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4개현대화」의 길은 아직 요원한 중공과 지난 30여년 간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착실하게 성장해 온 국부가, 실리와 명분을 조화시키는 그들 특유의 공식적인 관계를 증진하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사적 분기점

서 홍 교

(중령, 공군사관학교)

○ 전환기의 시각

한 해를 보내면서,自省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87년은 '80년대를 가름하는 시기인 동시에, '90년대를 향한 신호이기도 하다. 그것은, '80년 제5공화국의 출범이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 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의 혼란과 진통을 보내고, 안정과 성장을 향한 발전을 이룩해 온 오늘의 시점은 정녕 국운상승의 호기였으며, 민족사적 분기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近年에 찾아볼 수 없었던, 변

화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좌경세력의 대두와 노사분규의 파장이 높았고, 상승일로에 놓여있던 우리 경제는 다소 간의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를 향하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전환기를 더욱 표출시키고 있다.

지금부터 7년 전 어려웠던 '80년의 상황을 지켜 본 상태에서, 금년의 무더위와 함께 몰아닥친 태풍과 폭우는 가슴을 더욱 애타게 하고, 이어진 노사분규의 논쟁은 사회, 경제적 침체와 혼란의 변혁기를 맞는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80년의 진통은 우리 경제발전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만 큼, 도매물가 42.3%, 소비자물가

32.2%의 상승, 경제성장 -5.2%, 국제무역수지 적자 44억불 등 3중고의 시련과 함께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의 감수현상, 세계경기의 침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등 제5공화국 출범 당시의 상황은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토대 위에서도 꾸준히, 5공화국의 지속적 성장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수준으로 진보되어갔다.

이런 가운데, 금년은 평화적 정부이양과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변화기의 혼란과 발전을 위한 진통이 더욱 첨증되고 있다.

○ 정치적 변화와 좌경세력의 심각성

금년 하반기는 평화적 정부이양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진통이 여·야 합의개헌과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가장 올바르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될

바로 이 시기는,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어렵고 중차대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진통을 겪고 일어선 세계 속의 모범국으로 부상되어 왔고 또, 국가의 안정과 성숙된 사회발전이 가장 요구되는 시기에, 안정된 번영이 요구된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 일부 좌경세력의 등장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폭력과 선동의 난무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불순 좌경세력에 대한 주요한 대처가 요구되고, 또한 사상적으로 반공이념 무장에 투철한 국가관과 시국관을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민족사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안보의 확고한 기틀을 다져 놓아야 한다. 이러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 위에서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는데 중단없는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만이 한국민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다. 확

고한 안정 성장의 기초로 흑자경제를 이룩하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개인소득 3,000 불의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10 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성장에 연관되는 국내적 문제는 바로 급진좌경세력의 대두와 그 실체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과거 대학내의 의식화 내지 좌경화사상이 더욱 고조되어 친북과 용공사상의 현상이 크게 대두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반 국가적인 선동구호와 친북괴적 용공발언은 우리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발전의 가장 위험한 사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좌경의식을 단호히 배제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적인 정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민주화 과정의 시련으로 인식하고, 인내와 슬기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는 남과 북이 40여년간 대치되어 온 상황에서, 북괴를 동조하는 행동이나 공산주의 사고방식은 결

코 자유민주주의와 도저히 결합될 수 없는 사상이며, 결코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노사분규와 학생소요

금년은 좌경세력에 대처하는 반공이념 무장의 시대적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화의 열기 속에 학생들의 소요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되어 오던 것이, 더욱 분출되어, 학생운동은 민주화의 욕구와 더불어, 정치·사회문제에 까지 태풍의 눈으로 등장되었다.

그것은, 혁명적인 변화의 추구하고 불만의 발산이 노정되어,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처럼, 좌경세력의 대두는 우리의 정치적 안정과 기반의 '혼란'에서 더욱 편승된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확산되었다.

그것은, 노사분규의 양상에서도 등장하여 순수한 경제발전과 성장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노사문제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이러한 노사문제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

만한 타협과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야겠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시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욕구나 폭력난동, 파괴, 시위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되었다. 그것은, 학생들의 좌경의식과 연계될 경우를 감안한다면, 국내적 위협은 바로 좌경의식화된 불순학생과 근로자의 연계성으로 이어질 때 야기될 수 있는 현상을 상기한다면, 국가안정과 발전을 위한 학생, 근로자 계층에 대한 이념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국가발전을 향한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망된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내실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데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제 24회 서울올림픽의 개최는 세계속의 한국이 경제에서의 성장 뿐만 아니라, 국력에 대한 신장의 상징으로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한 1년 전의

준비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부단한 전진은 세계인의 기대 속에 점진되어 가고 있다. 올림픽의 관심은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역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계인의 중인환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북괴의 끈질긴 방해책동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올림픽은 오직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이 지금까지 올림픽 개최국의 당연한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북괴는 올림픽 분산개최를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방해책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제시한 5개종목 이상을 강요하고 있는 현상은,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사보다도,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술책이며, 북괴의 올림픽 요구가 허물어질 때는 결코 무사히 치룰 수 없고, 또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언동은 올림픽에 참여할 의사조차 없을 뿐더러, 금강산문을 이용한 수공작전의 위협 등은 우리의

올림픽을 방해하는 책략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

○ 평화적 정부이양의 실천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민주발전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강렬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평화적 정부이양의 실천은 민족적 과제이며, 국민적 여망이다. 과거 헌정사에 수차례 걸친 개헌논의와 민주발전을 위한 노력이 그 시대마다 뼈아픈 성찰이 요구되어 왔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설정은 획기적인 발전이며, 민주화를 위한 일진보이다. 이러한 합의개헌을 통한 국민투표가 10월 27일 역사적으로 실시되고, 이어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평화적 정부이양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적 광경을 우리 국민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와 헌정사상 평화적 정부 교체가 새로운 민주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항상 반복되거나 정체되는 정치발전이 아니라, 선진국을 향한 정치적 안

정, 합의에 의한 정치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일정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온 국민이 화합 단결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주발전의 보람있는 한해가 되고, 헌정 역사에 빛나는 정치가 우리 손에 의해 실현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여·야 합의에 의한 정치일정의 순조로운 진행과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그리고, 평화적인 정부이양의 실천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달성하고, 제 24회 세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광된 나라,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세계 속에 과시하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괴의 안보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번영된 통일기반 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추호의 방심이 나 헛점이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영공방위태세 확립을 달성하는데, 그 일익을 다해 나가야 한다.

초 계 비 행

장 형 삼

<소령 제 3579 부대 >

어깨 양쪽편으로 끈계 열지어 있는 활주로등(燈)이 내어 달린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대기로 오르는 순간 야릇한 신비감이 몸을 감싸면서 수없이 해온 「공중에 뜸」을 또 다시 경험한다.

오늘은 보름이다.

대낮같이 환하고 구름 한점없는 맑은 달밤이다. 맑은 우유빛 창호지같은 열은색을 띤 하늘과 언뜻 언뜻 언저리가 들어나 보이는 산과 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들, 그 사이를 구비돌아 지나는 강물들을 모두 포용

하고 있는 대지를 구분하는 흰 선이 세상을 둘로 갈라 놓았다.

심야 전투초계비행

「라트모스」 산에서 죽음도 삶도 아닌 영원한 잠에 빠져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엔디미온」 왕자를 흠모하며 밤이면 은빛마차를 타고 은빛가루를 잠들어 있는 온 세상에 뿌리며 밤 하늘을 날아 다니며 땅에 사랑을 내리는 달(月)의 여신 「셀레네」처럼, 하루를 마감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대지 위를 우리는 날은다. 침략자들의 음모의 발톱을 감시하며

영공수호의 소임을 안고 밤 하늘을 달린다. 아늑한 휴식과 평화를 보장하는 방패의 일익을 담당하며 그 위를 날으는 존재를 대지가 알아주든 모르고 있든 우리는 그렇게 올 한 해도 달려왔다. 저 대지 속에는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잠들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자매와 만나 보고 싶은 친구들도 꿈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배움을 주신 은사님들도 계시고 그 외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 것이다.

작게 생각하면 그분들의 안위를 지금 이 순간 내가 지키고 있다는 뿌듯한 기쁨과 보람이 가슴 속을 번진다. 하늘에의 동경과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뛰어온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난다.

국민학교 시절 바로 옆에는 비행장이 있어 운동회날이면 축하선물을 비행기안에서 던져 주곤하던 조종사 아저씨들을 막연히 동경했었다. 조종사에의 꿈이 대학시절 첫 비행으로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공군에

입대 후 가슴에 조종훈장을 달고 전투조종사로서의 길을 시작했을 때, 그때의 보람과 성취감을 잊을 수 없다.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비행훈련과 그동안 각종 전술전기의 연마를 위해 활주로 위에 그리고 하늘에 뿌렸던 땀의 결실로 오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안위를 담당하는 자랑스런 위치에 서 있지 않은가?

비상대기실로 갑자기 날아든 비상벨 소리가 나른함이 엄습하는 오후의 정막을 일순간에 깨어버렸다. 거의 반사적인 행동 속에서 엔진의 시동, 활주와 이륙이 이루어졌다. 적기의 방향과 거리 정보를 통보하는 관제사의 격앙된 목소리. 무장스위치를 켜고 적기 방향쪽을 응시하면서 조종간을 잡은 손에 힘을 가할 때 약간의 흥분이 몸을 감쌌다.

뭉게구름이 듬성듬성 떠 있는 수평선사이로 적 귀순기와 함께 후방에서 추적하는 아군기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편대는 귀순기가 기지에 안착할 때까지 후방에서의 엄호임무를 수행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심장의 고동

이 뱃속에서도 진동하는 것 같았고, 이마 위로 땀이 흐르며 오금이 저려 왔다。」

2차대전시 프랑스공군 「스피츠 파이어」 조종사였던 「크로스 테흐만」의 전장에서 첫 적기 조우시의 감정이었다. 비록 귀순기였지만 공중에서 처음으로 적기를 확인한 순간 몸에서 이는 약간의 흥분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전사가 되어 생사의 대결을 벌여야 할 숙명을 안고 적기를 만날 때는 어떤 감정이 생길까?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땅에서 전술연구로 흘리는 땀과 하늘에서 전기연마로 흘리는 땀은 그 자신감을 보장해 줄 것이다.

지금은 해와 달을 천측(天測)하고 나침반을 수정하면서 창공을 날던 「린드버그」시대가 아니라 이제 조종사는 스위치를 돌리고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의 숫자판을 두드려야만 한다. 기판포 하나만 장착하고 단순히 육안만으로 적기를 찾아 중세기사들의 결투

와 같은 낭만적인 전투를 해야만 했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누가 더 정밀한 항법장치를 이용한 정확한 목표침투, 그리고 전자장비를 통한 적의 기만, 정확한 목표에 폭탄투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보다 우수한 레이다로 적을 먼 거리에서 탐색 추적하여 보다 장거리의 정밀한 미사일로 적기를 격파하느냐 하는 문제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고도의 전자장비를 전술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마음의 행복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듯이 조종사의 행복은 전술연마를 통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믿음을 기초로 한다.

전투조종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전술전기 연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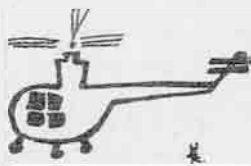
대망의 '88년은 조국의 번영을 기약하는 올림픽개최와 반목의 시대를 지나 화합과 단결의 약속된 희망의 미래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시점이다.

이를 시기하는 북의 침략자들로부터
모두의 여망인 약속된 미래를 굳게
지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해야 한다.

후배세대에게 댈뎡하기 위해 「가미
가제」 특공대를 만들면서까지 전쟁에
최선을 다했다고 슬회했던 「도오쵸
히데끼」의 말처럼 지금의 한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지금의 순간을
조종사로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써 훗날 후배세대의 조종사들에게 뎡
뎡해야만 한다.

어둠 속에 평화로운 휴식을 하고
있는 조국의 산하를 지키는 꿈중 파
수꾼으로서 어느 때보다 총일한 사명
감으로 희망의 '88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멀리 나란히 열지어 있는 활
주로등이 시야에 들어왔다. 꿈속에 잠
겨있는 대지로 귀환하기 위해 나는 출력
을 줄이며 조종간을 서서히 앞으로 밀었다.



남 방 지 강 의 힘

천 기 화

(소령 교육사령부)

은행나무의 노오란 잎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게 하더니 벌써 찬 이슬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역사의 큰 획으로 남을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병영 내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정신무장의 전력화와 극히 일부에서 일고 있는 좌경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이념교육이 활발히 행해진 한 해였다. 정묘년 막바지에서 조금은 엉뚱하지만 우리 정신 무장의 당위에 우리의 자연(기후)

과 문화와를 연결해 보고 싶어진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연의 변하는 오묘하고 조화롭다. 이 오묘하고 조화로운 변화는 우리들의 마음을 살지게 하고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들이 살고있는 땅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삼천리 금수강산은 우리의 찬란한 오천년 역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겨울채비를 하면서 올해도 우리의 자연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기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가히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자연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지구라는 한정된 땅 위에 일년 내내 흠지도 않고 일년 내내 덥지도 않은 중위도 지방에 자리잡고 사계절의 변화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뚜렷하기 이를 데 없다.

봄에는 마르고 얼었던 땅에 온갖 생물을 환생시키고 그 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우기(雨期)를 거쳐 성장을 촉진하는 혹서기의 여름이 지나면 성장을 마무리하는 가을을 맞는다. 그리고 휴식의 겨울로 들어간다. 급격히 변화하지도 않고 일년 내내 똑같은 기후가 지속되지도 않는다.

일년을 사등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온갖 생물들이 충분히 대비할 여유를 주면서 변화시켜 나간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은 얼마나 오묘한 상극(相剋)의 표현인가. 이 상극의 표현을 연출(演出)하는 우리의 기후는 강수(降水)에 있어서도 다양한 표현을 한다.

봄에 내리는 비는 얼어붙은 땅을 달래는 보드라운 보슬비, 그 다음엔 풍

년을 약속하는 연중 정확한 시기에 오는 장마비, 여름엔 후끈히 달아오른 땅을 식혀주는 짧은 시간의 소낙비, 가을엔 아주 적은 양의 가랑비, 그리고 겨울에는 온 산천을 채색하는 함박눈, 어디 그뿐이겠는가, 언비, 얼비, 우박, 싸락눈 등 지구상에 내리는 온갖 종류의 강수가 다 선을 보이고 지나간다. 사계절의 뚜렷함은 기온의 격차(隔差)도 뚜렷하게 하여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비키니를 입는가 하면 밉크코트도 입을 수가 있다.

강수가 다양하고 기온의 차가 뚜렷한데 한반도를 스쳐 가는 바람인들 어찌 다양하지 않겠는가. 여름엔 태평양의 습한 바람, 겨울엔 시베리아의 건조한 바람, 봄 가을엔 오호츠크해와 중국 강남의 바람이 우리 한반도를 스쳐간다. 이렇듯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와 다양한 기후인자(氣候因子)는 우리들의 조상이 한반도에 농경사회로 정착해 살아오는 동안 찬란한 문화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왜냐하면 약속된 시기의 뚜렷한 기후변화는 첫째, 모든 사람들을 부지런

히 일하도록 만들어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근면성(勤勉性)이 강한 민족이 되게 하였다. 사시사철 열매가 풍족해 마냥 놓고 먹어도 되는 열대 지방이나 일년 내내 추위에 시달리며 언제라도 밖에 나가 고기를 잡아도 되는 형편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부지런히 씨뿌리고 가꾸고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의 순환(循環)에 적응하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둘째로 날씨 형태의 다양함은 생활양태(生活樣態)의 다양함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의식주의 형태가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 사람이 일년 동안 바뀌어야 할 옷의 종류가 많아야 하는가 하면 밥을 담는 그릇조차 사기와 놋그릇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 곳에 시원한 정자(亭子)도 지어야 하고 따뜻한 온돌방에서도 살아야 한다. 또한 음식은 얼마나 다양한가. 곰곰히 따져 생각해 보면 철 따라 상에 오르는 음식의 종류와 요리의 다양함은 가히 세계에서 으뜸이

라 하여도 과한 말이 아닐 것이다. 의식주의 다양함에서 생활도구(生活道具)의 다양함은 또한 당연하다.

세째로 끊임없는 날씨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양하게 고무시키며 풍부하게 하기 마련이다. 변화는 많지만 뚜렷하여 순환(循環)의 주기가 분명한 기후와 정착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풍부한 감성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룩한 우리 조상들의 성정(性情)은 해양민족처럼 거세거나 가볍지 않으며 대륙민족처럼 둔하지도 않고 은근과 끈기가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창조성이 강한 문화민족이 될만큼 훌륭하게 가꾸어 질 수 있었다.

이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꿀 줄 아는 우리 민족은 슬한 외세의 침략을 어느 때는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느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하여 국난을 극복해 왔다. 근대에 와서 불행히도 국토의 반이 붉은 무리에 점령당하여 분단되더니 그 붉은 무리들은 침략하여 동족상잔(同族相殘)을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에 맨주먹으로 나라를 지킨 우리 국군은 이제 어느덧 성년이 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과시했듯이 무기와 장비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올해 한해 동안 정신전력 또한 굳건히 다져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에 좌경화 세력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념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장병들에게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차대전의 명장 룬멜이 “무기는 변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를 치지 말고 적군의 인간정신을 쳐라.” 또 “전쟁은 무기로서 싸워질지 모르나 인간에 의하여 승리된다. 승리를 얻는 것은 지휘하는 자와 따르는 자의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과학무기(科學武器)가 아무리 발전해도 정신전력(精神戰力)은 그에 못지않게 현대에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땅에 찬란한 정신문화틀

키워온 우리의 훌륭한 민족성은 현금의 국방정신에도 이어져 모든 장병이 정신무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느 때보다도 정신전력을 굳게 다져야겠다. 원래 강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의 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듯 적을 대함에 있어 무형의 정신전력은 매우 중요한 전투력이 되는 것이다. 무작정 싸울 준비만 하고 있는 호전적(好戰的)이고 투쟁적(鬪爭的)인 북쪽의 군대와는 힘의 차원이 다른 것이다.

시대적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힘의 차원을 이야기 하자면 중용(中庸)에 기록된 공자의 남방지강(南方之強) 북방지강(北方之強)을 생각나게 한다.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강함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공자가 답하기를 “남방의 강함인가 북방의 강함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의 강함인가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무도한 것에도 양감함하지 아니함은 남방의 강함이니 군자가 그렇게 처신한다. 창검과 갑주(甲冑)를 갈고 죽어도 한하지 아니함은 북방의

강함이니 강폭(強暴)한 자가 그렇게 처신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화(和)하면서도 흐르지 아니하니 강하도다. 그 곳곳함이여, 중(中)에 서서 기울지 아니하니 강하도다 그 곳곳함이여, 나라에 도가 있어 입신(立身)하게 되어도 궁색했던 때의 마음가짐을 변치않나니 강하도다 그 곳곳함이여 나라에 도가 없어 죽게 되더라도 지조(志操)를 변치 않나니 강하도다 그 곳곳함이여." 라고 하였다. 정의(正義)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분별없이 날뛰며 싸우려고만 하는 강함은 북방지강이며 유연한 자세로 지혜의 소중함을 간직한 정의의 강함이 곧 남방지강이다.

중용의 해설에서 남방지강의 배경을 문화가 발달된 곳으로 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방지강 북방지강의 의미가 군자의 도의적 강함을 설명하는데 쓰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함의 의미를 정신적인 면에서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군대의 진정한 강함이란 정신전력의 절대적 우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올해 한해 병영에서의 정신전력강화야말로 북쪽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묘년 한 해를 보내면서 북쪽과 우리의 국력차(國力差)가 갈수록 커지고 국방력 또한 무기와 장비의 발전 못지 않게 정신무장으로 탄탄히 다져진다면 통일로 가는 조국의 앞날은 우리의 높고 푸른 가을하늘 처럼 밝은 미래가 약속 되어질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彼我思想戰 戰力培養 過程比較

87년도 공모 최우수작
〈편집자 주〉

金 幸 哲

〈대위 제 5718 부대〉

I. 序 說

한 국가가 어떤 人間을 育成할 것인가의 問題는 그 나라의 國家目標과 政治理念, 그리고 經濟的 與件 등, 삶의 理想과 條件에 의해 決定된다.

光復 40年, 同時에 分斷 40년이 흘러버린 지금, 그동안 南北韓은 각기 相異한 理念과 體制原理에 立脚하여 異質化된 自足的 社會構造를 定着시켜왔고 이에 相應하는 意識構造의 兩極的 深化現象도 治癒될 수 없는 狀態에 이르렀음을 否定할 수 없다.

이러한 意識構造의 異質化 現象은 分斷 以後 南과 北이, 그들의 後繼世代들을 어떠한 人間으로 育成할 것인가의 理念, 혹은 方法上的 괴리로 인해 그 異質化가 더욱 深化되어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실제로 北韓은 韓半島가 分斷되면서 「은 社會를 붉은 思想으로 一色化」 하려는 策略을 그들의 「人間 改造, 혹은 育成」의 政策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냈던 것이다. 그 일례로, 우선 北韓은 우리말의 改造를 통해 北韓땅의 同族을 「好戰的 思想意識을

가진 人民」으로 改造하였다. 北韓은 각종 新聞, 放送, 會議, 그리고 教育은 물론, 日常生活의 모든 領域의 用語들을 戰鬪的 用語로 일관시켰는가 하면, 北韓땅 全域을 마치 戰場을 방불케 하는 原色的인 標語들로 물들여 놓고 있다. 理念的으로나 思想的, 그리고 現實 現存的인 모든 領域에 걸친 南과 北의 대치상태는, 그 대치상태 자체로 인해 後繼世代들의 意識構造의 兩分化가 더욱 深化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이른바 思想戰의 戰力으로 表現될 수 있는 이 後繼世代들의 意識構造는, 이들이 「일단 有事時」 혹은 「現存戰力」의 實體들이라는 점에서 그 兩極化 現狀은 더욱 간과할 수 없는 重要性을 지니는 것이다.

哲人 「플라톤(BC 427~347)」이 說破한 바 있듯이 어떤 國家를 원하면 그에 알맞는 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北韓 共產集團에 의해 統制, 支配받아 온 北韓 後繼世代들의 意識構造나 價值觀, 思考方式과 行動樣式, 그리고 나아가 그릇된 對南韓觀 등, 그들의 思想戰의 戰力이라 할 수 있는 모든 革命的·好戰的

思想意識들은 모두가 과거 40 여년간 北韓 共產集團이 實施해 온 教育의 所産이라 할 수 있다.

그 反面에 南韓이 그들의 後繼世代, 즉 오늘날의 40代 이하의 젊은 世代들에게 實施해 온 教育은, 아니 分斷對峙狀態에서 培養해 온 思想戰의 戰力이라는 것은 北韓에 비해 그 理念과 方向 자체를 달리해 왔고, 教育 또한 思想戰 戰力培養의 方便이라기 보다는 「弘益人間」의 教育理念에 「고스란히」 充實해 왔던 바, 北韓이 教育의 모든 것을 政治思想 戰力化 해 왔음에 비추어 다소 弱한 戰力を 보유하고 있거나 앓을까 憂慮하지 앓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현재 모든 領域에 걸쳐 대치상태에 있는 南北韓 쌍방간의 諸 戰力要素 中, 思想戰 戰力에 대해서 그 根幹이 되는 理論의 背景과 教育理念 및 政策上的 差異를 分析함과 동시에 思想戰 戰力の 培養過程을 相互 比較 검토해 봄으로써, 비록 無形的 戰力要素이기는 하나, 思想戰 戰력에 있어 彼我的 差를 냉철

히 分析해 보고, 아울러 思想戰의 勝利를 위한 方便은 무엇인가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戰力要素 形成의 理論的 背景

1. 序

思想戰의 戰力分析에 앞서서 우선 검토해야 할 문제는 戰力の 主要素인 40代 이하 世代, 즉, 實際 戰力世代들이 갖추고 있는 意識의 背景부터를 알아 보아야 할 必要性이 있다. 왜냐 하면 意識構造를 形成시켜준 背景이라 할 수 있는 歷史的 經驗과 文化的 環境, 혹은 政策的 要求 등의 實狀을 보지 않고서는, 이들 후계世代들의 意識 兩分化 現象의 맥을 추측하기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周知의 사실이다시피 오늘날의 南과 北의 경쟁성과 敵對性, 그리고 相剋性과 排除性은 既成世代에서보다 分斷 이후 출생한 두 後繼世代, 즉, 실제 戰力世代에서 더욱 첨예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이들 실제 戰力世代가 겪어온 歷史的 經驗과 文化的 背景이 그 출발에서 부터가 異質的이

고 相剋的인 性格의 것이었다는 데서 나온 歷史的 產物로 볼 수 밖에 없다.

南과 北의 두 世代의 成長過程을 비교해 보면, 한편이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 體制 속에서 태어나서 개방되고 인간적인 民主教育에 의해 「成熟」된 世代라면, 다른 한편은 人民民主主義와 社會主義, 共產主義 속에서 태어나서 폐쇄체제 속에서 非人間的인 偶像教育에 의해 「鑄造」된 世代이다.

이런 면에서 이들 두 실제 戰力世代들은 그 출발부터가 서로 간에 공통점이 완전히 排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既成世代와는 달리 이들 두 世代는 民族文化의 共通性을 진혀 共有하지 못한 데다가 각기 相反된 政治 社會化 過程에 의해 成長된 世代인 것이다. 게다가 北韓은 그동안 이들 世代들로 하여금 韓國社會狀況을 捏造하고 歪曲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과 政治教育을 極大化시켜왔기 때문에 北韓의 實際 戰力世代들의 對南觀은 現實과는 크게 빗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 두 세대 간의意識을 형성한 主要素로, 被動的要素로서 文化的 背景과 歷史的 經驗이 作用했다면, 能動的인 要素로서 그들을 「成長」시키고 「鑄造」해 낸 것은 바로 「教育」이라는 점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教育」이란 그 語源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의 素質 또는 잠재력을 계발하여 向上・發展시킴을 말한다. 英語의 「Education」은 라틴語의 「Educare」에 語源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끄집어낸다」는 뜻이다. 즉, 人間의 素質 또는 潜在力을 啓發한다는 意味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集團은 모든 共產國家들이 그랬던 것처럼 「教育」의 원래 意味나 目標와는 상관없이 教育을 완전히 政治에 예속시켜 그들의 後繼世代들로 하여금 완전한 共產主義式 人間型으로 鑄造하는데 教育 全부를 沒入시켜 왔다. 한 마디로 北韓에 있어서의 教育이란 단지 그들의 「戰力世代」들에 대한 思想戰 戰力培養의 한 수단에 불과해 있음으로써, 南韓의 教

育과는 그 根本目的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이처럼 思想戰의 戰力形成에 決定的 役割과 背景이 되고 있는 「教育」의 문제에 대해서 그 理念과 政策을 中心으로 南과 北을 比較해 보기로 한다.

2.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

가. 共產主義 教育觀

南韓을 비롯한 대부분의 民主社會의 教育이 바람직한 人間形成을 추구하는데 反하여 共產社會의 教育은 그들의 政治的 要求에 대응한 「새로운 形態의 人間 改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共產主義라는 것은 곧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의미하는데 北韓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北韓은 1972年 12月 27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 1次會議에서 「社會主義 憲法」을 채택하였다. 이 憲法 第4條에서 그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針으로 삼는다」고 明確히 規定함과 동시에, 黨 規約의

前文에서도 「金日成에 의해 創建된 主体形의 革命的 마르크스 레닌主義 黨」이라고 하여, 마르크스 레닌主義가 北韓의 根本的 指導理念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教育現況을 分析・把握하기 위해서는 먼저 共產主義 教育觀을 알아 볼 必要가 있다. 왜냐 하면 바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北韓共產集團은 마르크스 레닌의 共產主義 理念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教育의 경우도 크게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共產主義者들의 一般의인 教育觀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教育의 目標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教育은「階級鬭爭의 수단」 또는 「道具」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教育者는 「職業的 革命家」 또는 「政治的 宣傳・煽動員」으로 간주되며, 學校는 共產主義 理論과 그 傳播의 先導機關으로 定義된다. 이러한 教育觀에 立脚해서 教育의 目標를 마르크스 레닌主義에 基礎한 共產主義 社會建設과 나아가 世界革命에 必要한 人材를 養成

하는데 두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의 이러한 教育目標는 前述한 바 있는 教育 原來의 目的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

教育의 原來의 目的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者들은, 단지 教育을 政治教化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이는 레닌이 「政治에서 分離된 教育은 無用하다」라며 教育의 目標를「私有財産의 心理와 民族主義的・宗教的 기타 낡은 先入觀으로부터 解放된 先進人間의 養成」이라고 한 말이 단적으로 證明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共產主義者들의 教育觀에다가 한 술 더 떠서 「革命性」을 더욱 強調하고 있는 것이 바로 北韓集團의 教育觀이다. 그 具體的인 例를 보면, 그들은 教育을 「思想・文化 教養의 武器」, 教育機關은 「思想革命을 遂行하는 基本수단, 또는 主要한 武器」로, 또 教育者, 즉, 教員은 「後代들을 革命의 繼承者, 共產主義者로 키우는 職業的 革命家」로 規定하고 있다.

이처럼 教育機關을 思想革命을 遂行하는 「기본수단」 또는 「중요한 武器임을 공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教育이 政治의 수단, 또는 道具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이로 짐작해 볼 때 北韓의 「現存 戰力世代」들에 대한 北韓集團의 思想戰力화가 얼마나 그 根本에서부터 치밀하고 強力하게 推進되어 왔는가를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 教育理念 및 目標

北韓의 教育理念은 그들이 지난 1972年 最高人民會議 第5期 1次 會議에서 채택한, 소위, 「社會主義 憲法」 第39條에 明示된 것이 最高理念이 되고 있다. 同 條項은 「國家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爲하여 鬭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의 新 人間으로 키운다」고 規定하여, 그들의 教育理念이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 구현」에 있고, 教育目標가 「共產主義의 新 人間育成」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北

韓의 教育理念과 目標를 좀 더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가 무엇인가를 分析하고, 이어서 「共產主義의 新 人間」이란 어떤 것인가를 把握해 봐야 할 것이다.

(1)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는 1968年 3月 14日, 「北韓 教育部門 일꾼들(즉 교사들)」 앞에서 金日成이 한 演說 「學生들을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의 參된 後備隊로 教育 教養하자」가 基本發想이 되어 1969年 12月 「黨 全員會議 擴大會議 教示」로서 完成된 것인데, 이는 마르크스 레닌의 思想에 金日成의 思想을 가미한 것으로,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이라 자칭하고 있다.

1975年에 평양의 教育圖書出版社가 내놓은 「社會主義 教育學」은 모두 11장 29절로 편성되어 있는데, 第1章에 「金日成 동지께서 創始하신 社會主義 教育學은 主体時代의 勞動階級の 革命的 學說이며, 完成된 共產主義

的 革命人材 育成의 科學的 學說이다 라고 하여, 金日成이 強調하는 黨의 唯一思想과 主体思想을 教育學과 결부 시켜, 主体思想이 곧 教育理念임을 暗示하고 있다.

또한 同章 第2節에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基本原理는 사람들을 革命과 建設의 대열에 主人답게 參加할 수 있는 思想과 건장한 體力을 지닌 믿음직한 革命人材로 키우는 것이며, 여기에서 思想教育에 先次性을 부여하고,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 事業을 첫 자리에 놓을 것을 要求한다」라고 하여 思想教育을 그들의 教育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으로 強調해 놓고 있다.

(2) 共產主義의 새 人間

그러면 北韓共產集團이 追求하는 教育의 目標로서 「共產主義의 새 人間」의 育成이란 具體적으로 어떤 人間의 育成을 意味하는 것인가를 分析해 보지 않을 수 없다.

一次的 意味에서 「共產主義의 새 人間」이란 ① 革命化 ② 勞動階級化 ③ 共產主義化된 人間으로 볼 수 있

다. 그런데 이들 用語가 使用되기 시작한 1960年代 後半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에서는 이들 用語가 수없이 反復되어 使用되고 있으나, 쓰일 때마다 그 內容의 差異가 있고 모호하여 그 概念을 把握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用語가 무엇을 意味하는 가를 알아 보기 위해 「社會主義 教育學에 對하여」(북한노동당 출판사, 1973)를 텍스트로 調査한 內容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共產主義는 놀고 먹는 社會가 아니므로 勞動을 사랑하며 이에 自覺적으로 參與하는 人間.

② 個人主義, 낡은 思想, 資本主義 思想을 철저히 뿌리뽑고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武裝된 人間.

③ 自己個人的 利益을 돌보지 않고 오직 社會 全體를 위해서만 일하는 人間.

④ 共產主義의 勝利를 確信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革命的 樂觀主義를 갖는 人間.

이상의 4가지 條件을 갖춘 人間이 란 어떤 人間인가? 人間의 本性이나

個人的 最小限의 欲求마저도 억제된, 다시 말하면 개인의 모든 것이 抹殺되고 희생된 人間이 다름아닌 「共產主義의 새 人間」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가 設定된 背景과 根本目的을 把握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우선 完璧한 服從 만이 存在하는 全体主義의 共產主義의 建設과 南朝鮮 革命課業의 完遂를 위해 철저한 思想的 人間育成에 그들의 온 教育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教育의 存在理由마저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못 박고 있는 것이다.

다. 教育政策

오늘날 北韓에서 長期 教育政策을 제시하고 教育의 綜合指針書로 되어 있는 것은 1977年 9月 5日에 制定 公布된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提제」이다. 따라서 現在 北韓教育의 모든 것은 이에 의해서 統制·規制되고 있는 바, 北韓에서는 이 「提제」에 의한 教育을 以前과 구별짓기 위해서 특히 「社會主義 教育」이라 부르고 있다.

「社會主義 教育」의 背景을 우선 살펴 보면, 北韓에서는 8.15 解放 직후 여타의 모든 分野에서 蘇聯式을 모방했듯이 教育分野에서도 「소비에트 教育學」을 直導入하여 教育에 適用했다. 그러다가 1960年代에는 「소비에트 教育學에 대한 反撥과 함께 復古的인 마르크스 레닌의 教育理念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는데, 그러던 中 1970年代 以後에는 소위 北韓版 「社會主義 教育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들 理論的 基礎로 하여 마침내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提제」를 制定·公布하여 北韓 教育의 劃一化를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北韓의 教育理論과 政策은 各 時期의 必要에 따라 變遷과정을 거쳐 왔으나 이들 過程中 一貫해서 變하지 않는 것이 있는 바, 그것은 첫째, 「教育에서 政治 思想教育의 最優先」 두번째로 「教育과 全 朝鮮革命과의 不分離」이다.

이것으로 볼 때, 北韓의 現存 戰力 世代들에 대한 思想教育이 어느 정도 인가, 또 그 戰力化 정도가 어느 만

음이겠는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北韓 教育政策의 指針이 되고 있는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는 5 個章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그간 金日成이 教育問題와 關連하여 行한 演說과 敎示, 그리고 命 命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再構成한 것이다. 이 테제에 나타나 있는 教育政策의 基本方向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教育理念과 目標은 앞에서 言及한대로 北韓 住民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化하여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育成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實踐에 옮기기 위해 堅持해야 할 原則으로서 ① 「黨性, 勞動階級性的 具現」 ② 「主體의 樹立」 ③ 「敎育과 革命實踐의 結合」 ④ 「社會主義 國家의 敎育事業에 대한 組織, 進行, 責任」을 提示하고 있다.

「테제 以前」의 教育政策과 比較할 때 同테제에 나타나 있는 教育政策上의 特質을 分析해 보면, 첫째, 政治思想敎育을 여타의 敎育보다 最優先視하

면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그 當爲性을 強調하고 있다는 點, 둘째, 教育理念과 目標, 敎育의 內容과 方法, 敎育制度 등 敎育의 모든 것을 具體적으로 規定하여 劃一化함으로써, 個人, 또는 地域, 그리고 學校別로 發生할 수 있는 「差異」의 可能性을 완전히 排除하고 있다는 點이다. 한 마디로 北韓 땅 全域에서 實施되는 모든 敎育을 「一致된 思想戰力」의 方向으로 集中시키고 있는 것이다.

3. 南韓의 教育理念

이상에서 分析해 본, 北韓의 살벌하고 目的 위주 敎育과는 달리, 南韓의 敎育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人間形成」을 追求하는 敎育 本來의 使命에 充實해 있다.

南韓의 敎育은 1968年 12月 5日에 制定·公布된 「國民敎育憲章」 精神을 基本理念으로 하고, 그 理念을 生活化하여 國家發展과 民族中興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人間을 기르는 것을 基本目標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個人의 能力과 創意力을 最高度로 伸長

케 하는 「全人教育」을 政策課題로 하고 있다.

教育政策의 方向에 있어서도 南韓은, 國民教育憲章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涵양하며 「명량하고 따뜻한 協同精神」을 培養하고 「스스로 國家建設에 參與하고 奉仕하는 國民精神」의 高揚에 그 方向을 두고 있다. 이를 理念과 原理, 政策의 項目別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教育理念 : 南韓의 教育理念은 個人的 發展을 이룩하여 國家發展 및 人類平和에 공헌하는 弘益人間을 養成하는데 두고 있다.

나. 教育의 基本目標 : 自律性 및 民族主体性的 確立과 民族中興教育 및 萬民의 教育機會 擴大 등을 目標로 하고 있다.

다. 教育原理 및 政策 : 南韓의 教育原理는 多樣하고 創意的인 自治와 國民教育憲章 理念의 具現, 그리고 教師, 父母, 學生의 自發的 參與 및 個別化의 原理에 있다. 또 教育政策의 根本은 國民倫理教育을 통한 人間像의

形成과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均衡있는 教育, 教育風土의 개선 등을 그 根本 政策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南韓은 特히 第5共和國 출범 이후 「세世代」에 대해서 이데올로기 教育과, 統一 後繼世代로서의 主人다운 자세의 確立에 教育의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 思想戰力의 形成에 寄與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教育의 진부를 投入하고 있는 北에 比해 매우 미미한 것일 수 밖에 없다.

4. 結

思想戰의 戰力은 他 戰力과 여러 가지 根本的인 差異를 갖는다.

各種 武器, 裝備, 兵力 등이 有形的 戰力인데 比해 思想戰의 戰力은 周知의 事實이 다시피 無形的 戰力이다.

有形的 諸 戰力의 強化를 위해서 必要한 것이 「금전」 혹은 「經濟」라 한다면, 無形戰力인 思想戰 戰力의 培養을 위해 必要한 것은 오직 「教育」 밖에 없다. 따라서 南北韓의 思想戰 戰力培養過程을 研究하기 爲해서는 그 根本인 教育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北韓은 그들의 国體를 「人民民主主義 共和國」이라 하여 「民主主義」임을 표방하고 있듯이, 教育에 있어서도 표방하고 있는 一般原理는 民主社會와 똑같은 知育, 體育, 德育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教育理念과 目標가 다름으로 해서 그 內容 또한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南에서의 知育이 真理探究 혹은 基本素養 培養이라면, 北의 그것은 오직 共產主義 原理 原則의 習得이며, 德育 또한 南의 것이 情緒淳化와 進進한 道德, 倫理, 國家觀의 定立에 있다면, 北은 共產主義的 道德 品性과 社會主義的 愛國精神에 立脚한 革命鬪士의 精神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며, 뿐만 아니라 體育에 있어서까지, 南韓이 個人生活과 社會生活을 보람있게 營爲해 나갈 수 있는 健康과 體力培養에 重點을 두는 反面, 北은 國防體育을 위주로 軍事力 增強에 重點을 두는 등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內容으로 모든 教育을 集中시키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南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를 比較 分析해 본 結果는 重言이 必要 없을 만큼 그 差異가 分明하다. 한마디

로 南이 教育本來의 理念과 目標에 매우 充實해 있으면서 思想戰 戰力培養을 위해 教育을 잠깐씩 「借用」하고 있다면, 北은 教育을 그들의 思想戰 戰力化에 완전히 「專用」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III. 思想戰 戰力培養過程 比較

어마어마한 武器와 最新銳 尖端 裝備로 치르는 것이 바로 現代戰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모든 國家가 아직도 막대한 軍事費를 支出하면서까지 「兵力」 養成에 注力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아직은 戰爭의 勝敗를 가늠하는 더욱 根本적이고 重要한 要素가 「兵力」에 있고, 그 兵力의 精神力, 즉 精神戰力의 強弱이 모든 戰力의 基礎가 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戰爭의 勝敗를 가늠하는 重要한 要素로서의 精神戰力, 곧 思想戰의 戰力培養을 위해 南과 北은 어떠한 努力과 投資를 쏟고 있는지를 比較해 볼 必要가 있다. 前章에서 分析해 본 教育의 問題를 根柢로 하여 本章에서는 戰力培養의 過程을 入隊前과 入隊後 思想武裝教育의 全般的 過程分析을 통해 比較해 보고자 한다.

1. 北韓의 政治思想教育

가. 入隊前의 思想教育

(1) 兒童教育

北韓集團이 그들의 後世들을 「共產主義的 新 人間」으로 키우기 위해 行하는 첫 教育은 生後 3個月에서 부터이다. 쉽게 말해서 北韓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자 마자 父母의 품을 떠나 托兒所에서 「共產主義的 新 人間」으로 集團養育되고 있다는 말이다.

北韓集團은 思想教育이 연령이 어릴 수록 더 効果的이라는 데 착안하여 1947年 托兒所에 관한 規則을 制定・公布하였고, 1954年부터는 托兒所와 유치원의 重要性을 強調해 오다가, 1976년 最高人民會議 第5期 6次大會에서 드디어 「어린이 保育教養法」을 채택하였다. 그 底意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어린이들에게 集團主義的 精神과 共產主義的 道德品性을 키워 「革命의 後繼者」로 養育하기 위한 것임은 自명한 事實이다.

현재 托兒所와 유치원의 數는 약 6만여個가 設置되어 있고, 이곳에서 3백 50여만명의 어린이가 「教育員」, 「教養員」으로부터 集團的으로 養育되

고 있다. 托兒所의 種類는 住民利用의 便利를 도모한다는 名分으로 日, 週, 月 托兒所로 細分化되어 있고, 유치원은 上・下 級班 2年制로 運營되고 있다.

教育內容도 「共產主義的 新 人間 鑄造」의 政治目的 達成이라는 因式에 부합되도록 思想教育 爲主로 編成되어 있다. 즉 組織規律에 대한 順從心, 集團主義 精神 涵養으로 一貫되고, 나아가서 金日成主義에 입각한 「革命 戰士化」하는데 目標을 두고 있다.

托兒所 思想教育的 目的 또한 아이들에게까지 세뇌사상공작을 加하여 共產主義的 新 人間形으로 鑄造시키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말과 몸짓이 배우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먹이를 줄 때 「김일성 아버지 고맙습니다」하고 두 손으로 이를 받게 하고, 초상화 앞에서 경배하는 演習을 시킨다.

그리고 托兒所에서 아이들에게 시키는 모든 놀이는 戰爭놀이이며 장난감도 戰爭과 관련있는 것들로 되어 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일찍부터 好戰的 性格과 攻擊的 性格을 갖도록 訓練시킨다. 이러한 性格 特性이

바로 그들이 願하는 革命家的 氣質이며 그들이 敵對視하는 對象에게 무차별하게 덤빌 수 있게 하는 特性들이다. 이러한 特性들은 父母와 격리시켜 集團的으로 수용하는 狀況에서 보다 效果的으로 造成될 수 있다고 그들은 보는 것이다.

탁아소의 과정을 마치면 모든 어린이는 모조리 유치원에 의무적으로 入學하게 되는데, 유치원은 正規過程을 통한 思想戰 戰力培養의 2 단계 코스인 셈이다.

유치원의 教育도 적어도 겉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시청각교육, 노래, 무용 등의 情緒教育을 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事實上的 教育內容은 金日成을 偶像化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노래유희의 예를 들면,

「아름다운 만경대는 원수님의 고향 우리 모두 언제나 가보고 싶어요. 원수님의 사진은 언제나 봐도 기뻐요. 우리들이 어느 때나 보고 싶은 원수님」(유치원 교양원 참고서, 동경, 학우서방, 1966, p57~162)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視聽覺教育 資料도 金日成의 빨치산 鬪爭 記錄을 유화식으로 엮은 그림책이 主種을 이루고 있으며, 童話, 童詩의 內容 또한 「원수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매우 존경」(전계서, p9) 했다는 것이나, 「오늘은 참 기쁜 날, 원수님이 나신 날」(전계서, p20)이라 하여 生日을 주지시키는 일, 「원수님의 품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꽃봉오리」(전계서, p28)라 하는 식으로 一體感을 복돋우는 등 모두가 金日成 一色으로 教育을 利用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集團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集團的으로 教育시킨 결과, 3천單語의 文化語와 자기 이름을 쓸 줄 알게 되었다」(最高人民會議 第5期 6次會議 보고)고 자랑하고 있는데, 兒童集團教育을 통해 배양된 知的 能力과 言語能力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문제는 集團的 狀況과 政治教化를 위한 特殊教育으로 育成된 北韓兒童들의 性格이다. 당연하게도 好戰的이고 攻擊的이며, 他人을 疑心하고, 自我를 지나치게 방어하는 등의 性格

으로 形成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性格은 北韓集團이 그들의 後繼世代들의 意識을 思想戰力化하기에 매우 適合한 性格임은 두 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2) 靑少年 思想教養

탁아소와 유치원을 통해 「共產主義的 새 人間」의 骨格을 갖춘 北韓 아동들은 人民學校와 高等中學校에서도 마찬가지로 教育을 통해 「참된 後備隊」로 길러진다.

北韓集團은 靑少年教育을 어떤 문제보다도 重視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靑少年教育을 重要視하는 것은, 靑少年들을 훌륭한 人材로 키워서 앞으로 보다 훌륭한 나라 建設과 民族의 發展을 도모하려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8·15以後 소위 社會主義 時代에 태어난 이들 靑少年들을 金日成 體制에 대한 盲信分子 또는 南朝鮮 革命課業 完遂의 前衛隊로 삼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北韓의 靑少年들이 그들의 目的達成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役割을 해 낼 것이기 때

문에 靑少年 階層을 대상으로 하는 思想教養 事業도 매우 重要視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金日成集團은 모든 靑少年들을 黨의 後備隊 내지는 체제옹호의 前衛隊 近衛隊로 育成한다는 方針 아래 靑少年 모두를 「少年團」과 「社勞靑」에 義務적으로 加入시켜 놓고 있다.

「少年團」에는 人民學校 學生들과 高等中學校의 中級班 學生들이 加入되고 「社勞靑」에는 高等中學校 高等班 以上の 靑少年 모두가 가입하는데 이들 靑少年들은 團體生活을 통해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改造되기 위한 가히 狂亂의이라 할 수 있는 思想教養事業에 動員되는 것이다.

이 思想教養事業에서는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 學習이 가장 重要視되어 「金日成 抗日鬪爭記」와 「金日成의 業績讚揚」 그리고 金日成 家門에 대한 讚揚事業이 어느 學習보다 많은 比重을 차지한다.

그리고 思想教育이 어느 學科目보다 優先되고 있기 때문에 이 科目的 成績이 나쁠 경우에는 다른 科目的 아

우리 優秀해도 上級学年으로의 進級이 어렵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人民學校에서 가르치고 있는 教科書의 內容을 主題別로 分析해 보면 더욱 分明하게 나타난다.

(표-1) 교과서의 주제별 빈도

내 용	비율(%)
김일성 찬양	31.5
전쟁의식 고취	26.6
북괴 찬양	9.3
조직생활 교양	3.3
일반교양	29.3
계	100

자료: "사회순화 현황비교" p54,
국토통일원 1976.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全体 內容中 金日成 讚揚, 戰爭意識 鼓吹, 北傀讚揚을 主題로 한 內容이 7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 學科目的 경우에도 그들은 모든 教材의 內容을 金日成 偶像化와 自由民主陣營, 그중에서도 美國, 日本, 韓國에 대한 증오심을 배양하는 內容

으로 꾸미고 있다. 예를 들어 國語 教科書의 경우 「金日成 略伝과 敎示」, 「抗日鬪爭回想記」 등을 각 학년의 教材에 두루 실고 있으며, 算數科目도 순수한 數的 知識의 培養보다는 「미제놈」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기르는 덧셈 뺄셈이 주로 이루고 있고, 歷史敎育에 있어서도 「朝鮮歷史」, 「勞動黨 鬪爭史」 등을 통해 世界的인 共產主義 理念을 強調하고 특히 朝鮮史에서는 「金日成 一家」를 강조하여 마치 全 朝鮮의 歷史가 金日成 族閥의 역사인 양 날조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地理・物理・體育・音樂 등 전 과목의 教材 어느 곳에서나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아니면 김일성 偶像化의 內容을 학년수준에 맞추어 길아놓고 있다.

한 마디로 靑少年期の 모든 敎育과 生活이 思想戰力化와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北韓集團이 靑少年階層의 思想敎育에 熱中하고 있는 理由는, 金日成父子集團의 最大 所望인 韓半島 赤化統一의 實現을 위한 武力南侵 도발

준비에 劃一的이고 好戰的으로 育成된 靑少年을 利用하려는데 그 理由의 전부가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北韓 靑少年들에게 實施되고 있는 思想敎養 事業은 모두가 그대로 對南 思想戰 戰力의 實體가 되고 있으며, 이 敎育의 成果는 靑少年들을 對南, 對美 憎惡心에 가득차게 함으로써 그 憎惡心이 곧 戰爭準備로 이어져 주기를 北韓集團은 강력히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北韓 高等中學校 學生의 軍事訓練과 그 內容을 보면 <표-2>와 같다. 特記할 사실은 學生의 戰力化를 위한 軍事訓練에서도 思想敎育인 政治學習에 전체의 40%인 60시간을 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北韓은 敎育을 통해 그들의 靑少年들을 好戰性, 독재성, 잔인성을 갖춘 行動的인 人間性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 「行動的인 人間性」이 쉽게 말해 바로 「思想戰 戰力」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나. 北傀軍 政治敎育

北傀軍의 政治敎育 實態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우선 北韓의 韓半島 赤化統一을 위한 戰略構想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北傀軍이 요람期和 生長期를 거쳐 成熟期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1969年 1월에 人民軍 黨 第4期 4次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은 武力에 의한 韓半島 赤化統一의 構想을 提示했다.

1962年 12월에 4大軍事路線을 채택한 後 그때까지는 軍事力의 造成과 維持에 관한 것만 明示했을 뿐 이것을 어떻게 運用하느냐에 관심을 表明하지 않던 金日成은 이 會議에서, 「戰爭勝利의 決定的인 要因은 現代戰과 遊擊戰을 配合하는 것이다」라는 命題를 提示하고 아울러 軍의 思想武裝과 精神武裝을 重要視하고 強化할 것을 要求했다.

金日成은 軍의 思想武裝에 대해서 「人民軍의 戰鬥力을 強化하기 위해서 重要하게 나서는 課業은 軍人들을 政治思想的으로 튼튼히 武裝시키는 基礎 위에서 우리의 實情에 맞는 戰法들을 끊임없이 研究하고 完成하며 그에 따라서 軍隊의 現代化를 實現하는 것」

(표 - 2)

고등중학교 군사훈련 (5 ~ 6 학년)

구 분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의 주체사상 ○ 정규 병력의 후비대 기능
편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청년 근위대" - 남·녀 고등중학교 (14 ~ 15 세), 중대 - 대대
시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76 시간 (2 년간) - 입영집체훈련 : 연 168 시간 (2 년간 336 시간) - 교육내용 : 연 120 시간 (2 년간 240 시간)
학습 및 훈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학습 60 시간 (40 %) - 혁명사, 김일성 노작등 ○ 전술학 50 시간 (30 %) - 제식훈련, 경계, 야영, 전술 ○ 화기학, 34 시간 (20 %) - 화기조작, 실탄사격 ○ 기타 17 시간 (10 %) - 화생방, 체육 등 계 168 시간 (1 년간) * 입영 집체훈련 (168 시간) • 훈련조 : 기당 400 ~ 500 명 • 시 기 : 방학 중 (8 월) • 장 소 : 시·군 근위대 훈련소 • 교 관 : 현역 군관 • 장 비 : 소총 (전원 지급) • 복 장 : 근위대 복장 착용
지휘체제	* 대학교와 동일
병 력	167 만명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도 남학생과 대동소이 - 구급법, 간호학 - 산악행군 등에 중점

○ 자료 : 이항구, "북한의 학생군사훈련" "새물결" 제128호 1986.

이라고 하여 軍의 政治思想武裝을 강조 했다. 이 政治思想教育은 北傀軍 軍事教育의 基本理念이기도 한데 6.25 以後 北傀軍 教育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教育이 바로 이 政治思想教育이다. 주요 教育內容은 「共產主義

理論」 「金日成 主体思想」 그리고 「資本主義社會와 우리 大韓民國에 대한 비판과 증오심」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략적으로 본 政治思想 教育 (政治学)의 비중은 다음의 (표-3) 과 같다.

(표-3)

구 분	과 정 별	총시간	정치학시간	비율 (%)
학 교	보병신병교육	176	24	14
	포병신병교육	406	102	25
	기갑신병교육	180	40	22.4
	하사관후보생	720	200	27
	전방부대보병	760	120	17
부 대	포 병	714	150	21
	공 병	746	150	20
	민정증대요원	788	187	23

○ 자료 : 김종대, "북한의 군사교육체계 연구" 정신전력연구 제 5 집, 국군정전교

뿐만 아니라 大學生에 대한 軍事教育도 準 軍隊教育이라는 점과, 이 教育 이수 後 軍 幹部要員으로 배속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데 <표-4>에서 보듯이 「政治学」이 전체 教育內容의 40%를 점하고 있어서

北韓集團이 얼마나 思想教育을 重要視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다음은, 北傀軍의 教育重点과 方針, 教育內容을 교육과정별로 상세히 살펴 보면서 그들이 思想戰의 戰力強化를 위해 얼마만큼 광분하고 있는지를 알

(표-4)

대학교도대 군사교육내용

과 목	교 육 내 용	구 성 비
정 치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 레닌 철학 ○ 혁명역사 ○ 김일성 노작 ○ 항일 빨치산 회상기 	40%
전 술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개, 분대 2 대대 전술 ○ 아영, 행군, 경계 	30%
화 기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기구조 및 조작 ○ 실탄사격 	20%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생방 ○ 독도법 등 	10%

아 보기로 한다.

(1) 地上軍

独自の 戰爭遂行 能力을 補強하는데 總力을 集中하고 있는 北傀軍은 教育 訓練을 戰力培養의 基本으로 삼고, 「最少의 物理的인 힘」에 「最大의 精神 的인 힘」을 結合한 戰鬪思想으로 武裝시켜 黨에 忠誠할 수 있는 軍人으로서 모든 惡條件을 能히 극복하고 말은 바 戰鬪任務를 成功的으로 遂行

할 수 있는 革命戰士로 育成시키는데 그들의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地上軍 教育訓練의 方向을 보면,

- ① 一当百의 政治思想 및 戰鬪技術 育成
- ②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戰術 發展
- ③ 特殊作戰 遂行能力 培養
- ④ 韓國地勢와 体力에 맞는 走力

과 体力 培養으로 提示되어 있는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教育訓練의 첫째
方向으로 「一當百의 政治思想 育成」
을 부르짖고 있다.

뿐만 아니라 訓練 重点에 있어서도

① 思想教養 強化로 革命戰士 育
成

② 幹部化 教育으로 指揮能力 培
養(③이하 省略)

의 式으로 「思想教養 強化」가 그 첫
째 重点이 되어 있다.

地上軍의 各 教育課程別 教育의 重
點과 教育內容中 政治思想 教育의 비
중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新兵教育

대체로 軍隊服務에 必要한 보편적이
고 基礎적인 內容을 短期教育을 통하
여 習得시킨다. 特히 新兵教育을 통
해서는 各種 規定과 兵營生活 要領을
政治思想的으로 익숙시켜 軍의 義務를
다하는 機戒的 軍人型으로 만들고 있
다.

(표-5)

신병 교육과목 및 시간

과 목	시 간	%	과 목	시 간	%
정 치 학	24	13.5	독 도 법	4	2
대 열 훈 련	16	9	위 생	2	1
부 대 규 정	24	13.5	병 기 및	24	13.5
체 육	24	13.5	사 격		
화 학	8	4	전 술	46	26
공 병	8	4	계	180	100

○ 자료: 북괴군 교육훈련제도 p38, 합참 제 2 국 1979.

<표-5>의 教育科目 및 時間에서
보듯이 政治學이 13.5%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下士官 養成課程

下士官 課程에서는 대체로 指揮能力을 갖
게 하며 教官으로서의 資格을 부여하고

해당 兵科 技術分野의 專門技術을 習
 得시키는데 重点을 두며, 次上位職 任
 務를 遂行할 수 있는 能力과 資格을
 갖도록 教育시키는데 新兵課程에 比해
 政治學科目의 比重을 더 높이고 強化

한 점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표-6>은 軍團 分隊長 要員 養
 成課程의 教育內容과 時間을 分析한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政治學을 5분
 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配定하고 있다.

(표-6)

과 목	시 간	%	과 목	시 간	%
정 치 학	150	19.5	화 학	20	2.5
병기, 사격학	100	13.1	위 생	20	2.5
전 술 학	200	26.2	지 형 학	20	2.5
교 수 법	80	10.2	통신, 차량학	10	1.3
분 대장 훈련	60	7.8	공 병 학	20	2.5
체 육	50	6			
대 열 학	40	5	계	770	100

○ 자료: 상계서, p43

(다) 軍官 養成教育

實務能力培養에 重点을 두고 軍事學
 南韓의 將校에 해당하는 이 「軍官」 및 政治學에 치중한 教育을 하고 있
 다.

은 선발기준부터 「黨性이 強하고 熱
 誠的인 者」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

第1 綜合軍官學校 正規課程 步兵班의
 教育科目과 時間은 <표-7>과 같은
 데 이 課程에서 政治學의 비중은 약
 20%에 해당하는 1,060 시간은 配定
 하고 있는데 主要內容은 「共產黨 歷
 史」 「北傀勞動黨 鬪爭史」 및 政治

입교선발 節次를 보면 「黨細胞」와
 「大隊 初級黨委員會」가 適格者를 선
 발하므로 엄정하고 철두철미한 思想性
 만이 要求된다.

教育內容은 兵科別 基本知識과 指揮

(표 - 7)

제 1 종합군관학교 정규과정 보병반

구 분 과 목	학 년 별 시 간			계 (비율)
	1	2	3	
군 사 학	1,065	1,190	1,135	3,390(64%)
정 치 학	306	390	364	1,060(20%)
일 반 학	330	240	278	848(16%)
계	1,701	1,820	1,777	5,298

○ 자료 : 상계서 46p

학을 重点教育하고 있다.

一般軍官 養成을 爲主로 하고 있는 「姜健軍官學校」의 경우는 政治思想教育이 2년간의 教育期間 中 전체교육의 35%로 編成돼, 1학년을 對象으로 하는 「金日成의 革命活動」 「革命的 家庭生活」 「主体思想의 概念」 「金日成, 金正日 善行勞作」을 集中教育시키고 있고, 2학년을 「戰鬪建設」 「主体思想의 優越性」 教育 등으로 「對金父子」 忠誠의 핵심분자로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北傀軍의 核心要體로서 金日成, 金正日 체제옹호의 중추적 역

할을 遂行하고 있는 「政治, 保衛軍官」 들 역시 「金日成 政治軍事大學」에서 2년간의 教育기간 中 15% 상당을 政治思想教育에 할당해 政治指導員 및 保衛軍官으로써 思想的 무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政治軍官의 경우는 專攻科目으로 「黨 建設勞作」, 共通科目인 「政治經濟學」, 「黨 建設學」(黨 理論學)을 비롯해 金日成 偶像化의 革命歷史 및 革命史蹟地에 대한 見學을 포함한 現地學習을 實施토록 하고 있다.

(라) 部隊教育

北傀軍의 各 課程別 新兵教育을 修

了한 兵士들은 各 部隊에 配置되어 週期的인 部隊教育을 反復的으로 받는다.

北傀는 1969년부터 金日成 唯一思想体系 確立을 위하여 政治教育을 倍加하여 實施하고 있다.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各 戰鬪部隊別 部隊教育에서 政治学은 大部分 20% 内外의 비중을 갖고 있다.

특히 步兵部隊에서는 〈표-8〉에 나타나 있듯이 政治学을 重要視하고 있는데, 軍事学 科目과 같은 時間을 配

(표-8)

과정별시간 과 목	보 병		포 병	공 병	통 신
	경계	예비			
총 시 간	504	808	972	972	972
정 치 학	144	192	162	192	192
비 율	28.6	23.8	16.7	19.8	19.8

○ 자료: 상계서 55p

定하여 兵士들의 세뇌공작을 시키고 있다. 步兵部隊 政治学 教育의 目的은 「黨의 軍隊라는 것을 自覺시켜 黨과 首領에 맹종하고 無限히 忠誠할 수 있는 精神的 戰鬪力을 完備」하는데 두고 金日成 偶像化를 위한 唯一思想体系 確立에 중점을 두고 있다.

教育方法은 통상 軍事学에 先行하여, 教育 첫 시간에 「教養室(革命傳統研

究室)」에서 實施하며 「政治副中隊長」이 最初課題에 대한 說明과 重要事項을 暗記시킨 다음, 끝으로 學習內容을 討論시킨다. 步兵部隊 政治学科目的의 主要內容은 〈표-9〉에서 보듯이 革命傳統 등 金日成 偶像화 學習에서부터 國內外 情勢學習에 이르기까지 好戰性과 憎惡心을 부여하는 內容이 主를 이루고 있고, 「敵軍學習」이라 하

(표-9)

보병부대 정치학과목내용

항 목	내 용
혁명전통 학 습	1. 김일성 혁명과정(27권) : 암기 2. 항일투쟁 3. 군의 사명 : 암기
공산주의 사상학습	1. 마르크스 레닌주의 2. 변증법적 유물론 3. 경제론
제급교양 학 습	1. 사회주의 우월성 2.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
당 정 책 학 습	1. 국방력 강화책 2.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확립 3. 군 당회의 문헌
김 일 성 교시학습	1. 청산리지도, 대안의 사업체계 2. 당대표자 회의시 김일성 연설문
국 내 외 경제학습	1. 국내외 경제를 계급투쟁의 필연성으로 유리하게 해설 2. 적개심 높이고 희생 및 단결호소
적군학습	1. 사단이하 편성, 장비 2. 부대 전면의 배치현황 3. 국군의 취약점(성분, 갈등, 황포, 기압 등)

○ 자료 : 상계서 57p

여, 南韓 軍隊의 편성, 장비, 취약점 등을 教育하고 있는 點 등이 注視된다.

北傀軍은 特殊戰의 遂行과 南派任務 遂行을 위한 特殊部隊를 育成하고 있는데 이 特殊部隊의 教育도 연간 1,632 時間中 政治學이 240 時間 實施된다.

特殊部隊의 兵士인 「輕步兵」에게는 이른바 「自負心 教養」이라는 科目이 教育되는데 그 內容이 너무나 好戰의 이고 도발적인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철두철미한 思想으로 무장된 그들의 「自負心 教養」 內容을 살펴 보면,

『① 경보병부대는 일당백으로 武裝되어 있다. ② 首領을 위해서는 青春도 生命도 초개같이 버린다. ③ 경보병부대 만으로도 南半部 解放이 可能하다. ④ 위대한 首領을 위해 한 목숨 바쳐 싸우라. ⑤ 6.25 사변시 경보병이 1個師團 만 있었어도 祖国 解放은 可能했을 것이다. ⑥ 경보병은 首領에게 가장 充實한 黨員部隊, 下士官部隊로 꾸려져 있다. ⑦ 경보병부대는 戰爭時 포로가 될 수 없으며 위급 시는 自爆해야 한다』로 되

어 있어 金日成에의 忠誠心과 好戰意識을 「자부심」이란 美名으로 길러주고 있다.

幹部級에 대한 部隊教育은 集体教育으로 實施하고 있는데 政治學과 軍事學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政治學은 각 部隊마다 政治, 즉 思想武裝 만을 담당하는 이른바 政治副指揮官이 있어서 그가 政治學을 教育하고 있다.

結論의으로 北傀軍 地上軍의 各種 軍事教育은 모든 軍事學과 軍事實務學에 優先하여 「政治學」 「政治教養」을 實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人民軍들을 오직 黨과 金日成에게 忠誠하여 목숨도 초개같이 버릴 수 있는 강인한 思想力으로 武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空軍·海軍

北傀 空軍과 海軍의 경우도 地上軍과 마찬가지로, 教育訓練方針에는 「全人民의 武裝化教育」 「精神戰鬪力의 強化」가, 教育訓練重點에는 「思想教育 強化로 革命戰士 育成」이 最優先의 課題로 되어 있다.

各 課程別 教育과 部隊教育에 있어서도 거의 地上軍과 동일한 비중으로

政治学을 教育하고 있고, 特히 空軍 操縱士의 경우 特別히 強化된 政治教育을 하고 있다.

우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黨性과 出身成分이 優秀한 者 만이 선발될 수 있으므로 政治思想 學習의 成果와 成績이 最優先 考慮對象이 되는 것이다. 선발된 조종사는 4 個月의 基本軍事訓練課程을 거친 다음, 「政治教育」을 따로 2 個月間 받고 이어서 航空理論과 초급에서 高級課程에 이르는 飛行訓練을 받는다.

北傀軍 空軍大學 學習大隊의 政治学 教育實態를 보면, 총 450 時間의 政治科目教育을 받는데, 그 內容은 노동黨 투쟁사 70 시간, 黨의 生活方法 60 시간, 哲學 60 시간, 朝鮮歷史, 政治經濟學이 각각 70 시간인데 비해 「共產黨史」가 120 시간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 結

이상에서 살펴 본 北韓의 政治思想 教育實態를 綜合해 볼 때, 그들은 入隊前의 思想教育과 軍事教育을 통해 이미 「투철한 共產革命戰士」로 養成

된 뒤에 軍에 入隊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에서 現在 「戰力化世代」라 이름붙일 수 있는 世代들은 태어나면서부터 「共產主義的 人間性」 確立을 위한 強制組織의 原理 아래서 政治的目的 實現을 위한 道具로서의 역할을 強要받으며 자라나므로 因해 「共產主義人間」特有的 포악한 行動特性을 보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계적이고도 系統화된 唯一思想 그리고 學生軍事教育 및 組織生活을 통해 共產主義 革命思想으로 튼튼히 武装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思想武装을 바탕으로 入隊後에는 철저한 思想教育과 武装化教育을 最優先적으로 받으므로 인해서 強한 「精神的 戰鬪力」을 갖추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育成·教養되는 바, 國家가 아니라, “黨과 金日成을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英雄的인 革命戰士」로 人民軍 모두가 키워져 있다는 사실이 「엄연한 現實」로 存在하고 있음을 깊이 認識할 수 있다.

2. 南韓의 反共精神教育

가. 學校教育

현재 南韓의 正規學校 教育課程에 있어서 思想戰 戰力의 要素로 삼을 수 있을만한 教育은 反共教育과 共產主義 理論批判教育이 전부이다.

이 反共教育은 1948년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면서 北韓과 正面으로 對決하게 되자 反共教育의 必要性이 現實적으로 論議되기 시작했으며, 6.25를 겪으면서 教育의 모든 領域에서 優先적으로 反共教育이 行해져야 한다는데 異見없이 뜻을 모았다. 이어서 1954년에 制定公布된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令」에 의해 國民學校에서의 反共道德教育 實施가 制度的으로 成立되었고, 中等教育의 경우 55년부터 「교과과정」이 制定 施行되면서 中學校에는 「道義」, 高等學校에는 「道德」이 適當 1시간으로 配定되었다.

그러다가 1963년에 改正·公布된 教育과정에서 國民學校 및 中學校 教育課程의 全体的 構造를 反共道德生活, 教科生活 및 特別生活의 3大領域으로 編成하고, 國民學校의 경우 매주 각 學

年 1時間씩의 特設時間을 두어 反共 道德生活의 教育活動을 綜合적으로 指導 評價토록 했으며, 中學校는 「道德」 高等學校는 「國民倫理」를 새롭게 설치하여 이를 통해 反共教育을 實施하고자 했다.

1969년에 教育課程의 部分的 修正을 통해 初·中學校의 경우 주1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 教育하다가, 1983년에 實施된 教育과정의 全面的 改編에 따라 初中高校의 「道德」과 「國民倫理」에 統合되어있던 反共教育의 영역이 새롭게 補充·構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3년 以來 施行되고 있는 反共 教育의 理念과 目標 및 內容을 各級 學校別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國民학교

國民학교 反共教育의 目標은 「北韓 共產黨의 그릇됨과 侵略性을 警戒하고 民主主義의 우월성을 理解하여 平和統一의 信念을 가지게 한다」는데 두고 있다. 즉 反共生活의 領域을, 北韓住民들의 比참한 生活相과 모습을 알게 하고 北韓共產黨에 對處할 수 있는

올바른 國家觀과 統一觀을 가지게 하는데 주된 關心을 두고 있다.

(2) 中學校

中學校는 「民主主義의 우월성을 認識하고 北韓 共產集團의 도전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祖國의 民主的 統一에 이바지 한다」는데 目標을 두고, 이러한 一般目標의 達成을 위해서 주로 北韓의 現實과 共產社會의 現實, 그리고 平和統一의 意志에 관한 內容을 週2時間 教育하고 있다.

(3) 高等學校

「共產主義의 도전을 克服할 수 있는 思想的 역량을 길러 民主的 平和統一의 信念을 굳게 한다」고 反共教育의 目標을 設定하고 「祖國守護와 平和統一」이라는 단원을 「國民倫理」科目 속에 삽입하여

- ① 共產主義 理論과 現實
- ② 國際情勢와 韓半島
- ③ 北韓社會의 特性
- ④ 北韓 共產集團의 侵略政策
- ⑤ 우리의 統一政策
- ⑥ 國家安保와 우리의 使命 등의 內容을 教育하고 있는 등, 北韓에 비

해서 매우 소극적 思想教育에 머물러 있는 實情이다.

나. 軍隊教育

前章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北傀軍이 모든 教育訓練에 있어 「思想武裝」을 最優先으로 내세우고 있는 反面에 韓國軍에 있어서 「精神教育」은 단지 「強調事項」이며 「努力集中 장려사항」일 뿐이다.

陸海空, 各軍別 教育內容은 일률적이고 大同小異하며 다만 各軍의 特性에 맞는 精神教育 專門機關을 별도 運營하고 있다.

參考로 陸軍의 教育方針을 보면, 第4項에 「精神教育은 모든 教育訓練에 統合實施하며 기타의 部隊活動도 精神戰力を 強化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努力을 集中한다」고 밝혀 놓고 있다.

현재 韓國軍은 精神教育 努力의 集中과 生活化教育을 위해 週1회 「精神教育의 날」을 設定, 施行하고 있고 이날을 통해 指揮官 精神訓話, 基本政訓教育, 主題發表教育, 職場(中隊) 團結會議 및 軍歌 등 文化生活을 實施하고 있다. 이는 新兵養成에서부터

部隊訓練에 이르기까지 同一한 基準으로 實施되고 있다.

3. 結

南北韓의 精神戰力, 즉 思想戰의 戰力 培養過程을 綜合 比較해 보면 雙方 間に 현저한 격차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北韓은 住民 전체를 兵營集團化해 놓고, 對南赤化에 全力하고 있는 반면에, 南韓의 경우, 總力安保體制로 이에 처処하는 立場에서 軍隊에만 그 對決의 역할을 일임하고 있는 셈이다.

한 例로, 學校教育을 除外하고, 南北 양측이 軍의 精神戰力 培養을 위해 養成해 놓은 政訓將校(北은 政治軍官)의 數나 構成을 比較해 보면 思想戰 戰力の 彼我 比較가 더욱 確然해 질 것이다. 韓國軍이 士兵 862명당 政訓將校 1명을 두고 있는데 反해 北 韓軍은 64명당 1명으로서 그 構成 比는 무려 1:14 에 이르고 있다.

한편, 社會體制, 經濟體制 등 여러 가지 體制의 面에서도 南과 北은 현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體制

의 차이를 北이 「好條件」으로 利用 하고 있는 반면에 南은 오히려 「惡 影響」으로 받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우선 北韓은 劃一的 閉鎖社會로서 모든 教育을 劃一的으로 社會, 學校, 家庭, 軍隊를 직결시키며 實施할 수 있고, 精神教育(政治教育) 또한 黨 統 制下에 注入式 一方教育으로 實施하는 反面에, 南은 多元的 開放社會로서 家 庭, 學校, 軍隊教育의 連結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自由放任型 社 會風潮는 오히려 軍 精神戰力에 惡影 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陸海空軍 將兵 200명을 對 象으로 將兵들의 安保意識을 調查해 본 結果인 <표-10>을 보면, 設問 에 應答한 대부분이 確固한 勝利意識 과 祖國守護 意志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外形的으로 드러나 는 北의 「思想武裝」에 비해, 自由體 制 속에서 나름대로의 精神戰力 強化 를 위해 꾸준한 努力을 기울여 온 南韓의 思想戰 戰力도 결코 약한 것 으로 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표 - 10)

장병들의 안보 의식

	민주통일은 우리의 과제	남침시 싸울 것이다	전쟁시 우리의 승리
확실히 그렇다	61 %	82 %	76 %
그런 것 같다	19 %	17 %	12 %
잘 모르겠다	16 %	1 %	6 %
아 니 다	4 %		6 %
	100 %	100 %	100 %

(육해공군 장병 200명 대상 설문조사)

IV. 結 論

周知의 사실이다시피 大韓民國은 反共을 國是로 하여 樹立된 나라이다.

南과 北의 分斷으로 인해 모든 領域에 걸쳐 대치하고 있는 이 狀況에서 北으로 부터의 위협을 效果的으로 防止하는 것은 이 나라의 至大한 관심사로 이어져 왔으며, 따라서 國民이나, 特히 後繼世代들에 대한 反共精神 教育이 소홀히 된 적도 없었다.

그러나 時代狀況이 달라지고 「戰力 世代」들의 意識構造가 달라졌음에 비하여 현재 우리의 思想武裝教育은 아

직도 맹목적인 共產主義 理論批判이나 北韓社會의 비참성 強調에 머물러 있고, 꼭 이겨야 한다는 勝利意識의 고취 보다는 막연히 「共產主義가 싫다」는 식의 意識注入에 머물러 있음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本論에서는 言及치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 大學에서의 反共理念教育 實態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눈물이 다 날 지경이다. 완전한 教育不在의 狀態이고 學生들에게서 조차 이 教育에 대한 수용자세를 찾을 수가 없다. 만약 현재와 같은 教育不在狀態를 放置

하면서 思想戰에서의 勝利, 나아가 民族統一意識의 進전한 組織을 기대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教育政策의 우둔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學生들의 安保・理念教育에 대한 수용장치를 갖출 수 있는 계기와 장치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盲目的으로 教科課程에만 삽입해 놓음으로써 安保 및 理念教育의 「御用的 인상」을 씻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바로 現存 戰力世代인 大學生 사이에 抵抗性向이 점차 커지고, 또 이 抵抗性向으로 인해 차차 左傾化 색채가 나타나기 시작한 現 韓國 大學教育의 實態는, 思想戰의 勝利를 바라고 民族統一의 念願 實現을 갈망하는 많은 國民들의 마음을 정말 우울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問題는 思想武裝에 있어서의 南과 北의 優劣을 比較함으로써 얻어지는 結果가 아니라, 南北韓 「戰力世代」들의 意識이 極端的으로 兩極化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실령 體制와 理念을 당분간 달리하고 있는 狀況에서 차라나서, 극단적으로 대치해 있는 現實 속의 世代들이라는 사실을 直視하더라도, 어차피 그들이 根本的으로는 한 民族이요 한 뿌리를 外面할 수는 없다. 그러나 分斷 이후 40여년간 양측의 同族은 엄청나게 異質化되어 있음을 스스로 承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原因은 바로 北韓集團의 「폐쇄 속의 劃一教育」이 만들어 낸 結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치하고 있는 南과 北의 두 體制가 平和이든 赤化이든 일단은 統一을 主要한 民族的 課題로 표방하고 있는 이상 이들 두 後繼世代에 대한 民族 同質性的의 回復은 언젠가는 解決해야 할 問題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南北韓 두 世代 간의 同類 意識에 基礎한 統一志向의 價值觀 형성과 平和統一接近의 關係改善은, 國際 關係의 變化라든가 體制的 開放의 條件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그러므로 極端的 대치상태인 현재의 狀況에

서, 우리의 民族的 念願인 平和統一의 實現을 위해서는 勝利意識에 바탕을 둔 學校, 家庭, 社會, 軍隊가 연결되는 思想戰力 培養過程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現在 狀況에서 思想戰의 戰力은 무엇보다 重

視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지금의 狀況은 韓民族 5천 년의 歷史에서 분명히 우리 스스로 克服하지 않으면 안 될 民族的 責務로 부여된 상황임이 틀림없다.

參 考 書 籍

- 「民主統一論」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7.
- 「自由公論」 각권
- 「北韓」 각권
- 「統一韓國」 87.2월호.
- 「韓國共產主義 運動略史」, 金昌順, 북한연구소, 1984
- 「北韓의 "공산주의적 人間教育" 과 그 특징」 崔光石, 북한연구소, 1985
- 「北傀軍教育訓練制度」 함창 제2국, 1979

創造的 指揮管理

'87년도 공모 최우수작
(편집자 주)

이 인 형

(중령 제 8351부대)

1. 머리말

本人은 1985年 9月 당 부대 指揮官으로 補任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滿 1年 10個月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며 使命感과 함께 勤務해 왔다.

한 集團의 責任者로서, 所期의 목적을 達成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설정 에 따라 휘하 將兵들을 가장 效率的 이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運用·管理코 자 하는 데는 많은 思慮와 試行錯誤 를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동안의 판단과 결정에서 비롯한 指針이 당 부대에 적용되어 일정한 結果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는 가장 最善의 方法이라 여겨졌던 施策中에서 도 예기치 못한 結果가 초래되는가 하면, 自律的이며 合理的인 부대운명을 위하여 우선 自身과의 힘든 戰鬥를 치뤄내야 하는 그치지 않는 自己修養 이 必要하였다.

'人生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어느 先知者의 말이 '政策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연역적 聯想을 가져온다.

그러나 부단한 決定과 分析과 再決定의 과정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던 指揮管理에 하나의 교훈은, 더욱 科學的인 태도와 研究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만이 試行錯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며, 여기에 그동안의 成果와 未洽을 겸허한 마음으로 整理하여 本人의 指揮事例를 소개한다.

2. 問題提起

부임 초부터 당 부대는 任務와 그 임무수행을 위한 諸 環境的 與件이 他 軍部隊와 구별되고 특징적인 要素를 지니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통상적인 Base 개념의 空軍과도 比較하여 당 부대는 몇 가지 면에서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었으니 그것을 ①地理的 要因, ②任務的 要因, ③精神 的 要因으로 大別하여 보았다.

첫째, 位置的으로 산간오지에 주둔할 수 밖에 없는 당 부대는 諸般 文化的 혜택과 유리되고, 住居 및 勤務施設의 未備, 부식조달이나 食水 등의 給食문제 해결에 커다란 비중을 요하는

형편으로서, 이는 부대운영의 基本的 要件들인 만큼 어느 한 가지 소홀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부족과 어려움이 많았다.

둘째, 당부대 근무여건은 將兵의 상당수가 24時間制 근무에 투입되고 있음으로서 生活리듬의 변화와 함께 장병 體力問題가 야기되었고, 특이한 업무상 이 작은 부대 내에서도 業務 分擔이 확연하여 前·後方 분야로, 다시 專門的 역할을 담당하는 所屬別로 구분되어져 部署間 갈등의 요인을 간직함으로써 相互 유기적인 協助體制가 조성되지 않을 시 부대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소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셋째, 장병 個個人, 所屬別 더 나아가서는 部隊 全体的 분위기가 앞의 두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固定 觀念을 형성, 편협된 思考形態가 조성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孤立과 狹小, 不便, 그리고 생활주기를 깨뜨리는 근무일정 등으로 규정된 부대生活 觀念은 장병들 대다수에 파급되어 士氣低下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있고, 이곳에서 보내는 일정한 期間을 '잃어버린 時間', 내지는 수동적 자세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장소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轉入將兵 대부분이 入隊前 상상하고 計劃하였으며, 의욕에 찼던 軍 生活은 이곳에 와서 새롭게 動搖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3. 合理的 指揮管理를 爲한 Ideal Model 構想

狀況理論(Situation Theory)에 의하면 지휘관리는 指揮者와 部下가 맡은 課業을 포함하는 상황의 產物이라고 정의하는데, 상황이 지휘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効果的인 지휘자는 상황의 요구에 잘 부합되는 指揮者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指揮方針의 틀이 당 부대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며 창조적인 指揮管理를 可能케 할 것인가?

가. 지휘방침의 效率的 指揮管理 提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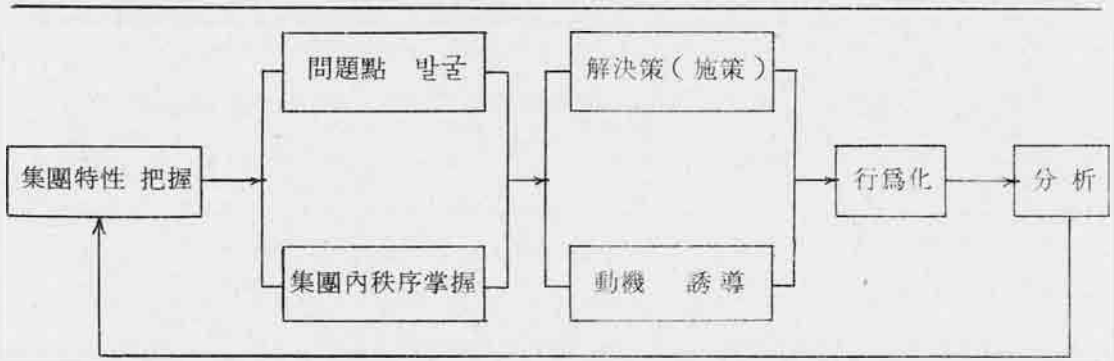
본인은 부임 후 당 부대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①완벽한 防空作戰 遂行과 ②장비의 無中斷 運營이라는 基本的 指揮目標下에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㉞福祉施設 環境改善, ㉟精神戰力 極大化로 장병의 價値觀 定立, ㊱上·下間, 部署間 勤務姿勢定立 및 明朗한 兵營生活 造成 등을 부차적 지휘방침으로 계획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지휘목표 및 方針의 구체적 實踐方案으로서는 지휘를 위한 效果적인 方法論的 시각이 설정되어야 하겠고, 그 방법 및 通路를 구성하는 중요한 諸 要素를 찾아야 할 것인 바, 集團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集團統率(Group Control)에 직면하는 諸 段階를 다음과 같은 圖式 1로 나타내 보았다.

즉 統率集團의 성격을 파악, 그에 알맞는 시책을 강구하며, 行爲로의 유도를 통해서 集團目標에 얼마만큼 接近했느냐는 分析이 따라야 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Feed Back으로 作用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부대적용 地 지휘관리 模型을 채택하였는



圖式 1. Feed Back(自動調節作用)

데 나름대로 당 부대 환경에 적합하며, 合理的으로 설계된 모형(rationally-set model)으로서 새로운 환경창조를 可能케 하는 지휘관리방침이라 생각한다.

나. S-R 도식과 集團行爲에 관한 模型

Watson에 의하면 '人間은 움직일 수 있는 組立된 有機體이며, 刺戟에 대해 反應하려는 未學習行態의 諸單位 조직으로 이루어져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끊임없이 오는 영향을 받아 그러한 未學習·非條件化行態를 條件的, 學習的 行態로 發展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Watson의 가설은 '意識' 대신에 可視的으로 나타난 行態를 中心概念으로 채택하여, 人間에 刺戟을 주고 그에

대한 反應을 조사하여 人間の 行態 또는 집단의 行態를 명확하게 分析·예측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유추하여, 적어도 당 부대와 같은 小規模集團에서 부대장병 개개인의 協力을 바탕으로 부대 전체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最善의 것으로는, 各 將兵 個個人이 有機體的으로 상호作用하고, 일정한 충격에 일정한 結果를 초래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대를 가장 活性化(Vitalitation)시킬 수 있으며 強化(Reinforcement)할 수 있는 組織管理法이 必要하다고 본다.

T·Parsons는 行爲發生 준거기준을 설정하고, '行爲는 目的追求的이며 特定한 狀況에서 發生하고, 規範에 의해 規制되며, 動機化의 에너지를 消費한다'라고 規定한다.

선적, ③제도적 側面으로 區分하게 하였고, 제 側面에 대한 자극과 함께 나타나는 반응을 통하여서 당 부대의 일정한 행위지향성을 파악, 소망스런 方向으로의 부대운명을 도모하였다.

4. 부대 基本環境 정비로 士氣振作 : 環境的 要因

가. 부대 公園化 事業

S-R 도식이나 K. Lewin의 定義에서 인간행위에 있어 根本的 心理는 각자가 놓여진 분위기가 그들의 行態 (Behaviour)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좋은 환경에서의 勤務란 意慾을 증진시키고, 고립된 집단생활에서 지루함과 수동적 태도를 最小化시키며, 결국은 諸 不滿要因을 제거해 주는 兪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당 부대는 天然的인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이를 심분 활용하여 여기에 알맞게 부대를 公園化하는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격오지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解決하거나 적어도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感情을 갖게 하도록 장병들을 刺

戟 내지는 유도하였다.

먼저, 부대지원가능한 事業으로서 부대의 모든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였다. 숙영시설 및 勤務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 부터 개선하도록 하였으니, 老朽된 곳과 不潔한 곳은 과감히 철거해 내고, 정기적인 보수와 함께 시설물의 노화방지와 美觀을 위해 페인팅을 실시하였다.

각 근무장을 잇는 계단과 통로를 보수하였으며 난간에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변건물과의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構造, 색채에 신경을 썼다. 한편 장병 스스로 部隊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所屬別 화단조성 붐을 일으킴으로써, 적절한 보상과 함께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권장하였다. 部隊와 官舎를 잇는 도로변에 유실수를 植樹하고, 부대와 관사에 小公園을 造成, 벤치와 화분, 조각품, 운동기구를 설치, 휴식공간을 넓혔으며, 그 외의 공간에는 잔디를 이식하여 녹지대를 이룸으로써 하계 홍수나 태풍에 대비케 하는 效果도 거두었다.

환경이 점차 깨끗하고 美觀이 높을수록 將兵들은 部隊公園化 事業에 적

극적이었으며, 결국 부대운영에도 큰 實效性을 거두게 되었고 급기야는 지휘관으로 하여금 창조적 施策을 항상 制할하는 要因이 되어 '86年 2/4 분기에는 부대 밖 산허리에 약 1,000坪의 연병장과 축구장을 마련, 春·秋 季 體育大會를 치를 수 있게 하여 오랫동안 자축하며 記念할 일이 되었다.

이외에 관사지역과 부대의 담장 및 철조망 개축, 지붕도색, 주거지 內部施設 現代化, 배구장·족구장·테니스장 신설, 體育館 준공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환경정비는 곧 勤務意欲과 직결되는 커다란 刺戟要因임을 중시하여 부대公關化 事業의 꾸준한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시상 및 독려를 계속하고 있다.

나. 福祉環境 造成 및 장병 給與 品 管理

한 集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構成 員들의 不滿은 언제 어디서나 조금씩은 있게 마련인데 특수한 요인이 없다면 그 보편성과 마찬가지로 不滿의

要因도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衣·食·住는 인간의 가장 基本的인 요소들이고, 이의 침해나 불편을 느낄 때 거부반응이 민감하다.

將兵들은 먼저 개개인의 生活영위에 필수적인 要素들의 부족과 불편에 민감했으며, 정당한 要求에 未洽할 시 否定的이었고, 또 다른 不滿의 原因이 되었다.

복지환경의 조성 및 개인 給與品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병들의 肯定的·否定的 叱咤를 결정하는 刺戟 要因이었으며 그 반응은 민감하게 表出되었고,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本人은 이와 같은 사항을 위한 조치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管理와 함께 輿論의 수습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장병들의 기본적 福祉 및 給與에 정확한 管理는 물론, 그외의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절실히 實感하였다.

人間行態에 있어 不滿의 표출을 T·Gurr는 價値期待(Value Expectation)가 실질적 價値滿足(Value

Capacity)을 초과하고 두 개념 간의 괴리가 클수록 相對的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야기, 부정적 행위지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던 점을 상기할 만 하다. 당 부대의 福祉策으로서는 B·X, 장교식당, 사병식당을 어느 부대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만큼 現代化하였으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우선으로 하였고, 장병의 건강과 용모단정을 위하여 역시 시설 및 機材를 보수 내지는 새롭게 비치한 이발소(매일 운영), 목욕탕(주 3회)을 운영하고, 장병체력증진과 휴식을 위해 정기적인 부대지원으로 각종 체육기구를 마련한 체육관과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도서 2,500여권을 소장한 政訓室에서는 독서와 함께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고양시키고 있으며, 각 내무반으로 이어지는 VTR 회로는 휴식과 함께 敎育用으로도 잘 活用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항에 관련 責任者들의 감독철서는 물론, 가장 可觀의 이고 민감한 부분인 만큼 수시점검과 애로사항 청취가 필요하였다. 定期的

인 보고接受 이외에도 메뉴會議(月 1회), 內務班長·班副會議(月 1회), 職場團結會議(月 1회), 轉入將兵輿論調查(月 1회), 轉役將兵 輿論調查(月 1회), 兵·下士間 對話모임(月 1회)等 定期的인 여론조사와 소속장 및 先任下士의 주기적인 面談 그리고 特別參謀와 主任上士 等과의 개인적 접촉에 의한 自由스럽고 전문적인 면담을 特性別 및 分野別로 活性化하였으며, 문제發生時 즉각 적절한 對策과 아울러 그 시정 여부를 꼭 확인하였다.

이밖에 장병들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內務班 시설 개선, 화장실 現代化, 상수도 보수 등 諸般 복지문제는 부대 작전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第一의 目標라 여기고 실시하였는 바, 역시 직접적인 刺戟은 즉시 그 反應을 나타내고 있었다.

5. 精神敎育을 통한 肯定的 價値觀 確立 : 精神的 要因

精神戰力의 廣義의 解釋은 物質 및 技術戰力을 除外한 政治 및 思想戰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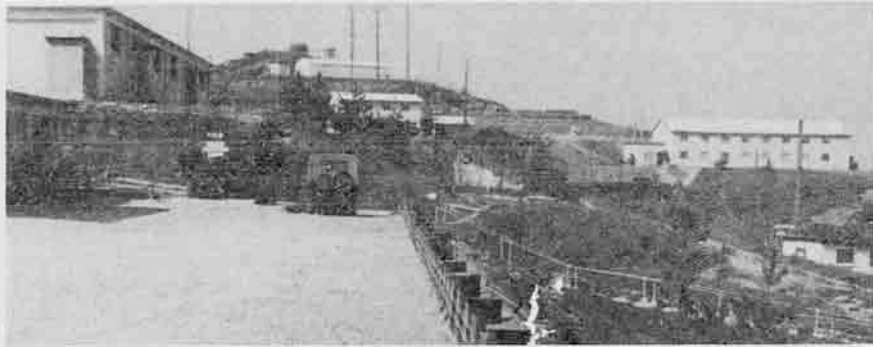


사진 1. 녹지대 조성 및 건물도색으로 부대 환경미화.



사진 2. 관사 담장 개축과 도로정비

등을 망라한 분야를 일컫는다. 한편 우리의 직접적 關心事로 가지는 軍事的으로 밀접한 狹義의 精神戰力이란 '指揮官과 뜻을 같이 하는 狀態'(孫子)라 하여 「휘하장병이 指揮官의 의도와 公的 要求에 가장 가깝게 思考하고 行動하는 狀態 또는 그 程度라고 표현할 수 있다.

現代戰에서 精神戰力の 重要性을 상 가지키는 다음과 같은 公式이 있다.

$$y = ax + b$$

a : 常數的 要因(精神的 要素 : 無形的)

x : 變數的 要因(物量的 要素 : 有形的)

b : 定常數的 要因(現實要素 : 人口, 文明, 地理, 資源, 生産能力 等)

여기서 b는 거의 固定的인 要素로서 단지일 내에 變動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x 역시 그 증대에 있어서는 國力에 따라 그 限界性을 보

이는 것이므로 결국 戰力을 極大化시키기 위해서는 精神戰力(a)을 極大化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重要한 人間 內面世界를 다루는 將兵 精神戰力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장병 개개인의 정신계발을 위한 教育의 方向과 함께 教育方法 및 內容에 있어 숙고를 要하였다.

가. 以心圓的 思考体制에서 同心圓的 思考形態로의 轉移

人間의 價値觀 定立과 그 계발을 위한 努力은 人間이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社會, 어느 集團에 속하든지 人間은 自身の 價値觀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解放 後 우리 社會에서 体制 및 觀念의 變革 내지는 改革으로 한 때 많은 사람들이 思想的 混亂을 초래한 일이 있었듯이 人間은 스스로가 간직한 價値觀의 자그만 變移에도 민감한 反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以

心圓的인 多元化 社會에서 同心圓的 構造인 軍이라는 特殊社會에 移轉되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思考体系에 일면 혼란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의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즉, 一般社會에서 지냈던 장병 個人的 價値觀이나 欲求問題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民主主義 軍隊社會에서는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同心圓的 社會体制을 가진 獨裁國家나 全体主義 國家의 軍隊와 다른 점이라고도 하겠다.

一般社會와 구별되는 諸 特徵中 軍에 對한 否定的 視角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觀念들은 앞과 같은 體制가 상이한 所屬集團의 變경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消極的 態도와 自己中心的 思考에서 비롯한 生活意識은 自身の 영역침범에 극도의 민감성을 보이기도 하여, "갈 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중간이 제일", "춥고, 배고프고, 졸러운 세월" 등의 표현, 業務上 利害關係를 部隊生活에 커다란 이슈로 의식한다든가, 身分別 갈등(兵, 下士, 將校) 표출 등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장병들의 精神戰力의 향상책과 함께 先行되어야 할 意識教育의 필요성을 提高시키는 점으로서, 入隊前 個人的 생활영역에서 얻어진 선입관념, 고정관념의 차이에서 비롯한 일련의 觀念의 차이를 行動의 반복을 통한 觀念의 統一化를 이루어 앞서 말한 同心圓의 思考形態를 가지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必要한 것이라 보았다. 그 方法들로서는 軍人다운 行動을 견지토록 部隊의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일련의 정기적 훈련과정을 통하여 現在 自身이 속한 集團의 特性을 理解, 적응시키며, 유도하는 것이겠다. 한편 여기서 유의하였던 점은 個人的인 觀念의 차이를 統一시키는데 무리 없이 어떻게 개성과 人權을 존중하면서 部隊生活에 적응시켜 나가느냐는 문제였다(부대 방송망을 활용한 군생활에 있어 제반 범규 공지사항, 군가지도, 각종 교육, 분위기 조성 등은 매우 효과적이며 어느 곳에서나 효용가치가 크다고 본다).

K. Leroin은 目標로 指向하는 集團의 心理的인 힘을 구성원의 심리적

갈등 × 目標의 有意價(집단구성원들이 行動을 유발하는데 매력을 느낄만한 價値있는 것)로 定義하였는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장병교육에 있어 關心을 끌며 영향(자극)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과 함께 計劃的인 동기부여가 絶실함을 느꼈다.

나. 內實있는 精神教育

장병의 精神力은 先天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後天的인 생활환경의 變化 또는 教育的 方法으로서 바람직한 精神力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前提下에 우선 ①教育環境의 造成, ②內實있는 教育, ③教育실시 후 分析으로 교육지침을 세웠다.

단 시일 내에 드러나지 않는 “無形”의 精神力 배양은 부족한 부대시설과 준비소홀로, 特定한 날, 特定時間이 되어 집합방송과 함께 참석자 인원점검, 교육내용에 있어 소정의 시간 동안 一方的인 轉達教育 내지는 雜談으로 “그 날 오후일과는 그런식으로” 보내는 지극히 形式的 教育을 가져온다. 人員초과로 맨바닥에 앉아서, 또

는 국기강하식 때 장시간 「열중쉬어」
姿勢로, 配食이 끝난 후 채 整理되지
않은 환경과 악취와 함께 教育道具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리한 반
복교육은 그 成果가 너무도 分명한
것이였다.

(1) 教育道場의 環境造成

精神教育의 날을 비롯한 作戰教育,
職務教育 및 기타 會議나 모임을 위
한 場所로 활용되는 환경을 造成하기
도 하였다. 많은 將兵을 수용할 수 있
는 곳으로는 士兵食堂과 기지教會를 活
用키로 하였고 소규모 교육장소로는 政
訓室, 將校食堂, B·X, 作戰室 學科場 等
을 利用키로 하였다. 기지교회는 당 부대
담당목사의 외래지원 活動으로 관사 및 기
지에 교회회를 완전 개축하여 손색없는 施設
과 정돈을 이루어 성스러운 분위기와 함
께 教育道場으로서 훌륭하였다. 士兵
食堂은 연단과 방송시설을 設置하고
탁자와 의자를 증가시켜 많은 병력을
수용할 시, 全員 착석하여 教育을 받
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教育이 있는
날에는 부대 주변에 있는 꽃가지라도
준비, 청결한 분위기를 造成하였다.

한편 小規模 教育 및 會議場所로
活用하고 있는 政訓室과 B·X는 각각
소파와 각종 영상매체(V.T.R, T.V,
영사기, 슬라이드) 및 도서를 비치,
더욱 더 教育場所로의 면모를 다듬었
고, 職務教育과 作戰教育을 위하여 새
로이 作戰室에 學科場을 新設하였다.

이제는 教育이 있는 날 將兵들은
내무반이나 휴게실에서의 한가로운 休
息보다도 깨끗한 환경에서 새로이 接
하는 각종 知識과 진지한 자세를 스
스로 즐길 수 있는 態度를 가지게
된 것이다.

(2) 內實있는 教育과 點檢

教育場의 환경개선과 함께 注目해야
할 점은 바로 教育의 內容과 方法에
있었다. 教育장의 청결하고 안락한
분위기는 기실 效果的인 教育을 目標
로 하였던 바, 내실없는 教育으로 일
관될 시엔 教育장은 역시 休息場所나
휴게실 정도로 밖에 意味가 없을 것
이다.

教育의 內實을 期하기 위해선 指揮
官의 關心提高와 담당 教官의 資質,
그리고 教育方法 및 교안의 점검에



사진 3. 각종 교육일지

치중하였다. 먼저 지휘관이 참석하는 각종 教育에서 訓示를 통하여 담당교관이 教育할 內容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고, 나름대로의 視角과 關心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教育이 종료할 때까지 장병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지휘관도 역시 教育에 적극 參與하고 있다는 認識을 심어 주었다.

이같은 點은 담당教育教官의 혹 形式的인 教育內容을 實質的이도록 유도할

수 있었으며, 교관 스스로 責任感과 함께 부단한 研究를 하도록 독려하는 方法이 되었다. 한편 參謀會議 등을 통한 자리에서 教育의 方法(技術的인面)을 역설하였고, 軍隊教育의 맹점인 주입식, 지루함, 規則的(고정적), 잡담 등에 대하여 짧게, 흥미있게, 적실성 있는 教育이 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教育이든지 教育 보조기제를 항시 지참, 활용토록 하여 教育效果를 높이도록 하였다.



사진 4. 각종 교육과도

그리하여 차기 교육 시에 또는 輿論 調査나 面談 等を 통해서 부대 제반 教育活動의 輿論을 調査해 본 결과 상당히 肯定的인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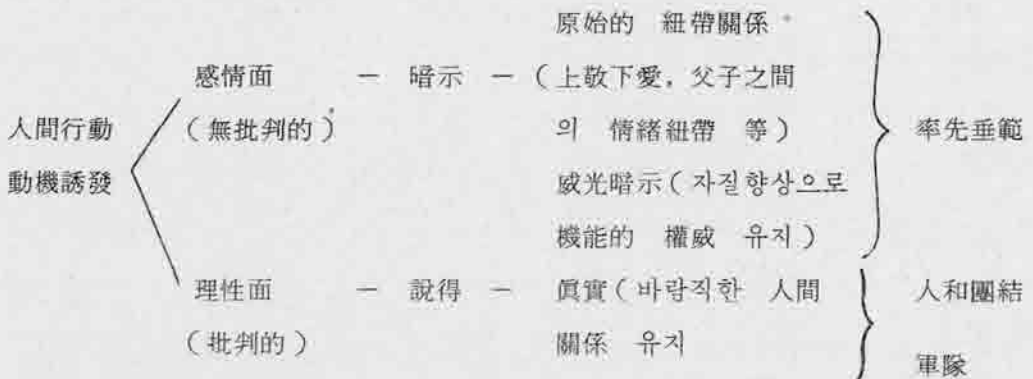
고 확신하게 되었다.

6. 勤務姿勢 定立과 兵營生活 明朗化 : 制度的 要因

가. 率先垂範과 人和團結

人間의 行動動機 誘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感情面과 理性面에 관한 것으로 각각 暗示와 說得으로서 行動動機를 유발하는데, 前者는 原始的 情緒紐帶關係나 威光暗示, 後者는 眞實을 內容으로 하는 바, 軍에서는 그것이 率先垂範과 人和團結로 나타난다고 본다.

部隊指揮에 効率的인 지휘관리방침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러니와 장병의 無條件的 信賴 증진과 能率的인 目標達成에는 勳선수범과 인화단결만큼 重要的 要因이 없다고 본다.



率先垂範은 창조적이길 바라는 指揮官에게 가장 필요하고 손쉬운 方法이며 効率的이다. 지휘관의 率先垂範과 最善을 다한다는 認識은 中間 指揮官(參謀)의 率先垂範을 유도하고, 동시에 將兵들은 指揮官에 대한 信賴와 함께 自發的인 복종이 誘發되어 自律的인 부대운영이 可能해지는 것이다.

“나는 指揮官이기 때문에”, 또는 “바쁘기 때문에”라는 변명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겨울철 상수도관이 터져 食水가 中斷되었을 시, 시설반 將兵들과 함께 터진 배수관을 찾아 밤을 지새웠으며, 體育大會 때 힘든 구보를 같이 함으로써 장병들과 같이 땀을 흘렸고, 作戰室에서 Pennex의 狀況時 아직 숙련되지 못한 초급장교의 미숙을 질책보다는 Interphon을 대신 참고서 원활한 Mission을 해내는 자세를 보였다.

항시 진지한 姿勢를 견지하고 있는 指揮官의 說得은 휘하 장병들에게 쉽게 納得할 만한 의사소통관계를 形成케 하는 것이며 이는 곧 部隊團結의 핵심인 것이다.

나. 創造的 刺戟(아이디어 개발)

行爲는 狀況으로 부터의 刺戟에 대한 主体의 反應으로 나타난다는 명제 하에 많은 施策과 그 反應의 結果가 새로운 施策과 反應을 도출해 내면서 當 部隊는 조금씩 진보되어 가고 있다.

指揮官을 비롯한 所屬長들은 부대에 活力을 줄 수 있는 刺戟을 創出해 내는데 고심하였으며, 그중에서 참신하게 개발된 刺戟은 分明 純機能的인 部隊運營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이며, 시기적절성을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로서의 창조적 자극은 本人의 指揮管理 原則이었다.

制度的 장치를 통한 시책으로서는 각종 褒賞制度(모범사병 선발 우수감시수 시상, 효행사병 표창, 모범내무반 시상, 모범관사가족 시상 等)와 부대 생활의 리듬과 時期를 고려하여 적절한 行事を 施行(겨울철에 바둑, 장기 당구大會, 윗놀이, 음악경연大會, 카드전 시회 등의 室內行事を, 봄을 맞이하여 겨울 내 긴장된 身體이완운동을 위한

관사~부대 간 견기대회, 화단조성경연
장기자랑, 연극회, 생일자 회식, 진중참
작발표회, 그의 체육행사와 위문공연
등)함으로써 반복되는 부대업무에 권
태를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잦은 轉屬으로 인한 業務의
공백은 業務參考綴 및 日日業務日誌作
成 등을 통하여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시 標準화된 業務의 計劃性을 도모하

여 빠른 時日內에 업무정상화를 꾀하
였다.

한편 地理的으로 격리됨으로써 오는
疎外感 해소와 民·軍信賴關係 증진책
으로 인근지역 관공서, 學校 등과 자
매결연을 結成(3곳)하고, 양로원과
교아원 등을 訪問(분기 1회)함으로
써 對民活動의 보람과 함께 부대 분
위기 개선을 도모하였다.



사진 5. 자매결연학교 방문



사진 6. 복지업체(B.X)

7. 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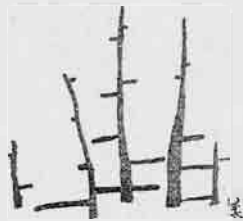
한 集團의 指揮管理란 集團成員으로
하여금 그 集團의 目標을 達成코자
하는 方向으로 行動하도록 하는 모든
作用을 말하며, 그 作用이 全적으로
集團成員의 自發性을 刺戟하는 것을
通하여 기능하는 경우라야 하겠다.

集團活動에 關係하는 모든 成員이 가
능한 한 最大의 滿足感을 가지고 効
果的인 目標達成을 위해 行動하도록
作用해야 할 것이고 또한 集團成員을
결속, 統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動機를 附與

하는 것이라야 効率的인 指揮管理가 될 것이다.

사실상 이와 같은 動機附與에 지휘관의 리더십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동기부여를 통해 集團成員의 바람직한 行爲를 유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도자 自身の 機能인 것이며 보다 本質的인 지휘관의 役割인 것이다. 다양한 思考形態와 상이한 業務 아

래 각각의 人格的 特性을 고려하면서 共通된 目標를 向하도록, 그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얼마나 動機附與되었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으나, 부단한 修身과 도전을 통해서 항상 새로워지고 보다 合理的인 指揮方針이 강구되어야 했음을 절감하며, 또 다른 所屬에서의 最善을 期待하여 본다.



買辦資本論 批判과 우리의 課題



金 海 蒼

(中尉 第5672部隊)

緒 論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분화된 이데올로기의 극한적인 대립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反共을 國是로 自由民主主義體制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자유체제를 否定하고 폭력과 무분별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일부 急進左傾勢力이 커다란

社會問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좌경세력의 사상적 기반은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이념의 現代的 變容이라고 할 수 있는 新左傾思想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批判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좌경세력의 발호에 단호히 대처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휴전선에서 총칼을 들고 서 있는

國軍의 使命感 이상으로 戰後方없이 모두가 自由民主體制 守護에 대한 결연한 意志와 精神力이 곧 最上의 武器임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反共教育이 方法面에 있어 劃一的이고 黑白論理的 性格이 강해 자칫 政權安保의 側面에서 이용되어 왔다는 否定的 視角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종래의 方法에서 탈피하여 보다 분명하게 共產主義의 實像과 虛像을 파악하고 아울러 우리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優越性을 견지할 수 있는 理想的 武裝이 急先務라고 하겠다.

이러한 데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록 極小數라고 하지만 急進左傾勢力의 이념적 기반인 新左傾思想으로는 흔히 新마르크스主義 (Neo-Marxism), 從屬理論, 買辦資本論, 解放神學, 유로코뮤니즘 (Euro-Communism), 民衆論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이념이 이데올로기적 性向을 띠고 있는데 비해 그 중 買辦資本論은 科學的 理論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 더욱 그 本質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分斷狀況下의 우리 나라에 無批判的으로 수용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를 명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단순히 批判을 위한 批判이 아니라 買辦資本論의 理論的 盲點과 現實適用의 不適切性을 批判하고 나아가 이러한 左傾理念의 擴散을 방지하기 위한 思想的, 現實的 對處方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本 論

1. 買辦資本論의 概念과 生成背景

가. 買辦資本論의 概念

매관자본론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 기반이 되는 從屬理論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종속이론이란 歐美의 어떠한 發展理論도 제 3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자국의 低發展現象을 “從屬”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고 나름대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일련의 이론체계로서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과학자들을 중심

으로 형성된 이론이다. 매관자본론은 이러한 종속이론의 핵심분야를 이루는 이론으로 제 3세계 국가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 “反民族的인 買辦勢力”이라는 성격으로 매도함으로써 暴力革命을 유발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매관자본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살펴 보면 買辦이란 명나라부터 있던 말인데 특히 南京條約(1842) 이후 중국에 들어 온 외국상사의 도급을 맡아 중국 내에서 외국상품의 판매를 대행하던 中國人 商人을 말하며 스페인에서는 국가권력의 보호 하에 외국시장과 거래하던 상인을 “콤프라드레(Compradore)”라고 하였다.

매관자본이라는 말은 식민지에서의 民族資本에 대한 대칭개념으로 狹義로는 외국자본과 자국의 시장을 中介하는 土着貿易商 또는 외국상사의 代理業者의 資本을 말하며 廣義로는 외국자본의 원조 또는 그와 결탁하여 外國資本의 利益을 위해 행동하는 金融資本 및 貿易資本을 의미하며 이 개념은 외국자본에 예속 의존하는 모든

社会的 資本, 官僚的 獨點資本을 포함하고 있다.

나. 買辦資本의 生成背景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中南美에서는 歐美先進國으로부터의 近代化理論(또는 擴散理論)에 입각하여 輸入代替産業을 육성하는 등 공업화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1960년대에 이르러 막대한 외채와 외국자본의 침투 극심한 인플레이션, 소득격차의 심화 등 大衆의 貧困을 초래하였으므로 경제개발정책이 失敗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低開發의 원인 분석에 있어 외국의 자본 및 기술 침투에 의한 從屬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從屬理論의 기본 맥락 하에서 買辦資本論이 대두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南美的 경제개발정책의 실패는 서구의 근대화 경제개발정책의 기본모형인 擴散理論 및 比較優位論에 대해 회의론을 갖게 했고 따라서 제 3세계 특히 南美社會의 内部的 發展法則에 관한 이론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또한 오늘날 세계적 현상인 多国籍企業, 合作投資, 技術協力 등의 資本結合現象을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이론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봉착, 이러한 현상의 해명에 관심을 갖고 특히 資本輸入 自由化의 否定的 經濟效果의 分析에 치중하는 買辦資本論이 형성되게 되었다.

2. 매관資本論의 內容

가. 買辦資本論의 論理

買辦資本이라는 개념은 中南美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한 것이어서 주장자마다 논점이 다르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매관자본론의 논리는 종속이론과 맥을 같이하여 주로 선진자본주의 제국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종속을 강조하고 있다.

(1) 經濟的 從屬 : 봉건적 농업국가에서 탈피 近大的 工業化 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後進國은 工業化 건설을 위해 원자재, 가공품, 시설재 도입 등 外換 必要性이 크게 증대하게 되며, 이러한 외환 충당을 위해 자국의 농산물이나 원료 등 傳統的 輸出部門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나 문제는 이러한 원료수출 부문이

외국자본에 의해 統制됨으로써 不平等한 貿易關係가 고착되어 超過利潤이 외국으로 流出되어 주변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외자도입의 필요성이 배가되는 등 악순환을 초래 결국 經濟的 從屬의 深化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2) 技術的 從屬 : 중심국의 고도의 공업기술이 주변국의 천연연료를 대체해 버림으로써 주변국의 수입원이 감소하게 되고, 또한 중심국은 자본과 기술을 임의대로 배분, 조종함으로써 주변국에는 낙후된 기술만 이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窓口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소위 매관자본가와 매관관료라는 것이다.

나. 買辦資本의 社會構造的 影響
매관자본이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상대적 과잉인구현상과 과소비 현상을 들고 있다.

(1) 相對的 過剩人口現象 : 중심국의 독점자본이 多國籍企業形態로 유입되어 자본 규모나 기술면에서 열등한 주변국의 土着資本을 붕괴시킴

으로써 토착자본에 고용된 노동력은 失業狀態가 되므로 상대적 과잉인구화된다는 것이다.

(2) 過消費現象 : 중심국과 주변국의 종속관계 뿐만 아니라 주변국 내에서도 중심부(매관자본세력)와 주변부(일반 대중)로 兩分이 되며 주변국의 중심부를 구성하는 인구는 중심국의 생산품의 소비자가 되고 이들은 또한 자국 내의 주변부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 買辦資本論의 主張

매관자본론자들의 궁극적 주장은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매관세력을 축출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심국, 즉 선진자본주의 제국과의 연계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의 달성방법은 민중봉기, 폭력혁명에 의존하고 있다.

3. 매관資本論의 批判

흔히 理論이라 함은 諸現象을 說明, 豫測하는 知識體制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理論을 비판할 때에는 그 이론의 論理性 여부와 현실 설명 및

예측의 적절성 여부로 나뉘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매관자본론을 비판함에 있어서도 그 理論的 盲點과 한국현실 설명에의 不適切性を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

가. 買辦資本論의 理論的 盲點

買辦資本論의 誤謬는 무엇보다도 중남미의 特殊한 狀況을 지나치게 一般化, 나아가서 이데올로기化 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理念의 實踐性이 강하다 보니 이념 정립에 소홀하여 주장자마다 概念이 多樣한 까닭에 임의적 해석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 한 例로 중심국 주변국의 개념 설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基準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매관자본론은 후진국의 모든 構造的 經濟問題를 외국자본과 매관자본의 결탁에서 유래한다고 주장, 후진국의 경제문제를 外生的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후진국 자체의 內生的 要因을 무시하였으며 그 주장 자체가 선진자본주의 제국과의 단절을 주장하므로 외국자본이 갖는 有益한 역할까지 부정하여, 종국적으로는 未開發의

持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매관자본론은 사회주의제국 간의 종속관계는 간과하고 있으며, 多國籍企業, 合作投資 등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資本의 運動法則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결여된 채 理念次元에서 선동적, 전술적 이데올로기화 하고 있으므로 科學的 理論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한국 현실 설명에의 不適切性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에 국내자본 부족으로 인해 외자를 도입하여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우선하였는데 이러한 면은 그래도 一次資源은 풍부했던 中南美와는 경우가 다르며, 경제개발 의지의 自發性과 純粹性を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 2차 석유과동을 겪으면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이루어 온 것은 흔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듯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事實이다. 이러한 例로는 지난 10년간 세계의 수출 규모가 평균 18.7%의 성

장률을 기록했으나 우리 나라는 39.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자본주의 선진제국과의 관계는 일방적 의존 종속관계가 아니라 相互依存的 관계라는 것이다. 技術面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선진기술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독자적인 상표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신발업계에서부터 첨단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例는 상당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買辦資本論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외국자본의 直接投資率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南中の 경우 외국자본의 총도입액 중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3%에도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과실송금과 기술도입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합해서 연 1~2억불 수준으로 우리 나라 '83년 GNP 750억불의 0.13%~0.2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근년에 貿易黑字 基調에 힘입어 外債償還能力도 충분하다고 인정

되는 것을 보더라도 買辦資本論의 論理로서는 한국의 經濟現實을 설명할 수 없는 많은 反證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結 論 - 우리의 課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買辦資本論은 선진외국자본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反外勢 民族主義를 고양시키고 국내민중과 정부를 대립 이간시킴으로써 중국에는 階級鬭爭을 유발시키려는 共產主義의 제 3세계전략인 統一戰線戰術과 무관하지 않으며, 科學的理論이라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의 한 潮流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현대적 변용의 하나인 매관자본론은 결국 남북한이 軍事的으로 對峙하고 있는 分斷狀況에 있어서는 北의 論理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 容共性을 띄게 되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관자본론에 대한 확고한 비판정신은 國家安保의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한걸음 나아가 이러

한 新左傾思想에 대처하는 정신자세로는 단순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知識의 彈力性을 갖고 우리의 現實을 直視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할 것이다. 매관자본론이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수용되게 된다는 그간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숨겨져 왔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의 현실을 改善할 필요가 있다.

즉 크게 정부차원에서는 경제정책 수립 내지 외자도입에 있어 꼭 필요한 것부터 그것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할 것이며, 기술적 증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 개발에 정책적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기업차원에서는 국내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수출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의 다변화와 국내시장 기반도 확충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企業人의 意識改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개발 과정에 노정된 땅투기, 약덕기업주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기술개발과 사회환원에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國産品을 愛用하는 것이 生活化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 절약이 지속으로 이어져 국내저축의 증대를 가져와 國內資本이 축적된다면 外資導入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국내저축률이 투자율을 앞서게 된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데서 政府와 企業, 그리고 國

민이 三位一體가 되어 보다 나은 自由民主體制의 改善을 꾸준히 행해 나간다면 新左傾理念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아울러 신성한 國防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軍이 모든 면에서 殊選수범하여 이러한 無形의 精神戰力을 키워 나간다면 어떠한 내외의 도발에 대해서도 굳게 대처할 수 있는 必勝의 國군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전산화 완료가 군현대화에 미치는 영향

金 光 鎮

(大尉 空軍本部)

1. 종이없는 事務室은 實現 될 것인가?

K大領은 관사에서 가까운 部隊에 출근한다. K大領의 事務室은 방이 사방 흰 벽으로 되어있고, 방 中央에 조그마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다. K大領이 출근하여 주머니에서 카드 (Card)를 꺼내어 책상위에 있는 機械에 집어넣는 순간 벽은 大型 Screen으로 바뀌고 책상 위의 Work

Station이 作動한다.

K大領이 먼저 자기에게 提出된 報告書畫面을 보면서 부하대원들이 해야 할 일을 錄畫 傳達하고, 그 다음에 9時부터 始作되는 指揮官會議를 準備한다. K大領은 자기방에서 직무를 하면서 100 km 이상 떨어진 本部의 指揮官會議에 參席하는데, 사방 벽면의 Screen이 作動되어 마치 會議室에 모두 모여서 會議를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이런 狀況은 엘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에서 現實可能한 理想的 社會인 프랙토피아(Practopia)로 상상할 수 있다. K大領과 같은 일과가 實現되려면 상당한 期間이 걸리겠지만 필히 이루어질 Office의 Practopia이다. 이 「종이없는 事務室」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종이없는 事務室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은 종이를 덜쓰는(Less-Paper) 事務室로 만들려고 努力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現在 우리가 電算化를 繼續하고 있고, Personal Computer 도 導入 活用하니 이것이 Paper-Less Office로 가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 K大領과 같은 事務室은 아직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Computer, Digital 通信, 映像處理器機들이 훨씬 發展되어야 하고 더구나 이들이 상업성을 가지려면 아직 멀었다.” 등의 견해가 있다. 이들 전부가 맞는 말이다. 또 長期間에 걸쳐 잡혀진 Office 秩序가 일시에 개혁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

젠가는 變化된다는 事實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면 「종이없는 事務室」에 대하여 결재를 받지않고 일을 推進할 수 있는가? Computer 記錄은 법적 効力도 없지 않는가? 등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事務改善을 企劃하면 항상 벽에 부딪치게 된다.

K大領의 일과와 같은 事務室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K大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訓練 및 習慣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時間과 努力이 뒤따른다.

따라서 現在 아주 조그마한 部分을 改善한다 할지라도 항시 「종이없는 事務室」을 염두하고 企劃하는 습성을 기르는 것이 21世紀를 눈앞에 둔 선진軍人으로서의 현명한 대처방법 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사회에 예를들면 실제 많은 大企業들이 마이크로컴퓨터와 퍼스널컴퓨터, 팩시밀리, 워드프로세서, 마이크로필름 회상회의시스템 등 OA 關聯器機가 發展함에 따라 經營管理 및 사무풍토를 크게 바꾸고 있다. 담당계원이 기안한 서류를 과장~차

장~부장을 거쳐 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 라인으로 올라가는 결제 풍토가 사라지고 있으며 該當 중역이 부, 과장을 호출하는 일도 줄어들고 있다. 또 書類한장을 作成하기 위해 하루 종일 매달릴 必要도 없어졌고 밤을새워 報告用 차트를 그리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담당계원이 어떤 기안을 할 경우 자신의 플로피 디스크에 그것을 담아 복사본을 넘겨주면 일은 끝난다. 상급자는 그것을 보고 修正할 일이 있을 경우 再調整을 端末機 畫面을 통해 하면 된다. 기안 내용을 報告書類로 만들고 싶을 때는 프린터로 入力內容을 뽑아내면 된다. 이러한 중이없는 事務室을 이루는 段階는 어떠한 것인지 그 發展段階를 알아보자,

2. 事務自動化의 發展段階

事務自動化(OA)^{*}는 推進方法이나 利用製品 등이 매우 多樣하여 전화기, 타자기 또는 텔렉스와 같은 單純 事

務器機들 처럼 導入하여 그대로 使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OA를 推進段階別로 나누어 보면,

가. 初期段階

事務室의 特定한 場所(Work Area)에 오피스 컴퓨터, 복사기 등의 獨立的인 事務機械를 設置하여 事務合理化를 實現하는 形態

나. 中間段階

事務室에 팩시밀리, 프린터, CRT 디스플레이 등을 導入하여 전표와 文書를 處理하고 電算센터의 컴퓨터 出力을 하드카피(Hard Copy)나 소프트웨어(Soft Copy)로 받는 形態

다. 본격段階

오피스 컴퓨터, CRT디스플레이, 팩시밀리, 프린터, 전자메모리 등을 事務室의 각 책상에 두고 事業體의 情報센터를 充實하게 運用하며 外部 데이터베이스의 情報도 自由롭게 利用하는 形態

* 事務自動化(OA: Office Automation)

국내에서도 大企業이나 金融機關 等은 이미 OA의 中間段階에 이르고 있고, 많은 中小企業들도 OA의 初期段階를 거치고 있다. 특히 事務用 PC가 보편화 되면서 OA의 推進이 더욱 활발해 졌다. 실제 大企業들의 OA活用 例를 살펴보면 어느 단계에 到達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두산그룹은 품의서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각 課 單位로 퍼스널 컴퓨터가 있어 이를 통해 담당업무를 處理한다. 쌍용그룹은 SYMS(상용 메시지 송수신 시스템)를 갖춰 人사, 人사, 經理, 生産부門 등을 온라인化했다. 금호그룹도 OA化가 비교적 잘 돼 있다. 컴퓨터를 통해 情報나 資料, 決裁內容 등을 入力시키고 있다. '82년에 장표관리규정을 만들어 모든 書類를 標準化했는데 17%의 樣式을 節減했다. 또 파일링 시스템을 導入함으로써 6천 5백 63개의 書類函을 3천 19개로 대폭 줄였다. 삼성그룹과 현대, 럭키금성, 대우그룹 등도 OA活用이 일상화 됐다. 삼성은 텔

接 메시지를 交換하는 自動發, 受信 시스템까지 開發했으며, 현대는 事務室과 作業現場, 研究所 倉庫 등을 自動화 온라인化하여 綜合 OA를 構築했다.

럭키금성은 전 임원실에 터미널을 設置하는 한편, 판매, 재고, 회계, 자금, 人사 등 80여 가지 各種情報를 온라인化시켜 業務에 活用하고 있다. 대우는 텔렉스실과 각 部署에 있는 端末機가 連結되어 있어 텔렉스실까지 가는 時間浪費를 줄여주고 있다.

포철은 事務自動화에 이어 TV映像會議 시스템을 갖췄다. 오는 '88년까지는 종이없는 事務室을 만든다는 計劃아래 OA關聯投資를 늘리고 있다. 과거에는 공장현장에서 무전기나 전화로 作業指示를 했으나 지금은 端末機 畫面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 段階別로 事務自動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事務自動化的 道具가 되는 그 器機들이 어떻게 構成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3. 事務自動化的 器機

事務自動화는 컴퓨터 技術에 의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綜合技術이다. 따라서 事務室에서 既存에 活用하고 있는 各種 器機나 機能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範圍가 廣範圍하고 種類 또한 多様하다. 그리고 大部分의 事務自動化 器機는 多機能을 가지고 多목적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發展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무 유형에 따른 區分이 곤란하다. 그러나 主機能을 基準으로 分類해 보면 資料準備器機, 資料處理器機, 資料轉送器機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가. 資料準備器機

(1) CRT 端末機 :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통신 端末機이며 資料를 入力하여 轉送하거나 받은 資料를 畫面에 나타내는 機能을 基本機能으로 갖고 있으며 使用目的에 따라 데이터 入力(Data Entry), 資料檢索(Data Retrieval), 對話形(Interactive), 監視制御(Monitoring)용으로 使用하고 그 選定基準은 使用目的에 따라 다르겠으나 글자의 處理能力, 한글코드, 키보드, 處理方式의 標準化

與否를 確認해야 하며 漢字의 境遇 處理할 수 있는 漢字數도 선정의 主要要素이다.

(2) 프린터 : 現代 事務自動化에 必須的인 裝備로서 作成된 資料를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종이에 그 內容을 提供하는 裝置이다.

풀캐릭터(Full Character)프린터, 도트매트릭스(Dot Matrix) 프린터는 충격식(Impact)方式이고 잉크젯(Ink-jet), 서멀(Thermal), 레이저빔(Laser Beam) 등은 비 충격식으로 충격식 方式의 단점인 소음을 없앨 수 있다.

프린터 선정시의 考慮事項은 프린트 速度, 글자체미러도, 各種樣式 製作能力, 通信方法, 騒音 等이다.

(3)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 편지, 메모, 보고서, 논문 등과 같이 文書를 쉽게 作成하고 作成한 文書를 正確하게 修正, 編輯하여 必要的인 부수만큼 複寫하는 컴퓨터 利用技術이다. 워드프로세서는 갖추어야 할 基本的인 機能(文書作成機能, 文書矯正 및 編輯機能, 그래픽機能, 文書轉送機能, 文書保管機能, 한글/漢字處理能

力 및 方法, 單純計算能力)이 多樣하기 때문에 특히 使用者 측면을 중시해야 하며 畫面當 表示 情報量이 많아야 한다.

나. 資料處理器機

(1) 個人用 컴퓨터 : 個人的 業務를 處理하기 위해 1인용으로 만들어진 컴퓨터이며, 補助記憶裝置로 하드디스크(Hard Disk)나 플로피디스크(Floppy Disk)도 사용할 수 있어 資料保管에 制限을 받지 않는 長點을 갖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Software)도 多樣하게 갖추고 있어 計算機로의 應用 이외에도 各種 文書作成, 個人화일캐비닛, 端末機대행 教育用, 電子오락에까지 應用되고 있다.

個人用 컴퓨터의 選定時는 要求하는 機能이 충족하는지 與否와 價格面, 시스템 확장시의 互換性 및 풍부한 應用 소프트웨어가 準備되어 있는가를 留意해야 한다.

(2) 워크스테이션(Work Station) : 원래 워크스테이션이란 獨立된 小規模의 處理裝置에 專用的 機能이 부과된 시스템(Dedicated

System)을 稱칭하는 것이나 오늘날에는 利用者가 必要로 하는 데이터, 문서, 도형정보의 處理가 可能해야 하며 주 컴퓨터와 接續하여 情報를 轉送하는 能力과 複合機能을 갖춘 형태로 發展하였다.

다. 資料轉送器機

(1) 근거리 通信網(LAN) : 한 建物이나 日程地域內에 資料를 轉送하기 위해 設置된 高速通信網이며 各種 端末機, 個人用 컴퓨터, 프린터, 主컴퓨터 등을 連結하여 컴퓨터 資源을 공유하게 하여 새로운 情報處理方式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2) 팩시밀리(FAX) : 광학적인 方法으로 文字나 그림을 읽어들이 전기적 信號로 轉換시켜 遠거리에 있는 다른 곳으로 轉送하여 복사하는 事務器機이며 使用이 간편하고 管理가 容易하다. 그러나 大部分의 팩시밀리가 아날로그 信號여서 디지털 通信網에 接續하기 위해서는 特別한 方法이 開發되어야 한다.

(3) 電子郵便(Electronic

Mail) : 電子的인 轉送媒體를 통하여 情報를 메시지 형태로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傳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既存의 텔렉스 技術에 컴퓨터의 貯藏能力을 適用한 것으로 一般的인 郵便시스템이나 다른 情報交換手段보다 高速轉送이나 大量轉送이 可能하다는 面에서 많은 長點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器機 외에도 多機能 複寫機, 多機能 電話機를 위시한 많은 事務自動化 器機가 있지만 생략하겠다. 그러면 政府의 事務自動化 推進方向은 어떠한 것인지 총무처의 OA 政策 方向을 간추려 보자.

4. 政府의 事務自動化 推進方向

가. 基本方向

政府의 事務自動化는 現在の 事務室 業務中에서 개별적인 機能을 自動化하여 單純業務를 보다 効率的으로 處理해 나가고 이를 시스템화 하여 情報를 蓄積, 活用하는 단계로 發展시켜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全分野에 걸쳐 유기적인 綜合시스템을 構成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나, 現 시점

에서의 社會的 與件과 國內技術水準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段階的으로 推進할 것이다.

제 1 段階는 基盤造成과 機械化 段階로서 認識提高 및 要員養成, 事務處理 節次 및 方法의 簡素化, 標準化 그리고 文書資料 管理制度의 確立 등 基盤造成에 力點을 두는 한편, 基本的인 事務器機(타자기, Word Processor, 복사기, Facsimile, Micro Film 器機等)의 補給을 擴大하되, 民願部署의 自動化를 優先的으로 推進하고자 한다. 제 2 段階는 機械化 範圍의 擴大와 業務改善 段階로서 基本的인 事務器機間의 연계화와 多機能器機의 補給을 擴大하는 한편, 作業의 複合화와 部分別 業務의 改善을 推進할 것이다. 제 3 段階는 事務의 시스템화를 통한 事務 自動化의 實現段階로서 人間과 器機間 또는 器機와 器機間의 統合體系를 完成하여 綜合事務시스템(Integrated System)을 形成, 書類없는 事務室(Paperless Office)에 接近토록 할 것이다.

이 段階에서 設置될 主要器機는 多目

的 Work Station, Word Processor, Personal Computer, 多機能 Facsimile, 光 Disk, TV電話 원격 회담시스템, 전자구내교환기(EPABX) 구내정보망(LAN, LCN), 電子郵便制度 등으로 컴퓨터와 連結된 綜合情報網이 構築되게 될 것이다.

나. 推進方針과 具體的 推進事例

政府는 우리 나라의 實情을 考慮한 效率的인 事務自動化的 推進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推進基本方針을 設定하여 施行하고 있다. 첫째, 법 政府的인 次元에서 綜合的이고 體系的으로 推進함으로써 先進國 水準에 早期 接近도록 하고, 施行錯誤 등을 最少화함과 豫算浪費를 防止함은 물론 意識構造의 改善과 基盤造成에 優先的으로 目標을 두고 器機의 利用을 極大化 하고자 한다.

한 例로 모사전송기(Facsimile)의 空中回線을 構成하여 機關單位 中心에서 벗어나 全體的으로 利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專用回線의 使用을 段階적 抑制하는 方向으로 推進하였다.

아울러 모사전송기에 의한 공문서 송수신을 조기정착 시킴으로써 政府機關間 情報傳達의 迅速을 기함과 동시에 電話, 郵便요금 등 行政經費의 節減을 圖謀하고자 政府綜合廳舍와 政府 제 2廳舍(과천)間 [공동모사전송실]을 運營할 計劃인데, 그 運營에 있어 各급 行政機關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을 開放하여 活用의 極大化를 기하고 中央行政機關과 市, 道間의 通信은 내무부 行政通信網과 연계하여 活用하며 現行의 行政郵便이나 文書轉送制度와는 並行할 方針이다.

또 基盤造成을 위하여는 業務를 調査하고 分析하여 事務의 自動화를 推進할 수 있는 對象業務를 발굴해서 編輯, 傳達, 保管, 檢索 및 複寫 등 그것에 適合한 事務自動化器機를 補給, 活用하고 있다. 이 때 對象業務의 選定은 事務自動化器機의 適用이 可能的한 業務中 業務處理의 時急性, 經濟性, 容易性 등을 考慮하여 決定하고 있다.

둘째, 現在의 與件을 감안하여 無理 없이 推進하기 위하여 單機能 위주의

基本器機 補給, 部分別 機械化 等에서 부터 個別器機間의 연계화, 複合機能器機의 補給擴大, 統合情報System의 構築 等 段階的으로 高度化하여 推進하고자 한다.

한 例로, 작고 効率的인 政府의 具現, 全國 어디에서나 公平한 情報傳達로 주민편달의 增進, 그리고 情報產業의 育成을 目標로 行政電算網을 推進할 計劃이다. 電算室 公務員들만 利用하던 電算器機를 一般 公務員들까지 利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까지는 외제 하드웨어를 부처별로 確保하였던 것을 國內 開發品으로 共同確保하여 運營하도록 하며, 소프트웨어도 부처에서 自体開發하던 것을 民間에 用役開發하도록 하고 專用線으로 使用하던 電算通信網을 公중通信網으로 轉換하여 運營할 方針이다. 이 計劃에 의하면, 既存 電算化 事業은 現在대로 推進해 나가면서 無理없이 行政전산망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88년 初에는 그 運用을 開始하게 될 것이다.

세제, 事務의 環境을 改善하고자 한다. 自動化된 새로운 事務處理시스템

에 適合한 機能的인 事務室 配置와 쾌적하고 標準화된 作業環境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各種 事務器機를 安全하고 効率的으로 保存, 管理, 活用할 수 있도록 使用基準面積, 溫濕度, 照明, 換氣 等の 環境管理要素에 대한 科學的인 管理規定을 마련할 것이며, 各급 行政機關의 非能率的인 環境要因을 改善하고 事務室의 標準화를 促進하기 위하여 機關別, 事務性格別로 標準 示範事務室을 設置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擴大할 것이다.

내제, 國產器機, 技術의 積極的 開發을 誘導하여 國內產業의 育成은 물론, 器機補給의 底邊擴大, 器機使用의 經濟性을 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事務器機의 國產化率은 높이고,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各급적 國產器機를 購入, 活用토록 하는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Facsimile에 대하여 國產化率이 높은 5個業체 및 器機를 選定하고 이에 한하여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에서 調達 購買토록

措置한 바 있으며, 이는 앞으로各種 OA 器機 導入時에도 積極적으로 適用하여 推進할 方針이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事務器機의 標準化를 推進하고자 하는 것이다. 事務器機間의 互換性を 提高시킴으로써 複合 事務器機시스템 構成시 利用效率를 向上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複合事務器機 시스템의 各 構成要素를 標準化하는 것은 물론 標準화된 裝備의 補給을 擴大할 것이다.

다섯째, 專門要員의 養成과 事務自動化器機에 대한 教育訓練을 實施하고자 한다. 事務自動化的 推進을 위한 核心的인 專門要員을 養成, 確保하고 全職員들의 器機活用 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公務員 教育訓練機關에 關聯教育課程을 新設토록 할 것이며, 機關別 職場教育時 事務自動化 分野에 대한 教育을 實施토록 하고 이의 實施가 어려운 境遇에는 外部 專門教育機關 및 사설학원 등에 委託教育을 實施하는 方案을 研究할 것이다.

여섯째, 事務自動化 綜合推進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先行課題로서 政府內

事務自動化器機의 所要量 判斷은 물론, 對象業務別로 適切한 器機를 選定, 補給하여, 活用토록 하고, 아울러 機關別 事務器機의 定數를 策定하여 段階적으로 補給을 擴大해 가고자 한다.

主要 基本事務器機의 補給未達로 인하여 事務處理의 機械化 및 自動化 推進에 障礙가 發生하고 있으며, 재래식 裝備나 既存 事務器機의 노후와 낙후가 또한 問題되어 그에 대한 對應策으로 事務器機의 연도별 補給計劃을 마련하고 있고, 부처별 單位 事務室(課單位)의 事務器機 標準 定數를 策定하는 作業이 進行中에 있다. 총 17種의 事務器機를 5個年에 걸쳐 補給하여 計劃이 끝나는 1991年에는 單位事務室마다 定數의 器機를 確保, 活用하게 되는 것이다.

政府의 事務自動化 政策에 비하여 空軍의 事務自動化 現주소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方向으로 發展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찰해보자.

5. 空軍의 事務自動化

空軍의 事務自動化는 한마디로 초기

단계 진입과정이다. 작년에야 비로소 행정감실 주관으로 들여온 큐닉스 Word Process 몇대와 교육처에서 구입한 IBM-5550 워크스테이션으로 작전처, 정책처, 발간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그 활용도가未洽한實情이다.

금년들어 電算處 주관으로 多目的用 事務用 PC "PRO-2000" 30臺를 리이스 방법으로 도입, 本部 참모부서를 비롯 사령부급 部隊에 10월 중으로 설치완료하였다.

그 結果 事務用 PC의 다양한 용도에 매력을 느낀 部署에서는 PC 設置要求가 폭발적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5개년간 매년 200~300臺의 PC를 보급할 計劃을 電算處에서 樹立하고 있다. 이 事務用 PC의 多目的用途라 하는 것은 일단 워드프로세서를 基本으로 하고 주장비의 端末로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 機能을 갖고 더불어 PC에서 運營되는 各種 Package 프로그램 (Dbase III, Lotus 1-2-3, Sidekick, Symphony 등)들을 자유자재로 活用할 수 있음을 뜻

한다.

또한 現在 일반회사에서 資料傳達器 機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사전송 (FAX)은 부대단위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활용도 및 質이 매우 뒤떨어진 狀態이다.

보안이라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앞으로는 事務室 단위로 모사전송기가 設置되어 널리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空軍의 事務自動化의 특징은 기존 전산 시스템과 事務自動化 設備의 혼용으로서 주로 데이터 處理와 文書作成에 置重하고 있는 기초적 段階이다.

앞으로 PC가 다량 보급되어 設置가 되고 다기능 복사기, 다기능 전화기, 모사전송기 등을 갖춘 事務室 環境에서 主電算裝備와 PC들을 連結한 LAN (지역전산망) 시스템을 構築하여 高速 다량의 情報交換이 可能케 되는 명실상부한 事務自動化를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가 確立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안다.

6. 事務自動化과 우리의 자세

空軍의 事務自動化는 事務自動化 初期段階로서 이의 定着에는 制度改善, 指揮官 參謀를 包含한 全將兵의 理解와 認識提高, 既存 業務處理節次와의 마찰해소, 事務自動化 設備 및 소프트웨어 開發 등 풀어야 할 課題들이 산적해 있고 이를 短時間內에 解決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事務自動化 器機를 導入 設置했다고 해서 業務의 事務自動化가 自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制度改善 없이 事務自動化를 推進할 경우 既存 業務處理節次와 事務自動化 設備에 의한 處理가 並行됨으로써 오히려 時間적으로나 業務적으로 負擔을 안겨주는 結果를 낼 수도 있을 것이며, 事務自動化 設備의 利用도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報告書 作成, FAX를 利用한 文書轉送 등으로 그 利用領域이 지극히 限定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事務自動化의 본래 趣旨를 살리고 우리 實情에 맞는 制度로 定着시켜 나가기 위하여 위로는 참모총장부터 시작하여 방위병까지 각 계층에서 事

務自動化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이를 통한 業務의 生産性 向上을 圖謀코자 하는 努力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事務自動化를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는 推進의 우선 順位를 정하고 하나씩 꾸준히 정착시켜 나가는 方法外엔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인 바 우리 實情을 감안한 事務自動化 推進 자세를 確立하여 이를 토대로 發展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事務自動化에 대한 認識提高: 執行業務 中心에서 企劃業務에 이르기까지 事務自動化 示範事業을 擴大推進하며 事務自動化를 개별적이고 單純한 業務에서부터 始作하여 全部署에 걸쳐 유기적 統合시스템을 構築토록 事務自動化의 推進을 誘導하고 事務自動化는 組織의 再構成, 事務管理制度의 改革, 事務環境의 整備 및 情報시스템의 確立이 절실함을 認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事務自動化 推進制度 構築: 電算要員 위주에서 利用者 위주로 事務自動化를 推進하고 利用者の 利用基盤을 確立하며 이를 위해 電算要員과 利用者간의 情報 및 意見交換을 強化

함과 아울러 利用者側의 確固한 事務 自動化 方向 및 推進戰略 樹立을 支援하고 効率的인 事務自動化 시스템 構築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事務自動化 소프트웨어 開發 : 低價格, 高性能의 普及형 事務自動化 器機의 開發, 音聲入出力 등 使用者 인터페이스 開發, 統合事務自動化 시스템 構築에 必要한 通信 네트워크 技術 및 小型 컴퓨터 單位의 데이터 베이스 作成技法과 活用方法을 開發하고 아울러 電子우편시스템, 文書作成 및 編輯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維持, 補修에 있어 事務內容의 變化에 對應하여 容易하고 經濟적으로 變更, 改造 할 수 있는 維持, 補修體制를 構築해야 할 것이다.

내제, 事務自動化 標準化 業務의 推進 : 事務自動化의 擴散과 시스템의 效果的인 運營, 管理를 위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運營 데이터通信 등 各 分野에 걸친 均衡있는 標準化를 推進하고 아울러 行政事務處理 節次 및 處理方法과 文書, 書式의 간소화 電算樣式化 등 事務管理 標準化

를 推進하며, 標準자관의 活用권장, 디스켓 파일의 標準化 등도 推進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事務室 組織 및 機能 再檢討 : 事務室 組織, 機能 등을 再檢討하고 事務室의 非効率的 分野는 과감히 改善하여 事務의 合理化를 追求하는 積極的인 對處方案을 講究하는 한편, 事務室의 執務環境改善, 事務室 空間의 有効活用, 文書資料 保管 및 檢索의 組織化, 多樣한 장부 및 전표의 간소화와 各種 軍內文書의 標準化 등 事務自動化 關聯 諸般事項 등을 새로운 視覺에서 再檢討하여 事務自動化를 定着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器機運營能力 培養 : 아무리 좋은 事務自動化 器機를 購入 設置하였다고 저절로 事務自動化가 되는 것은 아니다. 積極的인 思考方式을 갖고 器機들의 使用法을 배우려고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대신 조작해 줄 부하가 따로 있는 시대는 지났다. 本人 스스로 모든 事務自動化 器機를 使用할 줄

알아야 명실상부한 종이없는 事務室
時代가 도래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事務自動化時代に 있어
서 6가지 確立할 자세를 언급하였는

바 가장 重要한 것은 누구나 事務自
動化器機를 使用할 줄 아는 能力을
갖는 일일 것임을 강조한다.



북괴의 '88 서울올림픽 방해책동과 그 대비책



윤한립

(소령, 제 3659 부대)

I. 서 언

서울올림픽대회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화합과 전진」의 대회이념아래 '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동안 펼쳐지게 된다.

지난 '81년 9월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제 24회 올림픽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금년 9월 17일 세계 1백 67개 국에 참

가초청장을 보내놓고 있다.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픽 멀고도 험한 길처럼 여겨졌지만, 그동안 민족의 영예를 걸고 대회준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실상 지금은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우리국민들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맞

이하게 되는 올림픽행사를 한치의 차질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민의 긍지와 영광을 확고히 다지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민족의 응비를 마음껏 펼쳐보이려는 기대 속에 부풀어 있다.

한편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개최국가 중 우리나라가 16 번째로 맞이하며, 동양에서는 동경에 이어 2 번째로 개최된다. 특히 이념대립이 첨예한 분단국의 한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볼 때, 88 서울올림픽은 이제까지 선진강대국들이 이루지 못한 동·서 양 진영의 이념적 화합을 구현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세계인류의 이목과 관심이 서울올림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도 그동안 모스크바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미·소 양 대국의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됨에 따라, 실추될대로 되어 버린 올림픽정신이 '88 서울올림픽을 하나의 전기로 하여 다시 정상궤도로 들어서 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인류의 기대와 우리의 염원이 걸려 있는 서울올림픽이 점차 가

까와지고 있고 이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손이 바빠짐에 비례하여, 북괴는 올림픽 방해책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괴는 제 24회 올림픽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는 순간부터 갖은 모략전선으로 올림픽 방해책동에 혈안이 되어 왔지만 그동안 세계의 여론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공산권을 비롯한 비동맹권국가들까지 대거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이 예상되자 남, 북한 공동개최안을 내어놓고 흥정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괴의 올림픽 참가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북괴는 아직 남은 올림픽대회기간까지 어떠한 방해책동을 자행할지 모른다.

따라서 북괴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현재 어떤 형태의 책동을 자행하고 있고, 또한 예상되는 책동이 어떤 것인가를 예견해 봄이 성공적인 '88 서울올림픽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이다.

II. 방해책동의 실태

「서울 피프티 투(52), 나고야 투

엔티 세븐(27)』

1981년 9월 30일 밤 11시 45분경 멀리 서독의 바덴바덴시로부터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이 짙막한 발표가 위성을 통해 우리의 귀를 놀라게 했다. 이 뉴스는 '88년 올림픽의 서울개최를 세계 만방에 공포하는 역사적인 선언인 동시에, 우리 6천만 민족의 가슴 속에 벽찬 환희와 긍지를 불러일으킨 감격적인 한 마디였다.

외국의 일부 매스컴에서 「기적」이라고 표현했듯이, 서울이 그렇게 큰 표차이로 1988년 올림픽개최지가 되리라고는 감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때문에 처음에는 사마란치 위원장의 발표에 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북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괴로서는 설마 서울이 일본의 나고야를 물리치고 제 24회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88년 서울올림픽이 확정된 것은 IOC총회의 결과에 의한 엄연한 현실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결과도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IOC 의원 3분의 2 이상과 구미 선진지역의 과반수가 서울을 지지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동구공산국가 중에서도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황한 북괴는 이때부터 서울올림픽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우선 북괴는 신문·잡지·방송·선전책자 등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선전매체들을 동원하여 「서울은 올림픽개최지로서 부적절한 곳」이라는 모략 선전을 전개했다.

북괴는 '88년도 세계올림픽의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이래 동구공산권을 대상으로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남한은 미국의 속국으로서 1천여 개의 핵무기가 설치된 준전시상태」에 있고, 또한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강력한 반공책을 국시로 삼고 있어서 선수단의 신분보장이 불안한 지역」이므로 올림픽개최지를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시아·아프리카 등 비동맹 제 3국에 대해서는, 서울올림픽은 「미국의 비호하에 미인계와 뇌물공세 등으로 올림픽이념을 모독하는 가운데

유치」되었으며, 「미군주둔하의 서울올림픽 개최는 반제·반식민 투쟁을 위한 비동맹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 강변하면서, 이들 비동맹 제3세계가 서울올림픽 저지책동에 동조·불참토록 획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북괴는 그 중에서 특히 비동맹권의 친공국가들과 친공단체들에 대한 접근활동을 강화하고, 이들로 하여금 서울올림픽 반대운동에 앞장서도록 종용했다.

또한 중공·소련 등 동구제국을 찾아가다니면서 서울올림픽을 저지하고 불참하도록 부탁한다.

그러나 북괴의 이러한 서울올림픽 반대운동은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채 실패로 돌아갔다.

북괴의 반대운동에 적극 동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 비동맹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배후지원세력으로 믿었던 중공·소련 들까지도 IOC 총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미 결정된 '88 서울올림픽을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에 당황한 북괴는 '85년 7월 30일 느닷없이 종전의 억지주장을 바꿔 서울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일성은 올림픽 공동개최를 관철시키기 위해 '85년 11월 「하노이」에서 열린 공산권 13개국 체육장관회의에서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안 통과를 시도하였으나 11개국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또한 「뉴델리」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에 참가하여 쿠바 등 친북세력을 통해 '88 올림픽의 북한공동개최의 억지주장을 내세웠다.

한편, 쿠바의 「카스트로」에게 소총 10만 정을 뇌물로 바치면서 올림픽 공동개최제의안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청탁을 받은 「카스트로」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에게 올림픽종목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며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북괴의 이러한 엉뚱한 제의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올림픽헌장을 위반하고 싶지 않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북괴의 제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거절하였다.

잘알려진 것처럼 올림픽은 한 국가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유치해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체육경기이다. 제 24회 올림픽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명칭도 「제 24회 서울올림픽」 또는 「'88 올림픽」이라 부른다. 근대 올림픽사에서 볼 때 올림픽이 소속국가나 다른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된 일은 아직 한번도 없다. 더구나 그것도 명백한 IOC헌장 규정의 위배이다.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가령 제 24회 올림픽을 북괴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싶다 하여도 실제로는 실현시키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2개의 도시가 그동안 한 번의 연락이나 왕래조차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규모의 국제경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그리고 남북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일부종목의 북괴개최를 할애했다. 즉 공동개최가 아니라 일부종목의 북괴개최

를 제기한 것이다.

이같이 우리의 폭넓은 선의와 아량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 북괴 올림픽부위원장 진충국은 「몇개 종목의 분산개최로 평양이 남조선의 지방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원래 올림픽대회를 남조선이 서울로 끌고간 것은 그것을 통해서 두 개의 조선조직의 국제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미군주둔을 합리화하여 저들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 보자는 데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괴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은 국내정세 등 일련의 문제 때문에 올림픽개최지 부적격지 운운하면서도 서울과 평양의 공동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올림픽개최지 변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상황이 증공은 물론 소련을 비롯한 대다수 공산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됨으로써 방해공작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짜낸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증공·

소련 등 동구제국들과의 상호접촉 및 문호개방으로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받아 심지어 국가승인마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북괴는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는 서울올림픽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질투·불안·초조 등이 뒤섞인 감정 때문에 '81년 바덴바덴에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치열한 서울올림픽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북괴가 자행해 온 서울올림픽에 대한 방해저지책동의 양상은 서울올림픽 유치과정에 대한 중상모략으로부터 올림픽개최지 변경 및 보이콧, 올림픽 공동개최 등으로 변신을 거듭해 오면서 모략과 파괴를 강화하고 있다. 북괴는 결국 서울올림픽 자체를 근본적으로 취소시켜 보려던 당초의 1차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조짐이 보임에 따라 공동개최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아 혼란을 조성하고, 종국적으로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도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올림픽 자체를 끝까지

파괴시키려 해 왔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Ⅲ. 예상되는 방해책동의 유형

'88서울올림픽에 대한 북괴의 방해기도가 가장 단적으로 표출된 것은 '86년 3월 11일 쿠바수상 「카스트로」의 평양방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내용이었다. 김일성은 이 자리에서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문제」라고 규정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이 발언내용은 제 24회 올림픽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된 후 지난 '84년 12월 북괴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담화내용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서울올림픽 방해에 대한 북괴의 기본입장이라 할 수 있다. 강성산은 그의 담화에서 서울이 올림픽개최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독선과 함께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고, 제 42회를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북조

선에 대한 도전이며 통일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간주할 것」이라고 운운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의 '88올림픽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나 강성산의 담화내용은 서울올림픽 방해책동을 남조선혁명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나 방법으로 간주하겠음을 의미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북괴는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는 데 있어 그 명분을 「분단상황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일종의 「남조선혁명화 수행」으로 내걸고 온갖 방해공작을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들의 방해책동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북괴가 올림픽 방해책동을 혁명투쟁의 차원으로 규정하고 나온 이상 그들은 때와 장소, 또는 환경과 조건, 대상 등에 따라서 투쟁방법과 형태 역시 다양하게 구사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 공동개최 주장의 허울성과 방해공작 심리전 전개

북괴의 올림픽 방해책동에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형태는 공동개최를 내세워 정상적인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모략심리전을 예상할 수 있다.

북괴는 그들의 선전매체를 총동원,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IOC에 대해 그 정당성과 불변성이 확인된 '88서울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신성한 올림픽운동의 기본이념에 심히 모순되는 것」 운운으로 강변하면서도, 그들의 올림픽 공동개최 주장을 내세워 「올림픽운동을 분열과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등으로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 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북괴는 이와 관련, 공산권과 비동맹권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해당국의 고위인물과 체육계인사를 회유 또는 매수하거나, 그들이 조직해 놓은 이른바 친북단체나 인물을 내세워 올림픽 공동개최의 억지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괴가 주장하는 남북한 공동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북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북괴의 방해공작으로 만의 하나 그들에게 공동개최권이 주어진다면 '88년도 올림픽은 사상 유례없는 불운의 올림픽이 되거나 또는 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북괴는 사실상 이러한 점을 노려, IOC의 일부종목 분산개최 제안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선블리 서울 올림픽 보이콧도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이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것같은 언동과 역선전을 계속하면서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비정상적이고 실현성이 없는 억지 요구사항을 들고나와 어떻게 하든지 서울올림픽 개최가 차질을 가져오도록 갖가지 모략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다.

○ 정국변화에 편승, 국내혼란 유도

한편 북괴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내혼란 조성을 유도하는 데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북괴의 책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도된바 있으나, 앞으로 저들의 국내분열 책동은 더욱 격화될 것이 틀림없다.

북괴는 6·10대회 이후 한국의 소요사태를 사회혼란의 「호기」로 판단, 하루 수십 번씩 대남선전공세를 자행해왔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국민적 역량으로 사회가 안정케도로 들어섬에 따라 민주발전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의식, 정국분열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려는 대남선전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정세가 국제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반정부투쟁을 유도, 한국민의 소요를 촉발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요컨대, 북괴는 올림픽 방해책동을 「남조선 혁명투쟁」의 연장선 위에 올려놓고, 학원가 일부와 정계 및 경제계 분야에 현재 조성되고 있는 노사분규 및 정국논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88년의 서울올림픽이 파국에 이

를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 테러행위 자행

북괴는 국내혼란 조성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또는 우회적인 루트를 통한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침투를 기도, 테러행위를 자행할지도 모른다. 북괴는 이들 간첩들을 올림픽 관람객을 가장, 현장에 침투시키거나, 또는 남한에 뿌려놓은 고정간첩망을 통해 내국인인 것처럼 위장, 체육시설이나 경기장, 참가선수와 임원 등을 대상으로 파괴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이는 '84년 10월의 버마 아웅산 묘소의 폭탄테러사건이나, 아시안게임을 앞둔 '86년 9월 14일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을 염두에 둘 때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일성이 서울올림픽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호언한 것이 국제분쟁을 몰고다니는 사나이 「카스트로」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이 되는 것이다. 테

러 자체가 「다른 방법이 불가능한 정치적인 약자가 강자에게 행사하는 선택적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북괴가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 수많은 테러폭력을 수출해 왔으며, 평양이 폭력혁명의 본거지라는 점에 경각심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 북괴의 오관 가능성

그러나 북괴가 이와 같은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진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북괴가 무력도발도 불사할 것이라는 예상은 김일성이 '88 서울올림픽을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최근의 미·일고위당국자들의 잇달은 경고가 이를 실감시켜 주고 있다. 「헤이즈」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정부가 '88년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북괴는 한국의 올림픽행사를 방해하거나 망쳐버리기 위해 어떤 책동도 가할지 모르며,

그같은 책동의 일환으로 오판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86. 7.4 성조지 회견). 한편, 「리브시」 주한미군사령관도 「88 서울올림픽 기간이 가장 위험한 북괴의 남침시기」라고 선언한바 있다(워싱턴타임지 회견 '86. 12.12). 또 일본의 주요일간지는 「북괴는 올림픽을 깨버리기 위해 DMZ에 파놓은 땅굴이나 해상과 공중으로부터 게릴라를 침투시켜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동시에 기습공격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한국의 후방을 교란하고, 긴장조성을 위해 휴전선에서 부분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의는 주로 전면전이나 부분적인 무력도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나, 미·일 안보의 실질적인 담당자들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현재 IOC를 중심으로 남·북한 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북괴가 서울올림픽에 불참할 경우 지위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무모한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IV. 북괴의 방해책동에 대한 대응책

앞서 예시해 본 것과 같이 북괴의 올림픽 방해책동이 대남혁명의 차원에서 자행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 역시 안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괴가 현재 자행하고 있는 서울올림픽 방해책동을 주시할 때 앞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대응책을 제시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한·미 안보협력체제 중심으로 방위역량 강화

남침준비가 완료된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을 수 없는 것이 군사정세인 만큼,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한·미 간의 군사협력체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고려하지 않으면 북괴보다 열세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사용하여 대남도발을 모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일방적인 10 만 감군 발표나 군축협상 제의와 같은 행동은 '88서울올림픽에 다소 불안한 요인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차체에 지난 제 19차 한·미 안보연례회의때 한·미 양국 간의 방위태세 강화와 조기경계능력 개선 등 '88서울올림픽을 앞둔 한·미 방위체제 증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의 내년 2월의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한 북괴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발언은 펑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역량강화는 일정한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강·발전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 완벽한 방위태세 유지와 대북경계태세 강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선 완벽한 방위태세 유지와 대북경계심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괴가 오관하여 도발을 자행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이를 섬멸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괴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도록 북괴도발에 대한 완벽한 방위태세의 대비책을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대비책은 실천가능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수립하고, 적의 화생방공격이나 땅굴침투에 대한 예비책을 강구하며, 또한 폭발물 및 각종 테러 공격으로부터 주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단위별로 공동방위체제를 확립하여 군·관·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북경계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신고의식을 고양, 확고한 방공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대사를 앞두고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루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

쳐 있다는 사실을 북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 **국내안정 유지**

국내사회의 안정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국내안정 유지가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하면, 국력이 분열되고 약화되어 북괴에게 남침의 오판제기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여 북괴도발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며, 미군 철수의 구실 등 「적화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북괴의 노력에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괴의 「적화통일전선」의 절대적 기회는 남한의 국론분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일부계층의 불만이나 개인 또는 집단의 욕망 추구는 올림픽행사를 무사히 치른 뒤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서울올림

픽을 겨냥한 북괴의 도발엔 한시의 유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다같이 재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스포츠외교 강화**

공산권과 비동맹권에 대한 올림픽의 교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중공과 소련 등 동구제국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외교의 강화는 북괴의 남침도발 의도를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공은 우리와 실질적인 무역거래와 더불어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친 스포츠외교를 교류하고 있고, '88서울올림픽 참가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우리는 중공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중공으로 하여금 북한을 중용,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고, 또한 '88서울올림픽의 참가기회도 갖게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괴와도 남·북 간의 올림픽 개최회담을 인내로써 다뤄 나갈 때 북괴는 양자택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태평양 주둔 미군의 전력분석

장 덕 봉

(대위 장 덕 봉)

○ 서 론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은 태평양 곳곳의 전장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행사했다. 실제 전투에 있어 해군은 26척의 항공모함과 23척의 전투함, 그리고 약 1백 8십척의 잠수함을 동원했다. 또한, 전투기는 1만 5천기가 투입되었고, 보병은 극동의 구석구석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섬들에 배치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히 한국전, 베트남전 같은 위기상황이 발발하는대로 군사력은 기울어 갔다. 하지만 그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고 40년 동안 우리는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지켜왔다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다.

비록 미국의 주된 초점은 NATO 유럽에 있었지만 그러한 외침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군사통제력을 확장하는 동안 태평양에서는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25년 전에 우리는 일본과 아주 제한된 무역을 하고 있었고, 한국은 암담한 전망 속에 가난한 국가였으며, 중공은 공언된 적이었고, 막스·레닌주의의 전파를 막는 것이 미국의 주된

임무였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섬들은 거의가 강대국의 보호령이었고, 태평양에서의 소련 군사력은 자체방어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다.

오늘날에 있어, 일본은 우리가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며, 중공은 또한 우리와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고, 남태평양에서는 이제 수많은 독립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군대는 공격적 전투에 주력을 두는 초현대식 군대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역류에 반하여 민주주의가 번영해 왔고, 그 지역에 대한 우리 자신의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전장의 규모, 실질적 정치의 성숙, 경제의 성장, 그리고 세계적 사건의 중요성의 증가는 21 세기가 “태평양시대”가 될 것을 예견해 주고 있다.

그러한 결론은 소련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게 한다. 그들은 태평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목적을 급속도로 진술해 왔다.

군사력에 있어서의 경이적인 성장은

이미 명백해졌고, 아울러 최근의 그 지역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인 공격은 태평양에서의 소련전략의 요소들이다. 이제 소련과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내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흥미거리이다. 우리는 그러한 마라톤에 대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적응성있고, 가변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존하는 태평양지역 전략의 필수요소를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동 향

혹자는 태평양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할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었고, 소련의 군사력이 일본에 미치는 일련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신뢰할 만한 자체방어능력을 개발해왔다. 1,000 마일이 넘는 해상 연락망을 지킨다는 일본의 공약 1986~1990 후반기 방어프로그램 전체자금을 조달한다는 결정, G.N. P의 1%를 자체방어에 투입한다는 선언 등 모든 것

이 공동의 안전이익을 좋은 방향으로 예견할 수 있게 하며, 이 모두가 일본의 국방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1986년에 12.5%의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발전이다. 이러한 경제적 업적과 '86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완수, 그리고 '88 올림픽에 대한 전망은 한국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향상시켰다. 안보면에 있어 한국은 이미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키워왔고, 1987년에는 G.N.P의 5.5%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장비와 군사면에서 숫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는 북한이 언제 밀고 내려올지 모르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더욱 증가통합된 한·미연합군은 평양으로부터의 도발을 충분히 막을 태세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아키노 대통령이 수년 내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희망적 제안을 했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생존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필리핀과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의 풍부한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 조약으로 맺어진 또 다른 동맹국 태국은 무역의 쟁점이 우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우방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태국과 광범위하게 합동군사훈련계획을 가지며 그 지역에서의 전쟁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바로 이 달에 체결된 태국에 전쟁대비물자와 군수품의 비축장소를 설치한다는 조약은 태국에서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켰고, 따라서 그 지역 전체 안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불안전 요소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베트남의 정치적 승리를 비난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주시할 만한 일이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철통같은 단합은 동남아시아의 안전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적도 아래에서는 호주와의 굳건한 동맹관계에서 우리는 이익을 보고 있으며, 오래지 않아 호주정부가 방어백서를 공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광범위한 군사적 행동이 가장 큰 관심

사이다. 우리는 특히 장소제공에 의해 이익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해군함정의 입항, 훈련지역의 사용 등이다. 양측은 광범위한 합동훈련계획과 개인적 교환계획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중공과의 개방관계, 즉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교환, 군사용 판매, 기술전달 등은 지역적인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와인버그 장관이 작년 10월에 북경을 방문한 것과 지난 11월에 우리 해군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Qingdao에 입항한 것은 얼마나 빨리 관계가 개선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더군다나 인도양 서부에서 우리는 인도와 더욱 의미있는 대화를 시작했다. 이것은 10월에 있었던 국방장관의 방문과 11월에 있었던 Aldridge 공군장관의 방문,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의회의 방문은 중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 관심사

태평양의 미래에 대한 낙관은 우

리의 가장 큰 관심사에 반대되는 개발들의 실재에 좌우된다. 경제면에 있어서 무역 불균형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아시아의 우방들은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통해 번영해왔다. 만약 보호무역법안이 채택된다면 무역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것이며, 경제만큼 정치적 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건전한 경제는 건전한 군사관계로의 필수요건이므로, 안보대열에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군사면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소련의 군사력이 규모와 능력면에서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는 것이다. 팽창하는 군사적 구조는 체쳐두고, 우리의 안보관심사와 반대되는 그들의 진출은 다음과 같다.

-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보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협력, 지원을 수반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 일본 북부지역 군사력의 재증강.

- 베트남 지원 확대와 Cam Ranh Bay 기지사용.

- 동아시아에 대한 외교행동의

증가와 남태평양에서의 경제적 침투.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 예견할 수 없고, 호전적이며 진취적인 북한의 군사력.

- 필리핀에서의 폭동과 파벌주의 증가.

- 계속되는 베트남의 / 캄보디아 점령과 이따금씩 있는 태국 국경지역에 대한 침범.

- 남태평양에서의 반핵감정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이것을 표현하는 뉴질랜드는 미해군함정의 입항을 거절함으로써 뉴질랜드 방어의무를 재고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군사전략

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 낙관주의가 발전되었다. 이는 안보태세에 대한 확고한 입증때문인데 그 태세는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과 동맹, 우호관계의 효과적인 연결망으로 이루어진다.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목표지점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곳

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억제하며, 전쟁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아치형 구조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안정된 환경의 유지와 미국 관심사의 보호에 주력한다. 그 목표에는 두 가지 현저히 고려할 점이 있다.

- 전략적으로 전쟁 억제에 강화를 둔 북미의 방어로써, 여기엔 알래스카와 알류우산열도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이 방어의 통합부분이 되어야 한다.

- 아시아와 남태평양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조력이 또한 고려할 점이다.

태평양지역은 지리상으로 해상전장이며, 해상방어에 대한 우리의 능력은 어떠한 태평양전략에 있어서도 초석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도전은 소련의 위협이 자리잡고 있는 북서태평양에 있다.

○ 전 략

우리의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평화시 전략과 전쟁시 전략이 그것이다. 평화시 전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훈련과 빈번한 연습에 의한 만반의 준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쟁억제에 대한 신뢰도의 생생한 조건을 확인하며, 전쟁방지에 실패했을 경우 싸워서 이겨야 할 전방부대들의 능력을 확인한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군사적 자원과 무기를 시험하며, 때에 따라서 군사적 외교로써 안전한 주위환경 유지와 소련의 영향력을 경감시키는 데에 노력한다.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서 항구방문과 빈번한 상하급자의 접촉, 그리고 상호합동훈련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비동맹국들과 군사적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동맹관계가 없는 국가들이 그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사가 우리의 것과 병행하는 것을 알고 소련의 은근한 접근을 점점 멀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유형의 예로써 증공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독특한 요소가 소련이 계속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남태평양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우리는 재난 방지와 구조재편성에 기여하는 훈련을 행해 왔다.

이것들은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군사적 물자를 사용하는 평화시 전략의 극히 일부의 예이다. 그리고 전쟁억제책의 강화와 유리한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일은 충들을 일으킨다.

또 다른 평화시 전략의 중요한 요소는 안보지원계획이다. 많은 것들이 그 예로 들어지는데, 각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조합된 기능들에 필수적인 상호군사력협조의 가능성을 허락하는 것, 우리 자신의 방어능력을 개량하는 것, 그리고 소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맞서는 것 등이 있다. 불행하게도 안보지원은 경비면에서 별로 대우받지 못했다. 외국에 있는 군대가 태평양국가들에 대해 안보지원에 대한 군사적 지원계획의 일부와 신용을 판매한 경비는 회계

년도 '86년과 '87년을 비교할 때 371.5백만 달러에서 110.5백만 달러로 격감되었다. 심지어 필리핀에서도, 폭도들이 민주정부에 대해 일정하게 위협을 가하는 데도 우리의 군사원조는 반으로 줄여야 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프로그램 전체를 회수했다. 민간인 원조에 대한 작전지구의 단절과 조합된 이러한 행동들은 미국의 명성을 떨어뜨리며, 때에 따라서 소련이 그들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기울일 때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안전한 안보지원계획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관심 속에 이루어 진다.

○ 전쟁시 전략

소련과의 충돌은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소련이 거대한 위성통신, 급속한 운송, 두 얼굴의 전쟁태세, 그리고 넓게 분포된 군사력, 동맹국 사이에 거의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군수물자들과 어디서든지 미국에

앞서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현재 태평양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 군사력에 대한 우리의 전쟁시 전략은 전방배치, 높은 기동성, 전투대기 군사력, 효과적인 합동작전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충돌전에 미리 전방배치하는 것은 전쟁억제책도 되며, 전쟁시 전술상의 위치를 미리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태평양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적군을 매장 위기에 몰아 넣는다. 요약하면, 태평양에서의 우리 군사전략은 해상우위권확보로 인한 전쟁억제, 전방배치된 부대들의 신속한 재증강, 튼튼한 동맹관계, 동맹국이 아닌 나라와의 관계개선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 미군의 능력

이제 그러한 전략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보자. 태평양에서 우리의 가장 큰 군사적 요소는 태평양함대이다. 미해군력의 절반과 잠수함의 2/3가

결집되어 있는 것은 바로 태평양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반영한다. 육군은, 일부가 한국에, 그리고 나머지는 하와이의 Schofield Barracks 에 기지를 두고 있다. 공군은 필리핀에 하나, 일본과 한국에 각각 두 개씩 기지를 두고 있다. 이런 부대들은 숙련되고 기동성있는 사람들에 의해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가 평화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소련공군과 잠수함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위협적인 군수품 발명이 적당한지의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몇 가지 시스템들의 달라진 모습을 조명해 보면,

- **Aegis Cruiser** : 배치된 해군 주위에 보호벽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험을 거듭한 결과 이것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현재 태평양에 두 개가 있으며 더 배치될 예정이다.

- **Trident Submarine** : 전략상 가장 중요한 비밀병기인 Trident 는 더욱 불사신처럼 되었고, 이전의 것보다 더욱 능력이 향상되었다.

- **전투함** : 함포를 공급하며, 또한 항공기를 신고 다니며 그 지역 안에서의 제공권을 확보하는 위협적 병기로서 위풍있는 존재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Conventional Tomahawk** : 병기에 있어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 **F/A-18** : 해군과 잠수함에 쉽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병기이다.

- **STASS** : 대잠수함 감시병기이다.

- **AWACS** : 숫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공 감시병기이다.

- **F-15/F-16** : 한국과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최대의 전쟁억제효과를 가져 오는 전투기이다.

- **육군의 기동성과 화력** : Blackhawk, CH-53E 등의 헬리콥터와 M-198, 155 M 등을 이용하여 어떤 전장에든 신속한 기동성과 화력을 공급한다.

군대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0척 해군함정으로 향한 움직임, 하와이에 있는 보병 제 25 사단의 소규모 사단으로의 전환, 올해 말에

완공될 Misawa 제 2 F-16 기지, 또한 제 2해상기동함대는 신속한 응전능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태평양에서 우리는 전쟁억제의 기본전략을 두고 충돌에 대한 완전한 스펙트럼의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 동맹국의 군사력

NATO와는 달리 태평양에 있는 동맹국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쌍무적 기초를 갖고 있다. 동맹국의 구조는 우리의 안보태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태평양 유역에서 우리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와 방어협약 형식을 갖고 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뉴질랜드가 포함되었으나 뉴질랜드가 우리 함대의 항구방문을 거부함으로써 인해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무를 재고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자체 방어능력을 가진 몇몇 국가들과도 안보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문서적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비동맹 형태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자체방어력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오늘날 군대는 잘 훈련된 250,000의 병력과 F-15, E-2, P-3, 새 모형의 탱크, 새로운 화기,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항공자세방어를 위한 개발품은 일본에 있는 미국 것이나, 한국, 필리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해상방위대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책임지고 있는 미제 7함대보다 3배나 많은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군사적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가까운 동맹국이다. 잘 훈련되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상하연결이 잘 되는 60만 병력이 있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방어전략의 열쇠는 한·미군사연합으로서 이들은 같은 설비로 동일한 작전을 가지고 함께 훈련한다. 65만 병력으로 이루어진 한·미 연합군은 가히 뛰어난 군사력이다.

필리핀의 구식군대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엉망으로 이끌어 지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아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군대이다.

이 군대는 폭도들의 봉기와 그들의 폭행에 직면해 있다. 폭도들은 잔존해 있지만 아키노 대통령 아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필리핀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그녀의 책임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제를 총망라한 대안을 내야 한다. 우리는 유능한 지도력과 함께 정부에 대한 비방이 줄어들고, 교육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상화되어 가며, 자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폭도들과의 투쟁전략이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전은 전쟁 중에 있으나 완전한 복구는 필리핀 정부의 투쟁수단을 넘어서 시간과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필리핀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안보지원계획은 복원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지금 진행 중이다. 얼마 안 있어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지만 미래에는 더 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피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휴전이라는 미래의 국면에 대해 고려하지 않더라도 필리핀은 내부의 안보를 위해 유능한 군대가 필요할 것

이다. 라모스 장군 휘하의 17만 5천의 새로운 군대는 그러한 필요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동안 필리핀에 대한 외부의 안보는 우리 군대에 의해 공급되었는데, 가장 명백한 예로 Clark와 Subic의 종합기지를 들 수 있다. 필리핀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리 기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들의 잔존을 찬성함으로써, 1991년 이후까지 우리 군사기지가 계속 있을 것을 협약했다.

태국은 여러 면에서 캄보디아와의 국경을 따라 베트남과 투쟁을 벌이는 최전방의 국가이다. 이 나라는 잘 무장된 24만의 병력과 16만의 왕립육군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은 F-16, Cobra 헬리콥터 등의 군사장비와 계획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전향했다.

태국은 매년 우리와 합동훈련을 가지며 수많은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체에 안전의 중요한 척도를 공급하고 있다.

호주는 잘 훈련된 71,000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육·해·공

모든 면에서 행동할 수 있는 유능한 군사들이다. 호주군대는 F/A-18 Hornet, Blackhawk 헬리콥터와 FFG-7 PCF 등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군사장비의 공유와 일정하게 전개되는 군사합동훈련은 이미 미국과 호주 연합군의 능력을 월등하게 향상시켰다. 곧 발표될 호주의 방어정책백서에서도 보여주듯이 호주는 군사구조, 장비, 훈련 등의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군의 현대화와 합동작전에 역점을 둔 재편성을 연구하는 호주의 전략은 호주의 군사력을 개량할 것이며, 따라서 지역적인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비록 우리와 안보협력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태평양의 많은 우방들도 상당한 방어능력을 갖고 있다.

중공은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련과의 특수한 관계, 그들의 군사적 잠재력, 그리고 지역적인 배경으로 점점 그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공군과 해군 합쳐서 3백만이나 되는 해방군은 소련의 극동군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지

기는 하나 이 지역에서 여전히 소련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우리는 중공이 지역적인 전쟁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공을 밀어줘야 한다고 본다.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초점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내부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와 인도네시아 간의 군사관계는 계속 개량되고 있으며, F-16과 Harpoon 시스템을 빌려주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그러한 동향으로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Malacca 해협을 위한 안보증가를 위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공동의 노력은 분명히 미국과 여러 우방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최근에 맺어진 싱가포르와의 협약은 양국 간에 안보에 관한 자료의 연락을 보장해 주었으며, 그들의 항공기와 항공방어통제센터, 그리고 미국의 E-2C/E-3A 항공기 사이의 통제력이 미국 해군함대만큼 월등히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관급의 방문과 해상기동훈련은 싱가포르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가지는 Brunei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피지는 작기는 하나 아주 숙련되고 잘 무장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년 동안에 걸쳐 중동과 시나이의 다국적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보병 숙련병을 공급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들의 방어능력은 지역적인 안전을 크게 좌우하며, 우리의 전쟁억제라는 평화시 전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소련의 목표

소련의 태평양에 대한 야심은 1986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있는 고르바초프의 연설에도 암시되어 있는데, 그는 그 연설문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부분적인 철수를 공포했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제안했는데, 중·소 우주협력, 중공·베트남·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회담, 중소국경

지역의 군사력감축을 위한 회담,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헬싱키회담, 그리고 핵무기사용금지구역 설정 등이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철수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있겠지만, 그의 연설은 소련이 태평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련의 전략은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첫 걸음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군사배치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들이 태평양에서 공공연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군사기지 설치, 영향력 획득, 협박,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나 도움이 될 만한 나라들과의 군사연합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기 쉽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태평양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군사기지를 그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자가 되는데 따른 전초기지로 본다.

경제정책은 아마도 태평양에 대한 소련의 전략에 있어 둘째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아시아의 시장에서 그들이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남태평양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은 저개발국의 경제적 취약점을 이용하는 데에는 이력이 나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로는, 그들은 미국의 무역법안과 농업정책 — 예를 들어, 직물수입의 규제, 설탕수입 할당량의 감소 — 등에 의해 일어나는 혼란에서 이익을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특히, 수출물량이 적은 작은 나라에 대한 의존이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확실한 군사력과 그에 따른 적절한 경제침투는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동시에 자유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 소련의 잠재능력

몇 년 전까지도 소련의 군사력은 서부유럽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련극동군은 단지 해안경비군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다.

소련은 전체 군사력의 4~5을 태평양군에 배치했고, 지금의 태평양 군사력은 소련의 나머지 군사력과 비교할만큼 막강한 것이다.

변화된 주요 모습들을 요약해 보면,

- 보병은 20개 사단에서 54개 사단으로 늘어났으며, 기동성과 화력 면에서는, 자체 추진되는 화기, 더욱 강력해진 T-72 탱크 그리고 무거운 장비를 들어 올리기도 하는 공격용 헬리콥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은 그 지역에서 중요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해로 나가는 관문인 일본 주위의 해협들이 중요한 지역이 된다.

- 공군은 60년대 중반에는 전투기가 1천 8백기였는데, 오늘날에는 3천기로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수동조작에 그치던 것이 정교한 화기를 도입했고, 제한된 지역을 목표로 했던 것이 이제는 미국대륙을 포함한 태평양 전체를 공격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군사력은 전천후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교한 항공

전자공학과 뛰어난 무기들은 발명품의 일부이다. 실례로, MIG-31 전투기는 동시에 많은 목표를 공격할 수 있으며 공중의 다른 화기를 명령, 조종할 수 있다. SU-27 측면화기는 아래를 향하여 발사할 수 있는 능력과 전천후 미사일을 장착하여 MIG-31을 보완해준다. 또한 공중공급용 항공기도 도입 중이다.

- 폭격기면에서는 최근에 개발한 Bear G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들은 AS-4 Kitchen 미사일을 세 개씩 장착하며, 그 반경은 하와이에 이른다. 새로 개발된 Bear H는 AS-15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을 장착하는데, 그 반경은 1천 6백 마일에 이른다. 또한, 전쟁지역 내 공격용인 초음속 Backfire 80기, SU-24 약 2백기를 보유하고 있다.

- 소련해군은 그 능력면에서 가장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들의 태평양함대는 '60년대 중반에는 고작 1백 40척의 전투함을 갖고 있던 것이 오늘날에는 3백 20척이나 되는 소련의 4개 함대 중 가장

큰 함대가 되었다. 1년 전에 세 종류의 전투함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Kirov, Udoloy, 그리고 Sovremenny가 그것이다. 이 전함들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5기나 장착하여, 강력한 방어, 공격력을 공급한다.

Kirov 하나만 해도 약 3백기의 미사일과 반경 3백마일이 넘는 SS-N-19 지대지미사일, 그리고 대공미사일을 싣고 다닌다.

- 현대식 잠수함부대는 1백 십오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반 이상이 핵잠수함이다. SSBN은 미국의 여러 목표물들에 이르는 거리인 미국의 서부 연안을 끊임없이 운항하고 있다. 소련 잠수함들이 미국에 비해 그 기술이 뒤떨어지는 반면, 새로 개발된 Akula Class는 대잠수함 공격이 아주 힘든 뛰어난 잠수함이다.

- 새로운 시스템에 있는 기존능력에 확장된 기술이 혁신적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다목적 기능은 Cam Ranh Bay 기지를 건설하면서 개발되었다. 이 기지로부터 소련은 중공

남부 해양과 필리핀의 우리 군사물자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소련군은 북한과도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명령통제기능은 통제선인 Kirov의 사용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극동에 있는 SS-20 미사일은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 그리고 우리 군사물자들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그들의 개발품 중은 극동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SS-25와 새로운 ICBM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소련은 태평양에서 놀랄만한 군사력증강을 가져왔다. 이러한 동향이 바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소련의 군사력 만은 아니다. 베트남과 북한 양국도 거대한 상비군을 지니고 있으며, 필리핀에도 신인민군이라는 반란군 세력이 성장해 가고 있다.

○ 베트남

베트남은 백만 이상의 병력으로 세

계 제 4위의 무장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십 오만명이 캄보디아에 주둔하며, 라오스에 5만, 그리고 중공과의 국경지역에 7십만을 배치하고 있다. 베트남은 태국, 중공과의 분쟁과 캄보디아 내전에 미약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련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 북 한

북한은 세계 제 6위의 무장군과 제일의 비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 약 8십만의 남녀가 군복무를 하는데 그들은 고도의 기동부대로서, 현재 그들의 약 60%가 비무장지대에 근접 배치되는 심상치않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사정으로 전쟁경보시간이 줄게 되었다. 북한은 G.N.P의 20% 이상을 군비증강에 사용하며, 소련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 MIG-23, SA-3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다.

○ 반란군

필리핀의 신인민군(N.P.A.)은 이제 2만 3천명을 넘고 있다. 아키노여사가 대통령에 오른 이래 그 증가율은 줄고 있지만 숫자는 여전히 증가되고 있으며, 남부의 회교파별투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신인민군이 외부로부터 크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아마 국민과 사업가들에게서 얻어낸 세금으로 자금을 삼는 듯하다.

○ 종합평가

내가 믿는 바로는, 태평양지역의 전략은 종합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비록 재래식 무기의 역량에 대한 통계적인 대조상으로는 분명히 열세에 놓이고 있지만, 우리는 핵전쟁의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소련의 극동지상군과 USPA - COM 같은 미국 병력 간의 비율은 약 20 대 1이며, 공군에서는 1.5 대 1, 해군은 4 대 1이다. 물론, 이것은 각 부대의 역량, 기술적 차이, 훈련상태,

전술상의 혁신, 지리조건, 동맹국 등의 요소와 함께 재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소련지상군과 일부 공군력은 중소국경방어를 책임지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의 해군력도 불리한 지리조건때문에 무디어질 것이다. 게다가 간격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들의 기술이 앞서고 있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고 더욱 혁신적이다.

소련의 강력한 무기는 잠수함계획과 장거리폭탄이다. 지난 수년 간의 대잠수함계획에 대한 투자로 그들을 앞지르고는 있으나, 소련은 계속 이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들의 장거리 미사일과 폭탄은 태평양에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하며 감시체계, 공군추가병력, 그리고 지휘·통제·연락시스템 등의 개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군의 대비책, 유지력, 그리고 계획된 병력구조의 개선이 현실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요 임무인 태평양에서의 전쟁억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불의의 사태에는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 전쟁대비와 유지능력

전쟁에 대한 대비와 그 유지능력은 작전사령관에게 있어 최우선적인 관심의 두 범주이다. 나는 태평양지휘에 있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군의 대비에 대체로 만족한다. 장비조작에 대한 준비율은 허용한계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질은 결코 나아진 적이 없고, 일부에서 결핍이 있지만 병력구조배치는 만족할 만 하다.

통제속도, 비행시간, 항행시간, 훈련군수품 등의 감소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은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충실한 운영으로 큰 손실없이 그 감소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결핍은 태평양에 할당된 전투지원, 전투시설지원부대의 준비도가 낮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적이고 예비되어진 부대는 우리 전투부대에 필수적이며 만약의 상황의 분

쟁 초기에 요구되어 진다.

우리 스스로의 대비상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방국, 동맹국과의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합동훈련프로그램이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계기가 된다.

저기에는, 합동지휘·통제의 상호작용력은 우리 지역방어태세에 중대하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안보, 과정, 언어, 문화상의 난점을 지닌다.

이 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여러 국가들에게 연합상호작전에 대한 기본자료들을 발표해 왔으며, 상호작전을 가능케 하는 연락시스템 및 항공방어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립하도록 고무해 왔다.

나는 우방국과 동맹국의 전체 군사적 준비태세가 합동훈련들을 통해 시사한 바와 같이 계속 개선되어진다는 보고에 만족하고 있다.

그 반면에 그러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우리의 역량은 또 다른 문제이다.

과거 수년 동안 괄목할 만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유지는

전통적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관심사이
다. 우리는 항공 우위권을 유지하고
연락망을 견고히 하는데 필요한 현대
적인 전쟁비축물이 부족하다. 또한 수
리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결핍을 느끼
는데 특성때문에 제작하는데 오랜 기
간이 걸리는 고액, 저밀도의 첨단기술
시스템에 재료를 공급하는 부문이 그
러하다.

만약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급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많
은 양의 보급품과 수리능력은 쓸모가
없다. 전장(戰場) 내의, 그리고 전
장 간의 해운·항공공수능력에 있어
우리의 전시 부족액은 큰 관심거리이
다. 태평양지역에서 독특하게 드러나
는 거리문제와 결부되는 이러한 결핍
은 우리의 유지력 문제를 가중시킨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전쟁억제를 유지
하는 데에 더 나은 형세를 취할 수
없다. 대부분은 병참업무, 수송, 시설
공급능력구조에서 충분치 못하다. 몇몇
긍정적인 예외는 있다. 태국과의 전
쟁비축물 설치에 대한 합의, 한국과의
산하 전 국민의 지지동의를 개발하려

는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한국, 일본
에 대한 NATO의 상호지원조약의 확
대 등은 모두 유지능력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주도권
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져 있긴 하지
만, 우리 태평양군대의 전쟁수행을 위
한 유지력이 개선되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 결 론

모든 것을 참작할 때, 우리는 태평
양에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형편
이다. 우리 군은 소기의 결과를 얻
을 수 있는 군사장비를 갖추었으며,
우리 병사들은 미국의 가장 좋은 것
들로 무장되어 있다. 동맹국, 우방국
과의 관계도 순조로운 가운데 있다.

정부와 경제는 계속 성숙해가고 있
으며, 우리의 전략적 이해면에서 이 지
역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해 갈 것이
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
추고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
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데, 하

나는 평화 시에 국가안보이익을 증가 시키기 위해 모든 군사력의 최상의 사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전시에 즉각 위협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의 안보관계에서의 무역불균형의 충격, 필리핀에서의 공산군 반란의 증가, 북한의 위협 베트남의 계속적인 캄보디아 점령, 그리고 최대 관심사인 소련군사력의 증강이다.

소련은 일찌기 누릴 수 없었던 상황인 태평양에서 주도세력이 되려는 야심에 차있다. 태평양에서의 새로운 현실을 인식한 소련은 증가하는 외교

적, 경제적 공세의 도약대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경제의존관계, 정치침투, 위협, 협상, 그리고 마침내는 주도권을 잡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우방국이 확신을 가지며, 소련을 환기시키기 위해,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안보이익을 최상으로 하여 주는 길이다. 현재도 그러하지만, 장래에도 그러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계획된 병력구조의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유지능력을 증대시키며, 확실한 전쟁수행범주에서의 우리의 역량을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기 상 과 화 학 전

반 기 성

〈소령 제 3579 부대〉

화학무기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각종 전투의 주요 고비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국지전에서의 대량살상효과, 기습달성효과 그리고 침투효과 등 전술적 효과를 크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화학무기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 비축과 화학전의도 등은 유사 시 화학전의 불가피성과 우리의 대비역량에 경종이 되고 있다.

또한 화학작용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효과를 나타내므로 한반도의 전형적인 기상조건과 산악지형은 화학무기 운용에 호조건이 될 것이라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학무기 운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공군기상대 근무자는 물론 화학전과 관련있는 요원들이 정확한 기상판단을 통한 화학전으로 부터의 최소한의 피해와 작전지휘 결심을 용이하게 조언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그러나 지면의 제한으로 수식의 전개 및 화학위험예측 내용은 생략하였고 많은 부분은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1. 개 요

전쟁사에 있어 화학무기의 사용은 기원 전 스파르타군이 아테네군을 공격 시 송진과 유황을 불로 태워 그 연기로 질식 또는 무능화시킨 것을 효시로 무기로서의 조건을 갖춘 현재에 이르기 까지 그 사용이 현저하였다. 최근 세계의 비난 속에도 소련이 동남아 분쟁지역에 황우를 사용하였고 이란-이라크전에서도 이라크가 수포가스 공격을 감행하였다. 세계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화학무기가 갖는 대량살상 효과, 기습달성 및 침투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 만을 노리고 있는 북괴는 개전 초기 강력한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기습달성 효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독자적으로 화학무기를 생산, 비축하여 화학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괴는 1925년의 제네바협정중 화학전에 관한 제안과 1972년의 생물학전 협정에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이러한 국제협정을 준수할 의사도 없으며, 전쟁 시 화학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다른 의문이 없다. 북괴는 1961년 화학전선언 이후 독성 화학무기를 생산 및 비축하였고 독자적인 공격능력을 확보하였으며 1980년 6월에는 연구원을 소련에 파견하여 특수화학무기 개발에 착수, 각종 화학무기공장을 신설·확장하였다. 북괴는 양강도 화학창 등의 화학공장에서 연간 14톤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00톤 내외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GB 작용제 5톤의 위력은 20MT 핵무기 위력과 동일하므로 북괴의 화학전 수행능력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무기의 사용은 기상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되는 시기 및 장소는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상관측 및 예보능력을 갖고 있는 공군기상대는 여러 가지 기상조건에 의한 화학무기의 특성을 파악하여 북괴의 화학무기 공격시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작전지휘결심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기상요소에 대한 실태 및 예보를 신속 정확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미기상

화학작용제는 바람, 기온, 기온경도, 습도, 강수량 등의 기상요소에 큰 영향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초목 및 토양의 성질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화학전에서 영향을 주는 미기상은 소지역 (직경 수 km 이내)의 지상 0.5 ~ 4 m 높이의 기상상태를 말하며 미기상예보는 화학작용제가 비행장이나 특정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가. 바람

바람이란 공기운동의 수평 성분을 말하며 통상 지표면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공기이다. 화학작용제는 공기속으로 방출되어 공기와 같이 이동하므로 지표면에 일어나는 바람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풍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 하며 보통 주간 중 기

압계에 의한 풍향은 예측이 용이하나 야간 및 기압경도가 약할 때는 풍향의 변화가 가변적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지역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2) 풍속: 풍속은 바람의 속도를 말하며 풍속이 강할 경우 화학작용제의 확산이 빠르고 풍하지역의 노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많은 화학작용제를 필요로 하며 반면 풍속이 약할 경우 작용제의 확산이 어려우므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풍향풍속은 고도에 따라 변화하며 마찰력이 지표면에서의 풍속을 감소시킨다.

(3) 난류: 지표면 근처의 공기 흐름은 일정치 않으며 풍향·풍속의 변화가 많은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불규칙한 난류는 화학작용제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난류의 종류로는 역학적, 열적, 항적에 의한 난류 등이 있다.

나. 기 온

공군기상대에서 관측하는 지상 1.5 m 높이의 기온은 화학전에서 요구하는 기온과 일치한다. 기온은 액

제화작용제의 지속성과 증기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통상 기온이 증가하게 되면 제화작용제의 효과도 증가한다. 참고로 화학전과 관련된 기온내용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 온	영 향
5℃ 이하	제화작용제 운용 부적당
5℃ ~ 22℃	제화작용제 운용 보통
22℃ 이상	제화작용제 운용 적당
7℃	수포성가스(H) 결빙점
-56℃	신경성가스(GB) 결빙점
-40℃	방독면 사용시 방독두건 착용

다. 기온경도

기온경도란 수직선상의 다른 두 높이에서의 기온차이를 대기안정도로 나타낸 것으로 표면 공기층의 안정도는 대기온도의 수직분포에 의해 좌우된다.

통상 화학전에서 사용되는 수직기온

분포는 0.5 m부터 4 m 높이이나 공기중에 의한 살포방출일 경우 기온경도는 방출높이까지 사용된다.

(1) 역전(Inversion) 상태 : 역전상태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며 보통 청명하거나 구름이 30% 이하로 덮인 밤의 하부 공기층과 일출 후 약 1시간까지의 이른 아침에 나타나고 제화작용제 운용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다.

(2) 중립(Ventral) 상태 : 중립상태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별다른 온도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체감과 역전의 중간상태를 말한다.

중립상태는 보통 대체로 흐린 낮이나 밤, 체감상태가 역전상태로 변하기 시작하는 일출 후 1~2시간 사이에 일어난다. 눈덮인 지표면상에서는 일출 후 3시간 및 일몰 전 2시간 전에 중립상태가 통상 발생하고 제화작용제 운용에 보통 조건이다.

(3) 체감(Lapse) 상태 : 체감상태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 하늘이 맑은

주간에 일어나며 열적난류와 관계가 있고 화학작용제 운용에 가장 나쁜 조건이 된다.

라. 습 도

상대습도는 화학작용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온과 상대습도가 높게 되면 사람이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되어 수포작용제의 피부침투 효과가 증가한다. 강수는 미기상요소는 아니나 화학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비와 눈은 작용제를 씻어냄으로써 오염효과를 감소시킨다.

3. 화학작용제와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비교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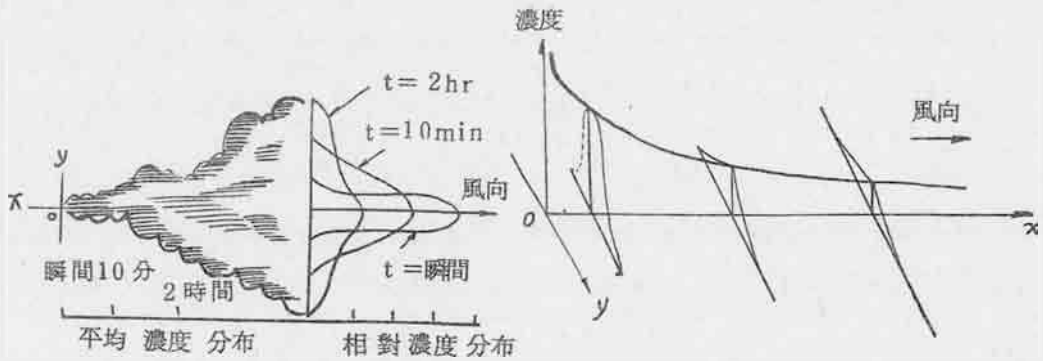
대기오염물질과 화학작용제는 에어로솔로서 물리적 상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상과 지형조건에 의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화학작용제의 확산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이 확산되는 정도를 살펴 보는 것이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대기오염물질 확산

지표면이 받는 일사량의 크기에 따라서 기온과 기압이 변화하고 대류 현상이 발생하며, 공기의 운동 즉 바람이 형성되어 대기오염물질을 확산시킨다.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는 풍속의 크기에 좌우되며 풍속이 약하면 확산되는 범위는 작으나 농도가 높아지고 풍속이 강하면 약할 경우의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오염물질은 풍속에 의해 방출원으로부터 풍하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난류에 의해 풍향중심선으로부터 수직 혹은 수평방향으로 확산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x=0, y=0$ 인 지점에서 방출되는 플룸(Plume)은 풍하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난류에 의해 점점 커지게 되며 순간적으로 플룸은 좁은 폭을 지나 오염물질의 농도는 높게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농도는 낮아진다. 또한 풍하측 방향에 직각인 면에서의 농도는 가우시안



時間別 濃度分布

距離別 濃度

그림 1. 플룸의 시간 및 거리별 농도 분포

(Gaussian) 분포를 나타낸다.

가우시안 확산모델의 수식 전개는 생략하고 결과만을 예시하면

$$C(x, y, z) = \frac{Q}{2\pi\sigma_y\sigma_z U} \exp\left(-\frac{y^2}{2\sigma_y^2} - \frac{z^2}{2\sigma_z^2}\right)$$

와 같이 쓸 수 있다. 앞의 식은 연속배출원에 대한 Gaussian 확산 공식이며 여기서 σ_y 와 σ_z 는 오염물이 각각 y 와 z 의 방향으로 퍼지는 정도를 나타내며 분산계수라 불린다.

여기서

C : 오염물질의 농도(mg/m^3)

Q : 오염물질 방출율(mg/sec)

σ_y, σ_z : y 및 z 방향 표준편차 (m)

U : 평균풍속(m/sec)

x : 풍하측 방향 중심축 좌표(m)

y : x 축에 좌우 수직축 좌표(m)

z : x, y 축에 수직축 좌표(m)

앞의 식에서 σ_y, σ_z 는 대기안정도와 풍하거리에 따라 변한다.

다. 화학작용제의 확산

화학작용제의 확산은 바람, 기온, 기온경도, 습도 그리고 강우와 같은 기상요소에 따라 다르며 변화정도는 기상조건에 좌우되며 국지적으로 지세 및 초목에 영향을 받는다.

SIPRI(1971)에 의하면 야전에서 사용되는 화학작용제는 증기나 에어리솔 또는 액체상태이며 증기상태의 화학작용제는 폭발형 탄약으로부터 방출되는 작용제로서 폭발 순간에 작용제운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무거워져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작용제운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으면 급속히 상승하여 분산하지만 공기보다

크다면 수평낙하하여 지면에 흡착하게 된다. 화학작용제운은 흡수 및 흡착(초목), 횡적 확산(대류, 기계적 교란운동), 견인효과(지면과 상공의 풍속차), 수직상승(기온경도, 풍속, 구름과 공기밀도) 등의 형태로 확산하게 된다.

라. 화학작용제와 대기오염물질 확산현상 비교

지금까지 고찰한 대기오염물질과 화학작용제의 확산현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 용	대 기 오 염 물 질	화 학 작 용 제
이동 거리	풍속에 비례	풍속에 비례
물리적 상태	에어리솔	에어리솔, 액체
측방 확산	풍속, 대기안정도에 좌우	풍속, 대기안정도에 좌우
수직 확산	대기안정도에 좌우	기온경도에 좌우
농도 분포	가우시안 분포	공식이론 없음
장애물	확산에 영향	확산에 영향
대기안정도	"파스칼" 대기안정도 기준	기온경도 기준
거리별 분산	입자 크기별 분산	입자 크기별 분산
소 결 른	기상과 지형에 의존	기상과 지형에 의존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물질 공히 기상 및 지형조건에 의존하여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차이점의 하나는 오염농도 분포로서 대기오염물질은 가우시안 분포를 이룬다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으나 화학작용제는 물리적 상태와 기상 및 지형조건에 영향을 대기오염물질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시 가우시안분포를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정수(1985)는 주장하였다.

4. 화학작용제의 확산과 기상, 지형과의 관계

가. 화학작용제의 특성

(1) 상태별 화학작용제의 특성

(가) 증기상태의 화학작용제 : 화학작용제가 폭발형 탄약으로부터 증기상태로 살포될 때의 경우로 최초에 구름은 팽창하고 냉각하고 무거워져서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일 방출된 작용제의 증기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적다면 그 구름은 매우 빨리 상승하여 주위 공기와 혼합

하고 소산될 것이다. 살포 직후(30초 정도)부터 작용제 구름은 대기온도에 의해 방향 및 속도를 갖는다.

(나) 에어러솔 상태의 화학작용제 : 에어러솔은 대기 중에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된 액체 또는 고체물질을 말하는데 에어러솔 구름은 열형 탄약과 에어러솔 살포장치 및 폭발형 탄약의 부산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최초에 열발생기로부터 생성된 에어러솔 구름은 기타형의 탄약으로부터 생성된 구름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갖는다. 그러므로 살포지점에서 구름이 초기에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나 에어러솔 구름은 증기구름 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그 형태를 보유하고 지상으로 다시 가라앉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다) 액체화학작용제 : 화학작용제가 액체상태로 사용될 경우 그 작용제는 증발에 의해 증기로 변하게 되며 휘발성에 의해 작용제 구름은 통상 농도가 낮아지고 주위의 공기와 동일한 온도를 갖게 되며 높은 증기밀도때문에 표면 근처에 남아 있으려

는 성질을 갖는다.

증발된 작용제 구름은 증기화한 작용제 구름과 똑같은 양상을 보이거나 몇배나 무겁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덜 받고 등고선에 따라 퍼지는 경향이외에는 증기상태의 화학작용제와 같다.

(2) 화학작용제 구름의 확산

(가) 가수분해, 흡수 및 흡착 : 가수분해란 작용제가 공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는 과정이며, 흡수는 초목, 피부, 토양, 기타 물질에 흡수되는 작용제의 반응과정이다.

흡착은 에어러솔 상태의 작용제가 식물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 횡적 확산 : 화학구름이 대기 중에 방출되었을 때 이 구름은 대류 및 역학적 난류 현상이 변화함에 따라 측방으로 확산한다. 이러한 기류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횡적 확산을 일으킨다.

(다) 견인효과 : 화학작용제 구름은 바람의 흐름에 의하여 지면을 따라 회전하면서 이동되며 이것은 상

하층의 풍속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한 견인효과는 초목 및 기타 장애물의 마찰로 인해서 구름의 하단부분 속도가 느려져 그 결과 구름의 길이도 늘어나게 된다.

(라) 층 : 난류현상이 거의 없고 바람도 잔잔할 때 공기 하부층과 지면과의 마찰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풍속은 점차 약해진다. 이러한 상태(층)에서 화학구름은 밑으로 확산되는 것 보다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이동한다.

(마) 수직상승 : 화학구름의 수직상승은 기온경도, 풍속, 구름과 주위 공기 밀도와의 차이 등에 의한 기상변수에 좌우되어 확산한다.

나. 화학작용제 확산에 영향을 주는 국지풍과 지형

(1) 국지풍의 영향

(가) 해륙풍 : 해륙풍은 열대지방, 중위도상의 섬이나 해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며 날씨가 청명하고 약한 경도풍이 있는 건조한 계절에 가장 강하게 발달한다. 해륙

풍은 해수와 육지의 비열차로 인해 일어나는데 주간에는 해수보다 빨리 가열된 육상의 공기가 수직으로 팽창하므로 육지쪽이 해수보다 저압으로 되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되며 이것을 해풍이라 한다. 야간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육지에서 해수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바 이것을 육풍이라 한다(그림 2). 해륙풍은

1일을 주기로 변화하며 야간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불기 때문에 화학전하에서 해안에 근접한 부대는 취약점을 가질 수 있다.

(나) 산곡풍: 내륙 분지에 위치한 부대는 산곡풍의 영향을 받는데 산곡풍은 청명한 날 약한 경도풍이 있을 때 큰 산의 경사면에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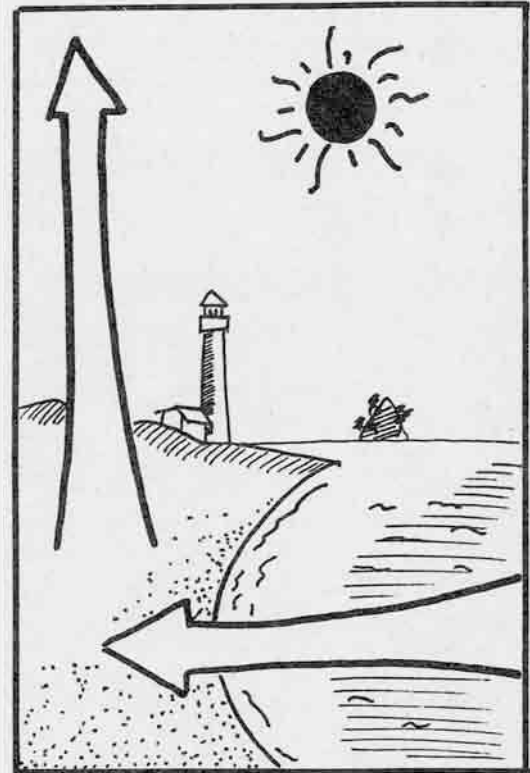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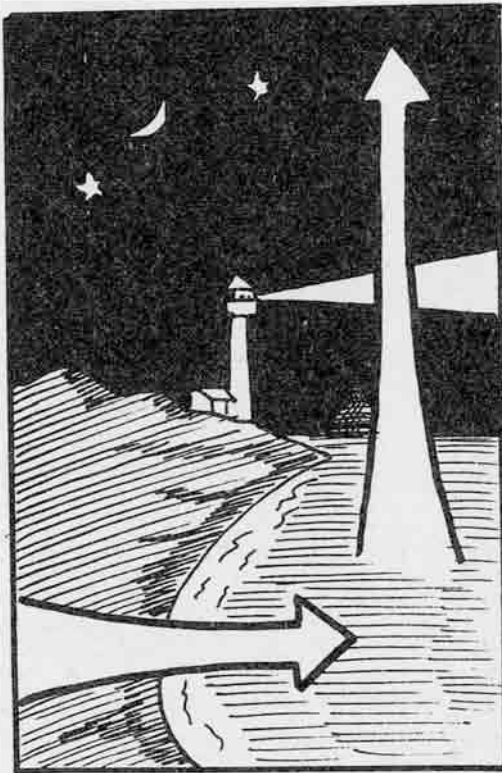


그림 2. 해 육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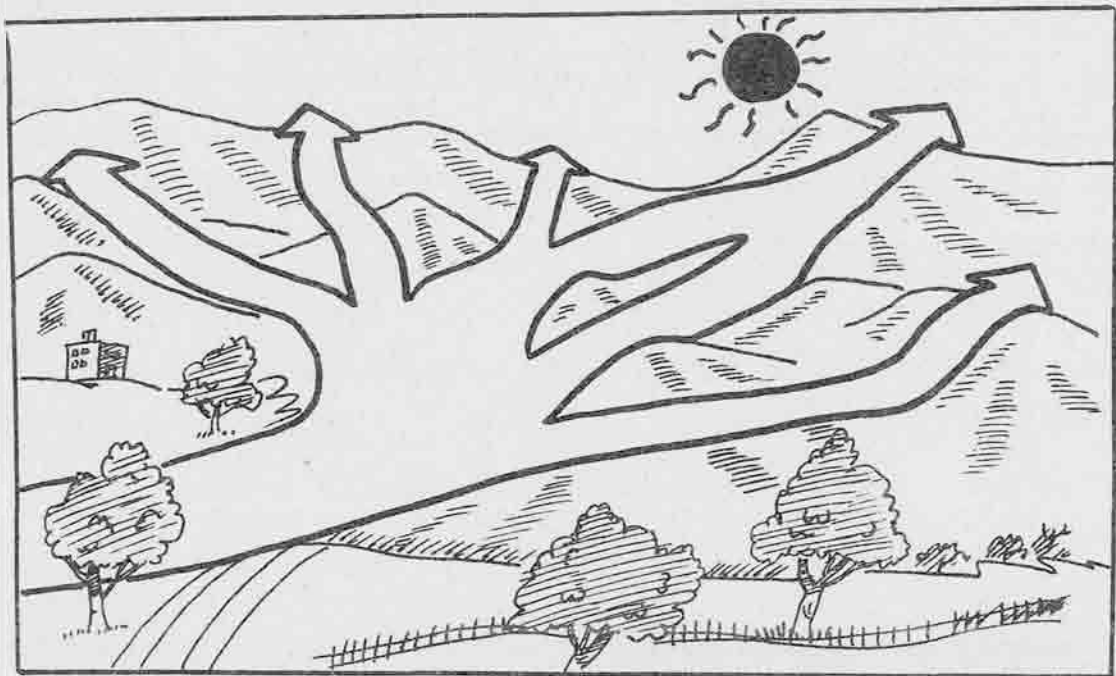


그림 3. 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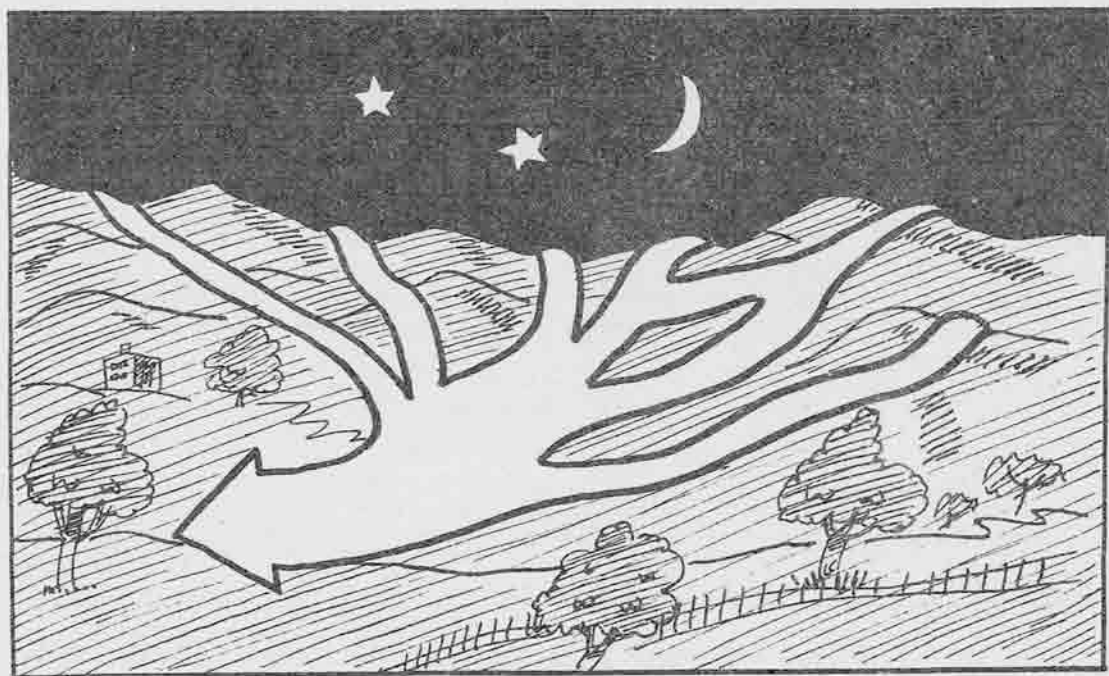


그림 4. 산 풍

태양열에 의해 가열된 경사면의 공기는 밀도가 적어져서 상승하게 되어 낮에는 기류가 산 위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꼭풍(그림 3)이라 하고 밤에는 기류가 산 아래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산풍(그림 4)이라 한다.

(다) 헨풍(Föhn Wind) : 우리나라의 경우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영서지방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류

가 산맥을 넘을 경우 그림 5에서와 같이 풍상측에서는 응결고도까지 기류가 상승하면서 건조단열 냉각되어 구름을 생성하고 비를 내리게 하며 응결고도 이상의 높이에서는 습윤단열 냉각되면서 산맥의 정상에 이르게 된다. 기류가 산맥을 넘어 하강할 때는 건조단열적으로 승온하므로 결국은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 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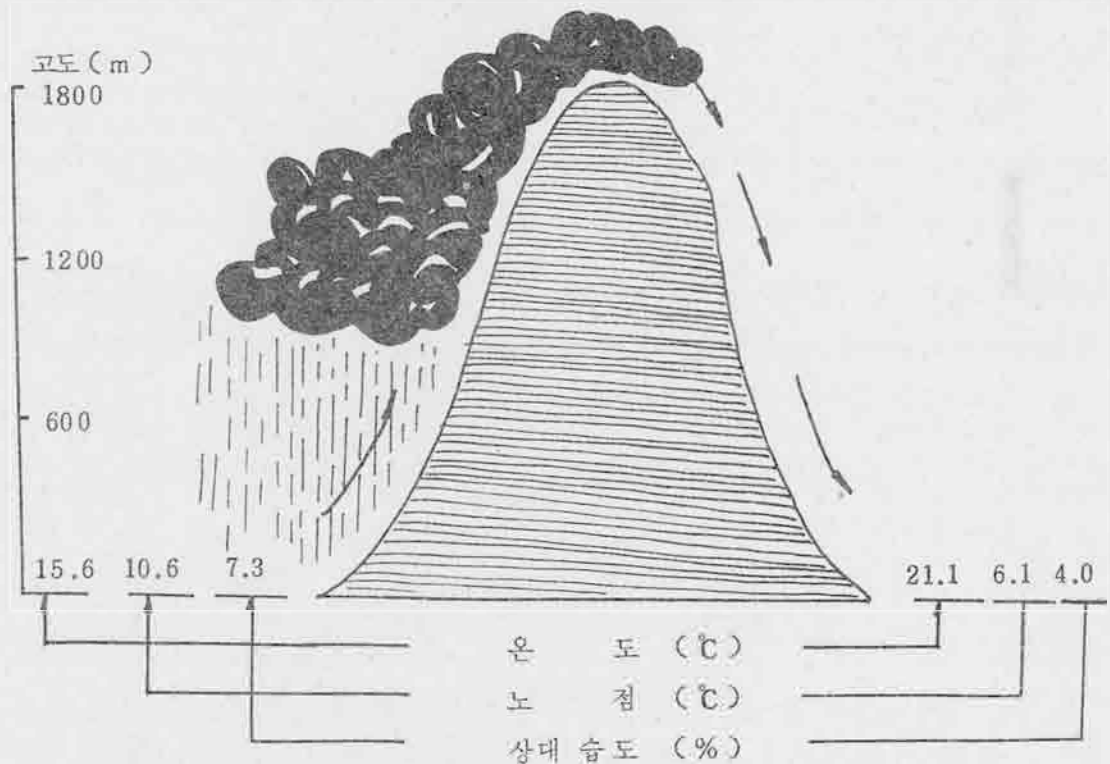


그림 5. 헨 풍

것을 **웬풍**이라 한다. 화학전하에서 **웬풍** 발생지역은 **고온**으로 인하여 얇은 피복을 착용하게 됨으로써 피부 침투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액체상태의 신경, 수포작용제 효과가 증대하게 된다.

(라) 전원풍 : 대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 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 주민이 주변지역 주민보다 더욱 더위를 느끼게 된다.

이는 도심구조와 인공열의 증가에 따라 열섬(Heat Island)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청명하고 바람이 약한 주간에 그리고 여름에서부터 초가을까지 잘 발생한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열섬효과로 인해 도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도심 주변의 **전원**으로부터 공기가 도심으로 수렴하여 순환기류를 이루게 되는 바 이것을 **전원풍**이라 한다.

화학전하에서 **전원풍**은 도시지역에 대하여 화학무기 기습공격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며 장시간 동안 화학작용제가 체류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피

해를 입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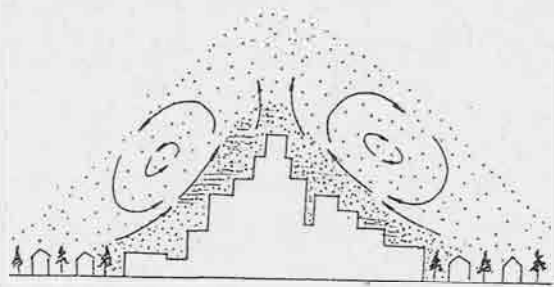


그림 6. 전원풍

(2) 지세의 영향

지세는 지형과 초목, 토양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세는 바람과 기온경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화학무기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 지형

1) 산 및 언덕 : 공기는 통상 지표면의 기복을 따라 흐른다. 따라서 공기는 계곡의 선을 따라 흐르게 되고 언덕을 따라 상승하는 공기는 산 정상에서 지면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산비탈을 따라 밑으로 흐르게 되며 이때 정상적인 마찰외류를 일으키게 된다(그림 7-가). 언덕 또는 산봉우리를 가로지르는 공기는 와류를 발생시킨다(그림 7-나).

산봉우리가 뾰족하면 할수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경사가 가파를수록 더 현저한 와류가 발생하게 된다(그림 7-다).

가파른 언덕은 바람을 분산시켜 언덕 상부는 물론 언덕 주위에 와류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경사가 가파르면 계곡 내의 공기는 일단 멈추게 되어

계곡 내의 공기 유동이 매우 적어지게 되고 속도도 저하되며 대규모의 공기가동이 불가능하게 된다(그림 7-라). 남쪽으로 향한 경사는 강한 체감상태를 일으키고 장시간 지속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결국 작용제를 빨리 증발시켜 버리거나 분산시킴으로써 살상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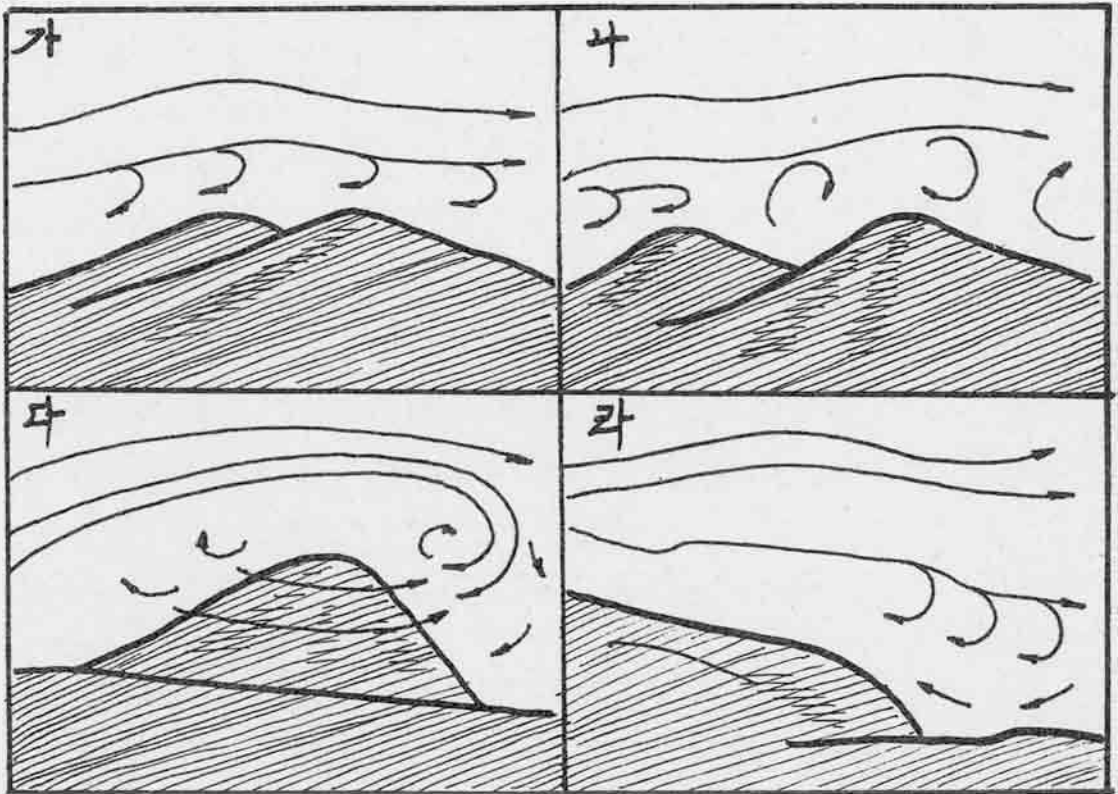


그림 7. 바람에 미치는 지형의 영향

2) 장애물: 건물, 큰 암석 같은 장애물은 와류를 발생시키는데 와류의 흐름은 장애물 높이의 30 배 정도 거리까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미기상풍에 영향을 준다(그림 8).

(나) 초목: 초목은 바람과의 마찰로 인하여 풍속을 감소시키며 초목이 무성할수록 화학작용제의 지속시

간을 지연시키게 되나 작용제를 흡수 함으로써 노출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숲 상공을 지나가는 공기는 높이가 고르지 않은 나무들이 그 위로 공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므로 혼란을 야기한다(그림 9-가). 수목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거나 명확한 수목의 거리한계가 있어 공기가 지상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곳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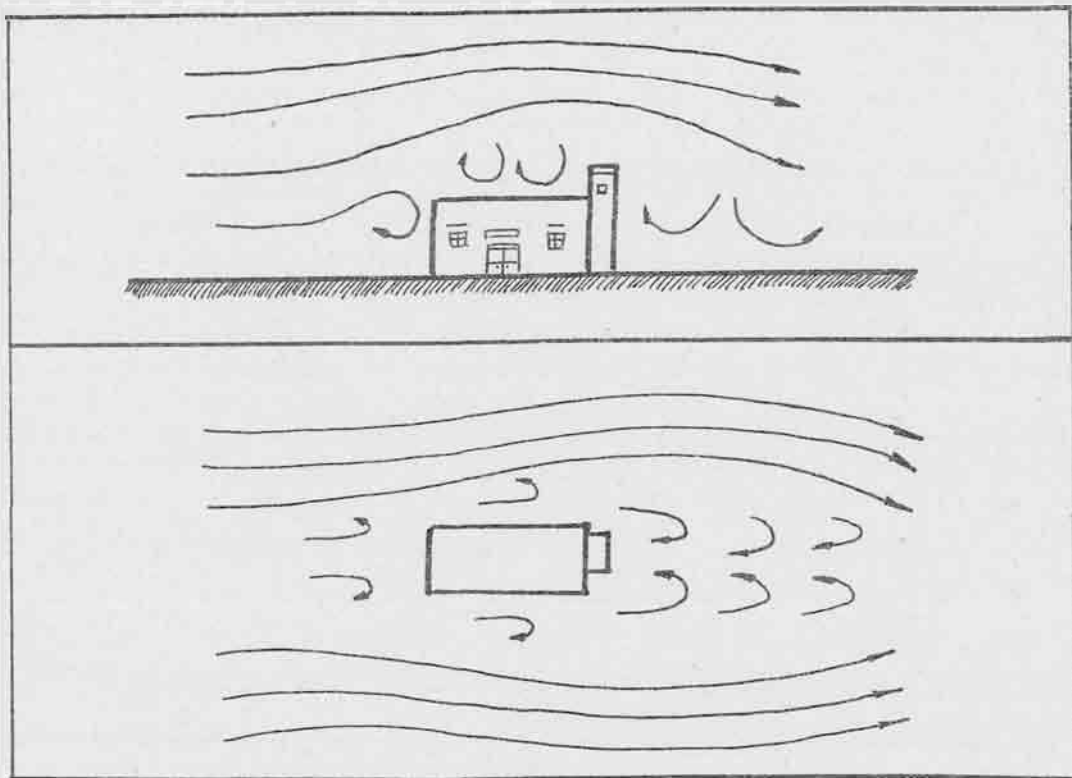


그림 8. 장애물 주위의 와류

큰 와류가 형성된다(그림 9-나). 도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조
 골짜기나 하상에 있는 공기는 통상 전하에서 늪지대는 27 ~ 32℃ 밖에
 와류가 난류로부터 잘 보호되어 있으 되지 않는다.

나 숲이 있는 골짜기에 직각으로 바 또한 질은 표면의 토양 색깔도(아
 람이 불어오면 똑같은 난류가 생긴다 스팔트) 여름 중순경 최고 46℃에
 (그림 9-다). 도달하나 그에 해당하는 별거숭이 토

(다) 토양: 토양의 성질은 바 양(모래나 진흙)은 약 38℃이고 풀
 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온도 및 로 덮인 지면은 불과 29℃에 도달할
 기온경도에 영향을 준다. 청명한 날 정도로 온도 차이가 크다. 이러한
 노출된 암석 표면은 54℃를 넘는 온 온도 차이는 심한 기온경도차를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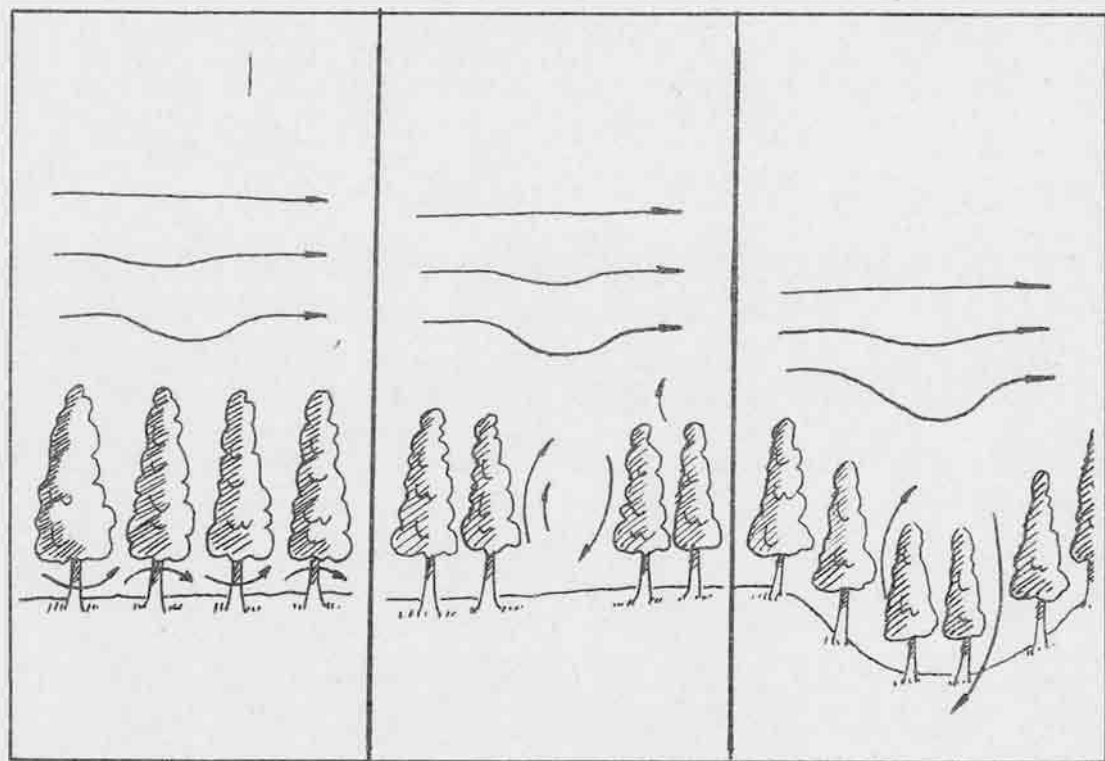


그림 9. 바람에 미치는 조목의 영향

오게 되고 확산에도 영향을 준다.

다. 증기·에어러솔 화학작용제의 확산에 미치는 기상과 지형의 영향

앞절에서 자세히 소개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결론을 살펴 보면 증기나 에어러솔 형태로 사용된 화학작용제를 운용하고자 할 때

장 좋은 기상조건은 바람이 잔잔하고 강한 역전상태일 때다. 만일 화학작용제의 이동으로 살상효과를 가지고자 할 때는 5~7KTS 또는 더 약한 풍속에서 역전 또는 중립상태의 기온경도가 최적이 된다.

다음 표 1은 증기나 에어러솔 작용제의 운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요약하였다.

< 표 1 > 화학작용제 운용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상 및 지형조건

요 소	부 적 당	보 통	유 리
바 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운용: 7 KTS 이상 항공기: 10 KTS 이상 	5~7 KTS 의 일정한 바람	5 KTS 미만의 일정한 바람
기온경도	체 감	중 립	역 전
온 도	4.4℃ 이하	4.4℃~21.1℃	21.1℃ 이상
강 우	있을 때	.	없을 때
지 형	언덕 꼭대기 주간의 남쪽 비탈	완만한 구릉지역	계 곡 평탄한 지역이나 습지
초 목	없거나 약간	중간정도 밀도	무성한 산림

라. 액체화학작용제의 확산에 미치는 기상과 지형의 영향

기상, 지형 및 초목상태는 액체화학작용제의 증발율에 영향을 주며 화학작용제 액체효과와 증기농도의 유효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액체화학작용제의 유효지속시간은 바람(

풍속 및 난류), 공기의 안정도, 표면 온도 및 강우에 영향을 받는다. 각각의 기상요소 및 지형의 영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액체화학작용제의 효과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을 표 2, 표 3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 > GB효과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

기상 조건	풍속 (KTS)	노출된 인원과 화기의 50%를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 양 (kg / km ²)			155밀리포 6문 15분간 사격			
					노출된 인원 중 50% 사상자 발생면적 (km ²)		화학위협 거리(km)	
		-20 ~ 0℃	0~15℃	15℃ 이상	-20℃ ~ 0℃	0~15℃	15℃ 이상	온도무관
아침 저녁	1 - 3	160	160	80	1.44	1.44	1.44	3
	3 - 7	410	250	160	1.44	1.44	1.44	5
	7 - 11	740	490	410	0.72	0.96	1.44	10
바람없는 밤, 낮	11 - 16	1600	980	740	0.29	0.48	0.72	25
	16 - 21	3400	2200	1600	0.13	0.20	0.29	75

〈표 2〉 계 속

기 상 조 건	풍 속 (KTS)	노출된 인원과 화기의 50%를 무력화하기 위 해 필요한 양 (kg/km ²)			155밀리포 6문 15분간 사격 노출된 인원 중 50% 사상자 발생면적 (km ²)				화학위협 거 리 (km)
		-20~ 0℃	0~15 ℃	15℃ 이상	-20℃~ 0℃	0~15 ℃	15℃ 이상	온도무관	
		740	570	490	0.48	0.57	0.57		
맑은 날 약간흐림	1 - 3	740	570	490	0.48	0.57	0.57	1	
	3 - 7	1100	900	740	0.29	0.36	0.48	1	
	7 - 11	1600	1400	1100	0.18	0.20	0.29	1	
바람없는 밤	1 - 3	80	80	80	1.44	1.44	1.44	45	
	3 - 7	80	80	80	1.44	1.44	1.44	75	
	7 - 11	80	80	80	1.44	1.44	1.44	120	

표 3. 기상상태에 따른 액체화학작용제의 지속성

작용제	청명, 미풍, 15℃	유풍, 강우, 10℃	무풍, 청명, 눈 - 10℃
GB	0.25 - 4시간	0.25 - 1시간	1 - 2일
GA	1 - 4일	0.5 - 6시간	1일 - 2주
GD	2.5 - 5일	3 - 36시간	1 - 6주
HD	2 - 7일	0.5 - 2일	2 - 8주
VX	3 - 21일	1 - 12시간	1 - 16주

표 4. 액체화학작용제 운용을 위한 유리 및 불리한 기상 및 지형조건

요 소	부 적 당	보 통	유 리
액체 오염을 위해 운용된 작용제			
바 람	강한 풍속	보통정도 풍속	약한 풍속
기온경도	체 감	중 립	역 전
기 온	높은 지표 온도	중 간	지표면 온도가 작용제의 빙점 바로 위의 값을 가질 때
습 도	낮 음	중 간	높 음
강 수	많 음	약간의 비	전혀 없음
식 물	벌거숭이 지형	중 간	잡목과 숲이 있는 지역
토 양	벌거숭이 굳은 땅	다공질 표면	중 간
살상효과를 위해 공중 살포된 액체 작용제			
바 람	높은 풍속, 심한 난류	중 간	약한 난류와 낮은 풍속
기온경도	체 감	역 전	중 립
기 온	낮 음	중 간	높 음
습 도	낮 음	중 간	높 음
강 수	많 음	약 간	전혀 없음
식 품	숲이 우거짐		

액체화학작용제의 확산에 미치는 기 4와 같다.
상과 지형의 영향을 요약해 보면 표

참 고 문 헌

- 노재식 외, 1979 : 대기오염, 산업공해연구소, p. 45.
- 시환규와 김성호, 1981 : 화학전에서 미기상학의 중요성, 국방과학연구소 학술논문집 제2집 제2권, p.916 ~ 919.
- 홍성길과 최희승, 1983 : 미기상학, 신평출판사, p.53.
- 조광명, 1985 : 대기오염, 청문각, p. 3 ~ 16.
- 임종갑, 1986 : SO₂의 확산에 관한 Gaussian Plume Model의 검증을 위한 기초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하정수, 1985 : 화학무기 위협판단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논문집, p.34 ~ 105.
- 야전교범 3-10-3, 1985 : 화생방작용제 야전동태, 육군본부, p.6 ~ 101.
- 교육회장 85-3-7, 1985 : 화생방 보호 야전편법, 육군교육사, p.1 ~ 31.
- 화학 3-79-2, 1979 : 화학무기의 어제와 오늘, 육군화학학교, p.10 ~ 18.
- C.G.Whitacre and W.L.Kneas, 1980 : ARCSL-TR-80048, Revised Field Handbook for Computing Chemical Hazard Distance, U.S.Army, p.12 ~ 40.
- SIPRI, 1973 : The Problem of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lmqvist and Wiksell, p.136.
- Gerald J. Carson, 1981 : Operations on the Integrated Battlefield, U.S. Army, p.6 ~ 23.

Tilt Rotor 機 V-22 Osprey 에 關하여

김 형 식

〈이사관 공군본부〉

V-22 Osprey 는 航空史에 많은 페이지를 남길 만한 새로운 航空機이다. 이는 最初로 美陸·海·空軍 및 海兵隊의 要求를 充足하는 最初의 航空機라고 하는 데 더 意義가 있다.

中盤頃으로 豫定하고 있다.

1. 概 要

V-22 Osprey 의 開發이 本格화된 것은 1986年 5月, 美國防省이 Boeing 社와 Bell 社의 共同開發팀에 對하여 17억 1,400만불의 契約을 承認한 때부터이었다. 이에 따라 兩社는 7年間に 걸쳐 共同作業을 繼續하게 되었다. 最初飛行의 目標은 1988年

開發한 後에는 美陸·海·空軍 및 海兵隊가 多같이 本機를 採用한다.

陸·海·空軍 및 海兵隊가 多같이 採用하는 航空機로서 美國歷史上 V-22 Osprey 가 最初이다. 購買總台數는 적어도 1,200 台로, 1991年부터 引渡가 始作될 豫定이다.

飛行性能과 構造上의 特徵으로 航続距離는 1,100km, 페이로드는 4,530kg

이다. 兵力輸送用的 座席은 24席, 胴體는 全複合材製로 길이 7.32 m의 와이드 캐빈으로 되어 있다. 直徑 11.6 m의 Rotor도 複合材, 操縱系統은 完全한 Fly-by-Wire 方式으로 安全 때문에 3重系統으로 되어 있다.

V-22 Osprey의 運用自重과 페이로드에 關해서 보잉 및 벨의 兩社는 当初 自重 14,380 kg을 保證하고 있다. 이것은 2,612 kg의 페이로드를 積載하고 370 km의 距離를 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設計中에 機體重量 削減努力의 結果 700 kg의 페이로드 追加가 可能하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295 kg의 追加도 可能하게 되었다. 航空機의 開發에서는 대체로 設計中에 重量이 增加해 버린다. 그런데 V-22 Osprey는 그 反대로 實際의 機體重量이 設計時보다도 輕量으로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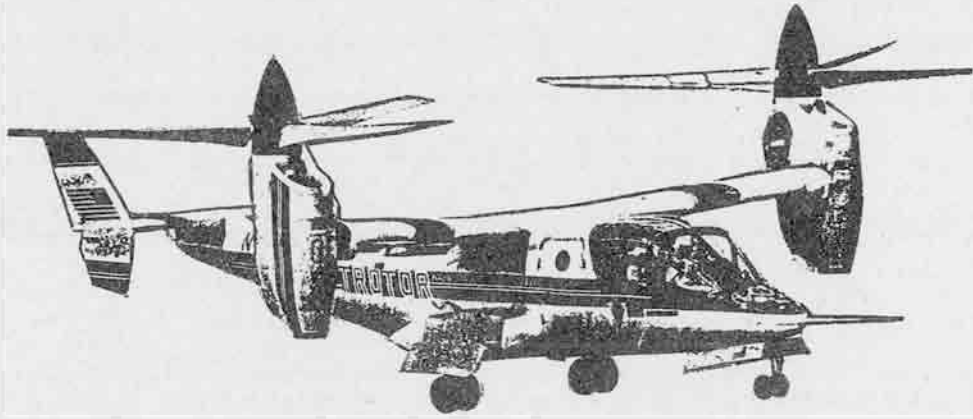
機體材料는 거의 전부가 複合材이다. 通常의 金屬材料에 比較하여 그것만으로 25%나 가볍다. 構造重量 5,670 kg 中 거의 60%는 Carbon

Fiber로서, 主로 主翼이나 胴體에 使用되고 있다. 또 10%는 Glass Fiber로서 主로 Rotor Blade 金屬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V-22 Osprey의 最大速度는 340 노트. 헬리콥터로서는 前進 100 노트, 橫進 30 노트의 速度로 날수가 있다. 또 固定翼機로서는 巡航 275노트를 넘으며, 飛行高度는 約 9,000 m에 達한다. 總重量은 最大 24,000 kg까지 垂直離陸이 可能하다. Tilt Rotor를 약간 앞으로 傾斜를 주어 短距離滑走를 할 경우에는 最大 26,760 kg까지 들어올릴 수가 있다.

原型機는 6대가 製作된다. 1号機의 初飛行은 1988年 6月 豫定이다. 이것은 벨社에서 組立하게 되나, 이어서 보잉社도 組立하여 2号機를 띄우게 된다. 이렇게 하여 兩社는 3台씩 平等하게 最終組立을 하게 된다. 다만, 날개는 전부 벨社가 製作하고, 胴體는 전부 보잉社가 製作한다.

이들 原型機에 依하여 3年間에 4,000時間의 飛行試驗이 이루어진다.



最初の 3 台는 空力特性, 操縱性 및 飛行荷重 등의 試驗을 한다. 殘余 3 台로써는 엔진, 에비오닉스 및 信賴性 등을 試驗한다. 또 1991 年부터는 海軍의 運用試驗에도 使用된다.

V-22 Osprey의 量產決定은 1989 年 末頃이다. 總台數는 1,200 台以上이 購買될 豫定이나, 우선 12 台의 試作機가 만들어진다. 그 중 最初 3 台는 原型機와 같은 方法으로 날개는 벨社, 胴體는 보잉社가 만든다. 그러나 마지막의 4 台는 벨社와 보잉社가 2 台씩 各 會社別로 전부를 製作한다. 그런데 그 以外의 量產機는 兩社가 每年 競争入札을 實施하여 이

간쪽이 60%를 製作하게 된다. 年間 生産台數는 1996 年부터 1998 年에 피크에 達해 每年 132 台씩 生産하게 될 것이다.

2. 陸·海·空軍 및 海兵隊의 用途

이렇게 하여 美陸·海·空軍 및 海兵隊에 引渡된 V-22 Osprey는 各軍에서 어떠한 任務로 使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美海兵隊用의 MV-22A는 1991 年 12 月부터 總數 552 台가 納入될 것이다. 主任務는 攻撃輸送이다. 바다

쪽으로 100 ~ 200 km 떨어진 地点에 停泊한 輸送船으로부터 乗務員 4名 外에 兵力 24名 또는 火器彈藥 등 2,600 kg을 싣고 敵地를 向하여 수 차례씩 燃料補給을 하지 않고 反復輸送을 할 수가 있다.

그 외에 海兵隊에서는 監視·攻撃·前線指揮·偵察·早期空中警戒·搜索 및 救助 등 MV-22A를 使用한다. 早期警戒은 胴體의 위에 커다란 레이더 돔을 붙인다. 또 MV-22A 中 約 12台는 VV-22로서 大統領 專用機로도 採用될 可能性이 있다.

같은 MV-22A는 美陸軍에서도 使用될 것으로 보이며, 救急輸送이나 兵力輸送을 위하여 231台를 調達한다. 또 攻撃輸送, 特殊作戰, 電子戰, 地上支援 및 對戰車攻擊에도 本機를 採用할 것으로 豫想한다. 더우기 陸軍은 MV-22A의 調達台數를 最終的으로는 4배로 增加할지도 모른다고 伝해지고 있다.

空軍은 特殊任務를 위하여 V-22 Osprey를 80台 採用한다. 이것

은 乗務員 4名 外에 兵力 12名 그렇지 않으면 페이로드 1,300 kg을 搭載하고 地上 150 m의 低空으로 片道 1,300 km의 長距離를 날아 敵地 깊숙이 進入할 수 있는 能力을 가져야 한다.

海軍은 戰鬪救助任務를 위하여 HV-22를 50台 使用한다. 戰鬪中에 敵地에 降下한 我軍의 兵力을 救出하기 위하여 850 km의 바다로부터 乗務員 4名을 出動시켜 15分間의 旋回나 하버링을 包含하여 4名의 生存者를 救出, 母艦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 早期空中警戒, 長距離兵力輸送, 空中給油 및 機雷掃海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特히 海軍에서는 이 V-22 Osprey를 對潛水艦作戰에 使用할 것을 檢討中이나 今年末까지는 結論이 날 것으로 보나, 採用하게 된다면 SV-22로서 300台를 調達, 1996年부터 實用化할 計劃이다.

3. 對潛機로서의 Osprey

이 V-22 Osprey가 對潛機로 採用된다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美海軍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더 詳細하게 알아 보고자 한다.

敵潛水艦이 我側の 基地나 艦隊에 接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防禦策이 講究되고 있다. 그 중에 航空機에 依한 것으로는 普通의 飛行機와 헬리콥터 兩쪽이 使用되어 그것들이 各各의 任務를 行하는 것이다.

飛行機로는 Lockheed社의 S-3 Viking이 代表的이다. 同機는 제트엔진 2基를 裝備한 艦上對潛哨戒機로 潛水艦探知레이더나 赤外線探知器, 磁氣異常探知器(MAD) 등을 갖추고 低空飛行을 하면서 敵을 發見하면 魚雷나 爆雷 등으로 攻撃한다.

헬리콥터로서는 시코로스키社의 SH-3 Sea King이 代表的이다. 이것도 艦上機로서 바다 가운데에 내려 놓은 소나로 敵潛水艦의 接近을 監視

한다. 역시 魚雷나 爆雷에 依한 攻擊이 可能하다.

여기에서 飛行機와 헬리콥터의 雙方의 特性을 갖추고 있는 Tilt Rotor機는 當然히 이들 兩側의 任務를 消化할 수가 있다.

그 任務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接近해 오는 敵潛水艦을 레이더나 聽音에 依하여 監視를 하는 것과, 둘째로는 接近해 오는 敵을 探知하여 攻擊하는 것, 셋째로는 我軍을 護衛하기 위하여 소노브이 등의 배리어(防壁)를 쳐서 警戒에 임하는 것이다.

SV-22는 通常 艦上에 待機한다. 艦上이라고 해도 垂直離着陸이 되므로 航空母艦이 아니라도 좋다. 戰艦, 巡洋艦 등 어느 艦船이라도 搭載可能하여 그만큼 運用上의 融通性이 有利한 것이다.

그리고 最前線에 있는 艦船으로부터의 要請에 依하여 出動을 한다. 언제든지 며서 날수 있는 狀態로 待機하고 있으므로 180 km나 떨어진 地点

에도 迅速하게 到達할 수가 있다. 헬리콥터로써는 이 出動範圍가 110 km 程度로 限定되거나, 飛行速度가 느리므로 現場에의 到着時間도 오래걸리게 된다.

SV-22의 主裝備는 搜索레이다, 赤外線感知器, 音響處理裝置, MAD, 도플러航法레이다, 電子戰裝置, 電子支援裝置, 그로발航法裝置(GPS), 火器管制 裝置(FCS) 및 魚雷 등이다. 그 외에 母艦 및 他機와의 사이에 情報를 交換하는 데이터 링크도 있다.

乘務員은 4名, S-3B 바이킹과 마찬가지로이다. 操縱士는 左前方, 그 右側에 副操縱士가 戰術統制官(TACCO)으로 타고 있다. 操縱士의 後方에는 두 사람의 센서操作員(SENSO)이 있다. 先任操作員은 레이더나 소노브이로부터의 信號를 받는 디스플레이 操作을 하며, 기타 한 사람은 赤外線感知器와 소나로부터의 信號를 받아 들인다. 그렇지만 어느 디스플레이 스크린도 全部 信號를 映像으로의 出力이 可能하므로 서로 融通性의 機能이 있어 二重으로 監視할 수가 있다.

現場에 到着한 SV-22는 하버링으로 바꾸어 바로 소나를 바다 가운데로 내린다. 敵潛水艦을 探知하면 驅逐艦 등과 協力하여 데이터 링크로 情報交換을 하면서 作戰行動을 한다. 敵潛水艦과의 接觸이 끊어지면 SV-22는 바로 固定翼機로 바꾸어 250 노트까지 加速하여 周辺海域에 一定의 패턴으로 소노브이를 落下시킨다. 이것으로 敵의 最後의 位置와 我軍의 艦隊와의 사이에 barriers를 만들어 친다.

그 위에서 Osprey는 高度 3,000 m까지 上昇하여 소노브이로부터의 信號를 기다린다. 재차 潛水艦을 發見하면 그것을 探知한 소노브이의 場所에 急降下하여 간다. 그러한 뒤 헬리콥터로 轉換하여 하버링을 하면서 MAD 등의 機上裝置로 敵을 確認한後, 驅逐艦의 攻撃을 기다린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魚雷를 發射하여 攻撃을 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따로 SV-22를 불러내어 攻撃을 위임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Osprey는 항공모艦이 없는艦隊에서도艦上機로서行動을 함께 하면서敵潛水艦의監視에 対応하며,護衛의任務를 맞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마 3~4台的 Osprey를 한組로 한 ASW 배리어가艦隊의前方으로 나아가任務를 수행한다.

또艦隊의가운데에 항공모艦이 있을 때 그 항공모艦으로부터 떠서 날아 갈 경우는滑走離陸도可能하므로搭載量을增加시킬 수가 있다. ASW의完全裝備를 한 SV-22는自體의重量이 15,900 kg이다. 그래서無風의 경우垂直離着重量은 24,000 kg이 限度이다. 그런데乘務員 4名을 태우고燃料를滿탱크하여 소노브이 60個를 싣고 호밍魚雷 2個를搭載하면總重量은 24,500 kg이 된다. 한편機體構造上的 最大制限重量은 26,760 kg이다. 따라서 SV-22는滑走離陸이 가능한 곳에서는充分的 ASW 裝備를 가지고作戰에 臨할 수가 있다.

또 SV-22는海岸基地까지長距離를飛行할 경우, 또는美國으로부터

歐洲, 其他의海上長距離를 날아自力展開를 할 경우도燃料를 가득 싣고滑走離陸을 하면 더 좋다. 이에 따라 V-22는燃料補給을 하지 않고 3,890 km을飛行할 수 있다.

이러한 V-22 Osprey의登場에 따라美海軍의對潛航空作戰은 완전히 새로운形態가出現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여기에搭載裝備되는探知器나感應器도最新의 것으로 된다.

이렇게 새로운航空機나技術의出現은海軍의將來像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4. Tilt Rotor機의 技術 特性

Tilt Rotor機가 아무리優秀한航空機일지라도, 너무費用이 많이 든다면軍用機라 해도開發은認定되지 않는다. 이費用效果의問題에關係서는美國防省當局이나裝作會社는 다음과 같이要約을 하고 있다: 單的으로 말하면, 「製造費나機體價格은

같은 크라스의 헬리콥터와 비슷하나, 같은 페이로드라도 速度가 2 배, 航統距離가 2 배이므로 生産性은 2 배나 된다」고 言及하고 있다. 또, 「運航費는 헬리콥터보다 싸다. 왜냐 하면 燃料消費가 적으며 整備費가 싸고 일손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 외에 Tilt Rotor 機는 生産性이 높기 때문에 所要의 機體數가 적어도 된다. 또 航統距離가 길기 때문에 燃料補給基地數가 적어도 된다. 垂直離着陸이 되므로 긴 滑走路를 가진 飛行基地를 만들 必要가 없다. 그리고 헬리콥터와 같은 振動이 없기 때문에 裝備品의 故障이 적으며 信賴性이 向上되고 修理나 部品補給의 品(時間)도 들지 않는다. 이들 모두가 運航中의 經費節約 및 人員削減에 關係가 있다.

이렇게 經濟效果를 높여 주고 있는 V-22 Osprey는 어떠한 技術特性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Tilt Rotor의 開發은 지금 始作한 것은 아니다. 美國政府와 航空業界는 지난 30年間に 걸쳐 研究와 開發을 進行해 왔다. 벨사의 XV-15 實驗機의

成功은 Tilt Rotor 機가 現實의 것으로 되게 한 것을 如實히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開發과 實驗에 關係해 온 벨사와 보잉 버틀사는 이 經驗을 살려 이번의 V-22 Osprey의 設計와 開發을 進行하였다.

Tilt Rotor의 戰鬪能力에 關해서도 國防省은 1982年부터 '86年까지 XV-15에 依하여 여러 가지 運用實驗을 하였다. 예를 들어, 좁은 艦上에서의 離着陸試驗, 即 3日間に 44回라고 하는 離着陸을 試驗한 結果는 어떤 問題도 없었던 것만 해도 보통 헬리콥터와 比較하여 騒音이 작고 다운워쉬(Rotor에 依하여 發生)가 부드럽기 때문에 甲板에서 일하는 地上人員의 作業이 쉬운 것을 알았다. 그 외에 하버링中의 다운워쉬가 부드럽기 때문에 水面으로부터의 遭難者를 끌어올리는 作業도 容易한 것을 알았다.

또 戰場에서의 超低空飛行能力에 關한 試驗의 結果 操縱反應이 빠르기 때문에 헬리콥터보다도 正確하게 地形을 따라 날 수 있으며, 加速 및 減

속이 빠른 것도 超低空飛行의 能力을 높여 주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 외에 重量物을 機外에서 끌어올리고내리며 運搬하는 것, 호이스트에 의하여 物件을 올리고내리는 것, 空中 戰鬥에 있어서의 機動性, 戰場에서의 生還率, 空中給油 등의 評價가 實際로 行해졌다.

이러한 V-22 Osprey는 지금 巡航 275노트, 대시速度 300노트 라고 하는 헬리콥터의 2배의 速度性能을 갖게 設計되어 있다. 實際에서의 航統性能도 헬리콥터의 2배로 1,850km 이상이다.

이와 같이 Osprey는 速度가 빠르고 機動性이 뛰어나며, 騒音이 적고, 二重・三重의 補完裝備를 갖고 있으며 複合材로 製作되어 있기 때문에 戰場에서의 生存性이 높다.

信賴性을 높이기 위한 것도 Osprey 設計의 重要한 要件이다. 그 目標은 海軍의 F-18 戰鬥/攻擊機보다도 30% 程度 良好하며, 헬리콥터의 2배로 되어 있다. 또 整備性에 關해서도 飛行 1時間當의 整備에 必要한 Man

-Hour는 F-18의 절반 以下로 되어 있다.

이러한 目標을 내세워 V-22의 豫備 設計段階에서는 技術的인 리스크를 避하기 위하여 慎重한 節次를 밟았다. XV-15의 実績데이터가 利用된 것은 물론이며, 여기에 基礎를 둔 設計모델은 모두 21種類나 만들어져, 8,000 時間을 超過한 風洞試驗이 行해졌다. 또 實物크기의 胴體나 主翼을 만들어 荷重試驗을 行하였다. Rotor 系統에 關해서도 實物の 3分の 2 크기의 模型에 의한 테스트가 行하여져 效率이 높은 設計가 된 것을 確認하였다.

이렇게 하여 製作段階에 들어간 V-22 Osprey는 胴體와 主翼의 거의가 複合材로 만들어져 있으며, 複合材 構造는 金屬材에 比較하여 重量이 25%나 輕減된다. 이 때문에 構造上的 強度重量比가 높아져, 機體重量이 가벼워짐으로써 V-22의 航統距離, 速度 및 페이로드 등이 改善되었다. 또 複合材로 因하여 耐渡勞性, 耐腐食性 및 耐彈性도 좋아졌다. 이것은 整備性이나 信賴性을 높이고, 機體의 壽命

을 延長하고, 運航費의 削減에도 關係가 있다.

胴體의 構成은 Cockpit, Cabin, 後部램프 및 尾翼部分으로 이루어져 있다. Cockpit는 乘務員 3人乘으로 되어 있다. Cabin은 断面이 四角形으로, 길이 7.3m, 幅과 높이가 1.8m이다. 여기에 完全武裝兵力 24名과 機銃射手 2名이 탄다. 胴體의 中央部 下方에는 左右로 Sponson이 튀어나와 있으며, 여기에 主降着裝置, 燃料 Cell 및 空冷換氣裝置를 달고 있다. 同時에 Sponson 自体가 浮力을 갖고 있어, 非常時 緊急 着水를 해도 V-22 Osprey는 水面에 떠 있을 수가 있다.

또 高翼主翼과 胴體의 結合部分에는 直徑 2.28m의 스테인레스 스틸製의 Ring이 달려 있다. 이 Ring은 主翼을 올려놓고 90度 回轉하여 날개와 胴體를 포개어 좁은 艦內에 格納時 便利하게 되어 있다.

胴體後部에는 램프도어가 있어 兵力이나 大型貨物 및 火器 등을 싣고내릴 수가 있다.

主翼은 外板, 前線패널 및 支持構造 등이 複合材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후랩퍼론, 連結드라이브 샤프트, 燃料 Cell 및 Nacelle 등이 붙어 있다. Nacelle은 複合材製로 되어 있으며, 엔진 空氣吸入口는 컴퓨터設計에 依하여 하버링, 遷移飛行 및 巡航飛行의 어느 때라도 가장 좋은 空氣 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形狀으로 되어 있다.

Rotor는 左右 한 개씩이다. 獨自의 翼型을 가진 3枚의 브레이드로 이루어져 있어, 하버링時나 巡航飛行中에 가장 좋은 效率의 飛行特性을 發揮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驅動系統은 트랜스미션, 워쉬 플레이트, 連接샤프트 및 기어박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트랜스미션은 相互連結되어 있어서 엔진의 한쪽이 停止되어도 한쪽 엔진으로 양쪽의 프로펠러를 回轉시킬 수가 있다. 또 트랜스미션은 整備의 품(일하는 時間)이 거의 들지 않으며, 潤滑油가 不必要한 柔軟한 Coupling이 附着되어 있어 濕氣가 들어가 腐食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内部가 與圧이 되어 있으며, 主潤滑油가 없어져도 적어도 30 分間은 非常潤滑系統이 이를 지탱해 준다.

엔진은 아리손社의 T406-AD-400 이 2基로 長期間 使用実績을 가진 T-56軍用엔진과 T701 産業用 엔진을 基本으로 한 것으로서 燃料效率이 좋고 出力重量比가 높다. 또 構造가 簡單하여 整備가 쉬운(便利한) 特徵을 가지고 있다. 構造는 14段 壓縮機, 아놀라型 燃燒室, 2段 가스제너레이터 터빈으로 이루어져 있다.

燃料系統은 主翼内部와 Sponson의 가운데에 燃料 Cell이 있다. 長距離空輸의 경우는 Cabin 内部에도 補助탱크를 搭載할 수가 있다. 또 空中給油를 받는 것도 可能하다. 탱크의 燃料搭載量은 6,190 kg이다. 여기에 Cabin에 搭載하는 補助탱크를 追加하면 13,450 kg이 된다.

操縱系統은 Fly-by-Wire 方式이다. 安全을 위하여 Back Up 系統을 包含하여 3重으로 되어 있으며 Avionics 系統에도 連結되어 있다. 이 操縱系統은 Osprey가 헬리콥터로서 飛行하고

있을 때는 普通의 헬리콥터의 操縱裝置와 마찬가지로 作動하여 하버링狀態로부터 前進 100노트, 橫進 또는 後進 35노트까지의 操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헬리콥터로부터 보통의 飛行機로 遷移飛行中에 있어서의 操縱裝置는 自動적으로 후랩퍼론, 라더 및 엘리베이터로 전환된다.

5. 人類의 飛行方法을 變化시킨 틸트로터機

Tilt Rotor라고 하는 새로운 航空技術은 모두 未開拓의 分野이다.

그런만큼 狀來에는 더 크게, 그리고 無限히 넓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V-22 Osprey가 일단 飛行하기 始作하면 想像도 되지 않았던 用途가 出現될 것이 분명하며, 製作會社가 말하는 것처럼 人類의 飛行方法을 變化시킬 수도 있다.

이런 用途 가운데에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 例를 들어 軍用機로서는 空中早期警報, 電子戰, 燃料補給탱

크, 海岸線의 密入國 또는 密輸入 團 建設計劃이 具體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現實化되면 모두 다른 새로운 航空輸送의 世界가 出現하게 된다.

이것이 決定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美國에서는 아마 10年後, 늦어도 今世紀末까지는 實現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소련에서도 물론 東洋에서도, Tilt Rotor 機가 나날이 意外로 빨리 다가 올른지도 모른다. Tilt Rotor 機의 꿈은 꿈으로서가 아니라 現實로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도 期待해 볼 만하다.



통솔력과 관리능력

장 상 용

(중령 공군본부)

이 글은 무기체계의 고성능화와 고가화에 따라 엄청난 예산을 관리해야 하는 우리 공군에서는, 전력의 무위손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솔력과 관리능력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 Air Review 지 (1983.9) 에서 발췌 번역한 것이다.

I. 통솔력과 관리능력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고 사람은 통솔하는 것이다.”라는 단순한 말이 그동안 전문직 공군장교들에게 상당한 관심이 되어 왔다.

복잡하고 또 계속 변천하고 있는 군의 환경 속에서 직업의 안전을 찾고 자기 현실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단순한 표현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군장교들의 행동 “모델”로 삼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마치 “열이 나면 찬물을 마셔

라"라는 구식 가정요법을 연상케 하는 말이다.

이 말은 통솔력은 관리능력 없이도 가능하고 관리능력도 통솔력 없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고 더우거나 통솔력을 찬미하면서 관리능력은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야심있는 젊은 장교라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누가 관리직에 자리를 원하겠는가? 그러나 이 단순한 격언이 주는 진짜 위험은 장교의 자질에 관한 진지한 관심을 왜곡시킨다는 점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양분되어 있는 장교직, 즉 작전과 관리, 일선근무와 참모직, 자격조종사와 비자격조종사 조종사와 항법사, 전투조종사와 수송기 조종사 등 사이에 갈등을 잠재적으로 가중시킨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 통솔자와 관리자 사이까지 갈라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사람은 통솔하고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장교의 역할과 자격을 어느 모로도 분명히 하여 주지는 못하고 장교가 갖추어야 할 능

력을 제시하여 주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찌하여 관심을 받는가? 사실 훌륭한 통솔자와 능률적인 관리자는 구별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훌륭한 장교의 자질은 전자인가, 후자인가, 아니면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같이 포함시킨 훌륭한 공군장교 상이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론은 통솔력과 관리능력은 상호 깊이 관계되어 있는 개념이며 양편 모두 건전한 장교의 자질에 똑같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통솔력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관리는 이성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성이 없는 통솔자는 사랑이 없는 관리자만큼이나 해를 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군은 관리능력이 있는(즉, 인력의 부담과 경비를 판단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솔자를 필요로 하고 통솔능력이 있는(즉, 부하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욕구를 이해할 줄 아는) 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군이 이 두 기회를 분리시키거나 어느 한

쪽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장교자질에 대한 현대견해

장교를 신사, 통솔자, 전문가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는 대부분 육군의 전투사를 통하여 본 견해로서 충성심, 용맹성, 독창성 그리고 사병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장교의 높은 자질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의 충격과 군에 대한 정치적 분열로 인한 불화,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장교의 역할에 새로운 차원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복잡하여진 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현대의 장교자질 문제는 장교의 변천하는 역할의 문제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통솔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장교들의 강력한 재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고도로 기술화, 전문화 되어 있고 중앙통제되어 있는 군사체제 속에서 장교의 자질은 관리능력과 관리수단을 더 중요시 하게 되어 있다.

Bennie Davis 장군은 통솔력과 관리능력 그리고 직업관을 장교의 자질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가 뒤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 자질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확실한 개념을 주지도 못한다.

이 문제들은 지속적인 가치관과 자아의 정립을 추구하는 공군 장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최근에 와서 장교는 무엇보다도 우선 통솔자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를 다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수년전만 하여도 "관리"라는 제목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던 지도력 교육이 이제는 사관학교 또는 군사전문학교에서 거대한 계획으로 세워져 있으며 고급지휘관들은 장교나 생도들의 모임에서 자주 통솔력의 중요성을 훈시한다.

물론 학교교육을 통해서나 지휘관들이 군대에 있어 통솔력을 강조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분명히 구분하여 왔다. 즉 지휘통솔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구분시켰다는 점이다. "공군장교들은 관리자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반면, 통솔자가 되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당신은 사물을 관리하고, 사람을 통솔한다"는 말의 의미는 공군이 관리자보다는 통솔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명백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공군장군은 관리를 정의하기를 "기본적으로 통제와 관련된 하나의 기록제도"라고 하였다.

또 어떤 장군은 "통솔자는 정보를 평가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된 사항을 제시하고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이 말은 관리이론을 잘 아는 장교들에게는 바로 효율적 관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은 마치 "관리"라는 용어가 장교들의 전문사전에서 삭제당하여 버린 것 같다. 여하간 통솔과 관리라는 용어의 해석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관리능력보다 통솔력을 더 주장하는 것은 공

군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공군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장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거운 때이다. 기술이 애초부터 공군임무의 기본요소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지난 20년간 무기 및 지원체제에서 이루어진 폭발적인 발전과 그에 대한 의존은 장교의 자질에 대하여 종래의 가치관에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최소한도 공군은 폭력의 관리(Management of Violence)라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전문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고 국제정세에 대한 군사적 대처문제에서 정치적으로 의견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군사작전을 모든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게 만든다. 그 결과로 공군은 각급 일선장교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점점 둔화되었고 거대한 기술직 참모들로 구성된 양적 조직으로 성장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술적인 능력과 타 분야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관료 정치적 수완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장교의 자질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공군의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완전 자원제에서 온다. 자원제도는 군의 유능한 인력을 얻기 위하여는 민간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얻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기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자원제는 장교의 직무를 전통적으로 내려온 "국가에 대한 봉사" 의미 아닌 "경력" 또는 "평생직"의 의미로 더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 군의 기강과 동기 부여의 방법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난처한 "인간적" 문제를 새로이 일으킨다.

끝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공군 장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즉 공군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증대는 전 군에 거대한 행정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소수의 여성문제로 인하여 사기, 복지, 지원체계에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였고 마약과 알콜 남용문제로 인하여 지휘부의 혁신적인 대처가 필요한 새로운 인력문제가 가중되었으며 "편모, 편부" 또는 "부부장교"의 문제로 인하여는 전투태세정비와 인사배치 정책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통적인 견해에서 생소한 것들로서 혁신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섬세하고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전문직 장교들에 대한 장교자질의 새로운 모델을 찾게 한다. 그런데 최근의 이론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에 부응하는 능력있는 장교의 자질은 통솔력이며 관리능력은 부분적인 문제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교상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인 생각이 있다. 첫째는 사람은 통솔하는 것이고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라는 격언에서 나온 생각으로 장교의 자질은 통솔력이며 관리능력은 기타 자원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장교에게 관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마지 못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사소한 관심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즉, 관리는 장교가 부하를 통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금 그리고 물자를 획득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므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만드나.

이러한 생각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어 있고 관료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장교들이 갖게 될 갈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여 준다.

또 하나의 생각은 장교의 역할에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완전히 구별하여 각기 장교자질의 양쪽 끝에 있는 것처럼 보는 태도이다. "관리능력면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고 말한 Davis 장군의 논평이 바로 군에서의 순수한 지도력은 한쪽 극에 있고 관리능력은 다른 한쪽 극에 있는 변용적 능력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통솔력은 지나치게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일처럼 되어 지휘통솔을 강조하면 성취할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관리를 강조하면 이상이 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장교가 부하에게 임무수행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 중간 어디인가 이상주의와 실용주의가 적당히 만나는 곳을 알아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위의 두 견해 중에 어느 쪽이라도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견해는 장교의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연효과적인 지침이 될 것인가?

필자는 장교상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들은 최근의 연구 이론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2. 새로운 견해

지휘통솔과 관리에 대한 지난 30년간의 이론들은 지휘는 어디에서 끝나는 일이며 관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휘력 문제를 집단역학 문제로 다루게 됨으로써 학술적 관정이나 순수한 해석보다는 경험적 자제에 입각하여 다루는 행동학적 연구로 취급되고, 조직분석은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다만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때 서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심사임을 명백히 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통솔력에 대한 행동연구에서는 통솔력이란 특정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비한 자질이 아니라 뚜렷이 보이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았다. 통솔력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바치는 인간노력의 과정이라는 견해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통솔자의 태도(Attitude) 보다는 실질적인 행동(Action)을 어떻게 하느냐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즉, "지휘관으로서의 당신의 일은 부하 속 생각을 바꾸어 놓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들의 행동에 영

향을 주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통솔자는 인간의 행동심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부하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행동(Action)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통솔력을 행동상의 과정(Behavioed Process)으로 보는 가치관을 그러한 행동은 신비한 것이 아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통솔력은 집단 내에서의 개인간에 일으키는 상호작용이며 또한 그 집단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일으키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조직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지혜로서는 물론 목적달성을 못하거나 조직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

물론 통솔의 과정은 지휘관과 부하들 간에 유지되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나 지휘관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전문가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만 전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목적과 부하의 사기와 추진력의 유지관계에 균형을 잃고 능률을 잃고 조직을 분열시킬 염려가 있다.

즉 조직은 인적자원 뿐 아니라 비인적 자원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제도이며 비인적 자원의 관리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기계적인 기능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사명완수를 위하여 부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광범위한 능력을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관리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솔력은 관리능력과 명백히 관계가 있는 것이다. 실상 행동학적 분석과 조직이론에서는 통솔력과 관리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솔자나 관리자는 다같이 조직 속에서 사물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것으로서, 관리는 "사물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고, 지휘는 "사람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구별하여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효과적인 지휘와 관리는 집단의 사기와 조직의 목적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따라서 통솔력과 관리능력의 구별은

범주가 달라서가 아니라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원인이 있다. 관리자는 객관적 조건으로 임명이 되고 지휘관은 내적 조건으로 임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균처럼 안전과 효율을 기본 조건으로 조직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통솔관리자는 내적 조건을 같이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 건전하려면 관리자는 그의 통솔력에 대하여 집단 내부의 비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휘관은 실제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객관적 전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관리자이든 지휘관이든 두 가지 능력이 같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조직의 어떤 위치에 있는 지휘관이든 통솔자의 입장에서는 부하와 직접 유대를 갖는 것이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를 활용하여 조직적 능률을 얻는 것이다.

3. 바람직한 장교의 자질

이제는 통솔력과 관리능력은 공군 장교의 자질에서 불가분의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능력은 한몸에 붙어 있는 두 팔과 같은 것으로 같은 일을 위하여 노력을 바치는 것이다. 통솔이 인간의 직접 접촉으로 조직속에서 전개 되는 일이라면 관리는 직접 접촉하는 범위를 넘어서 전체 조직의 욕구를 다루는 일이고 결국 다같이 인력을 발전, 유지, 인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의미로 중복되는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통솔이 집단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관계를 끌고 가는 일이라면 관리는 부하들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알게 하고 그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장교는 부하를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돌보아 주면서 통솔하는 것이고 조직의 능력과 소요경비를 분석하고 취사선택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통솔은 부하에게 느껴지는 것(Felt)이고 관리는 이해(Understood)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장교의 자질 중에 관리는 이성이고 통솔은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잃으면 조직은 고통을 받게 된다.

통솔력을 무시하는 장교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지 모르나 전체조직의 목표에 관심이 없으면서 개인적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 조직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고 관리능력을 소홀히 하는 통솔은 목표달성에 계속 실패하거나 지나친 소모를 치루게 만들어 결국 사기를 잃게 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월남전에서의 미 육군의 경우로 관리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야전보병 장교의 통솔권한이 무시당했고 결국 부대단위의 권위와 규율을 파괴하게 된 경우이고, 후자는 1차대전시에 베르당에서의 프랑스 육군의 경우로 과감한 통솔력만이 관심사가 되어 장교들이 담력과 열기에 도취되어 인적소모는 생각도 않고 참호속에서 방어하고 있는 적에 대하여 계속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쳐버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경우이다.

장교는 그의 조직관 속에서 사람과 임무에 대하여 똑같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조직이란 완수해야 할 임무를 가진 한 인간의 집단이다.

임무는 조직의 명분이고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는 수단이다. 전문직으로서 공군장교의 자질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장교는 사람을 통솔하는 것이고 사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통솔력과 관리능력은 장교행동에 상반되는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통솔력과 관리능력에 대하여 체계있

게 연구하여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해답 또는 한 가지 의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만 계속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하고 헌신적인 전문직 장교를 길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종사의 아내로서

김 희 숙

〈 제 3252 부대
소령 함경만부인 〉

비행기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하늘에 그려진 하얀 두 줄을 보며 그의 비행이 안전하도록 기도하면서 지나간 나날들을 회상해 본다.

나를 처음 본 후 고향에 가서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여 시댁식구 모두를 놀라게 했던 노총각의 그이……. 나 또한 어린나이는 아니었지만 시집갈 생각이 없었던 때 나를 당황하게 하여 얼렁뚱땅 결혼식을 치르게 했던 남편의 대담성이 지금와서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하여 본다.

남편과의 자연스런 사귀는 공군사후 장교 출신으로 제대하였던 친정오빠의

낮익은 군복이 나로 하여금 더욱 남편과 친숙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나는 당시 오빠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결혼을 하게 되어, 평소 부모님께서 “순서를 지켜 결혼을 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을 새겨 보며 오빠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하여 띄워보낸 편지의 답신내용에는, 힘들게 구한 결혼선물의 의미와 함께 정비장교로(수원에서 정비중대장 역임) 근무하면서 조종사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오빠가 동생을 염려하여 조종사들의 고충과 금지, 그리고 부인으로서의 내조와 언행 등을 상세히 적

어 좋았었다. 그 편지 덕분에 군인 부인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각오로써 시작된 첫 APT(관사) 생활도 아침마다 들리는 벨소리, 기상나팔소리, 구보하며 들리는 구령소리에 놀라 이불만 뒤집어쓰고, 저녁에 들리는 취침나팔소리에 얼마나 서글픔이 생기곤 하였는지..... 지금은 그 모든 소리가 정다운 소리, 포근하고 안락한 우리들의 소리로만 느껴진다.

그 뒤, 보람도 있었지만 고생도 많았던 외국생활은 나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공군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였다. T.V도 없이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하루종일을 보내야만 했던 나에게 다달이 한국에서 많은 우표가 붙여져 항공편으로 보내왔던 “전우신문”, 월간지 “호국”, “공군”은 너무도 반가운 한국의 소식, 군의 소식들이었다. 우리가 살던 곳에는 우리나라 군인가족 모두가 함께 살던터에 오직 공군만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을 느끼곤 하였다.

개개인 모두에게 비싼 항공우편으로 보내진다는 점은 조금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곳에 실린 공군의 이모저모 소식들을 시간에 쫓기는 남

편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다음달을 또 기다리곤 하였다.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각국의 많은 부인들 앞에서 우리나라 요리를 소개하면서 88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발전하는 우리나라 곳곳을 소개하고, 한국의 풍습·예절·기후 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오고싶어 했었던지 모르겠다.

나의 서투른 영어도 그들에게는 애교스러움과 수줍음으로 보였나 생각된다.

돌이켜보면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외국에서의 서글픈 생활에서의 괴롭고 힘들었던 날들을 고통을 인내하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군인인 나의 남편에게 부여해 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군장교 부인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으며 노력하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귀국 후, 여러 차례 이사 후 남편의 근무지가 옮겨 이곳으로 와서 조종복을 입고 첫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가슴 뿌듯함과 마음이 몽클해져 왔던 것은, 오랫동안 보는 남편의

다른 모습과 우리집 식구 모두가 보
았던 몇년 전 어느 늦가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훈련(생환구조) 하며
고통을 참던 모습이 떠올랐었기 때문
이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야밤늦게 퇴근
휴일없는 근무,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
는 힘들고 고될 터인데도 항상 즐거
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가족·친지 모
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도
하늘의 사나이가 되어 조국의 산하를

누빌 남편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다시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남편의
얼굴이 평온과 기쁨에 차있는 것을
보면서 조종사의 아내로서 어깨가 무
거워짐을 느끼며, 그의 건강과 안락
한 가정을 위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
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대한
의 공군가족 모두의 전승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자랑스런 우리 아빠

반 호 정

<제 5672 부대

준위 반청길 장녀>

향긋한 풀내음 속에 영글어가는 계절을 음미하면서 동산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오늘도 하늘을 위해 땀흘리는 아빠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 누구보다도 자상하시고 항상 군인이라는 본분을 지키려 하시는 뚱보 우리 아빠.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면 너무 빨랐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빠의 군생활이 벌써 27년 8개월이라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빠는 벌써 약 30년이라는 군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서 생활을 해 왔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군생활을 하시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위해서 월남전에 뛰어들었던 아빠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전쟁 속에서 무사히 보내고 귀국하신 아빠 항상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지난날을 돌이켜 가난 속에 생활했던 이야기를 곧잘 해 주셨는데 나로서는 실로 아빠의 생활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로만 들려왔을 뿐, 그 때에는 피부로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한 나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흔히들 어른들은 지난날에는 밥이 없어 등겨로 떡을 해먹었고 보리로써 밥을 해먹었다는 말을 종종 하지만,

나에게는 스쳐가는 바람마냥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와 주위의 어른들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웬지 모르게 아빠 말에 머리가 숙여진다.

지난날 자신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투정아닌 투정을 많이 부렸었던 그날들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생각이 날까? 다른 집 아빠들은 일요일이면 등산이니 낚시니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재미있게 노는데, 왜 우리 아빠는 군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여행도 가지 못할까 하면서 아빠를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철없이 보낸 나의 시절이 부끄럽게만 여겨진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아빠, 비행기를 정비하시는 아빠, 더 높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 교육도 받고 기술학교 교관생활도 하신 '아빠의 지난날 사진첩을 볼 때마다 학년이 높을수록 느껴지는 감회가 크다. 정비사로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아빠, 군대라는 낯선 사회와는 달리 유사시에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목숨을 바친다는 특수

성을 가진 단체임을 세삼 뒤늦게 알게 된 내 자신이 못내 부끄럽다.

우리가정보보다 몸담고 있는 부대생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빠의 생활이 야속하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우리가정보보다는 공군을 위해서, 작게는 비행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보람을 느끼며 생활하시는 그 자세가 믿음직스럽고 머리가 숙여지기도 한다.

항상 비행기가 나는것을 보면 신기하기만 했던 나. 아빠의 기술로써 비행기가 날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웬지 나도 모르게 작은 두 손에 힘이 솟는다. 공부하지 않으신 것을 못내 아쉬워하셨던 아빠,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공부를 하고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셨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의식주가 무난하고 복지생활에 손색이 없는 가정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빠를 생각하노라면 더욱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우리집 가훈인 사랑·노력·성실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한다.

똥보아빠. 예전에는 똥똥하지 않으셨는데 엄마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써 똥보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런

아빠가 더욱 더 좋아진다. 평소엔
조깅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테니스를
잘 하시며 영어공부에 정열을 쏟고
있으니 아빠의 열성적인 면을 어찌
본받지 않으랴? 말은 바 임무에 충
실히 임하셔야겠다며 일찍 출근하시는

아빠의 다짐을 볼 때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작은 나의 가슴에 고이 자리잡는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아빠의 자랑스런 딸이 되겠습니다”



공군 부대 방문기

김 송 현

(코리아타임스 문화부장)

처음 공군부대를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은 각기 반반이었다. 그동안 북괴가 파놓은 휴전선 근처의 땅굴을 보러 가는 길 혹은 오는 길에 두어번 육군부대를 들른적이 있고, 그 때마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의 기분은 여까지 이유로 그렇게 흡족한 것이 못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시기적으로도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날이면 날마다 전국의 이곳 저곳에서 새롭게 노사분규가 일고 있었고, 도대체 흡족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때였다.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 대로 일반 서민들의 불안감, 노동자들의 아우성에는 아랑곳 없이 군

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글귀를 협상 중인 헌법 전문(前文)에 넣어야 되느니 안 되느니 한창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가서 모든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오길 천만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때까지 하늘을 날오는 공군 장병들에 대한 나의 관념은 아주 단순했다. 3군 장병들 중에서 가장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고 따라서 멋있는 군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항상 땅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육군장병들과는 달리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깨끗하고 푸른 하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관념

일 것이다. 또 공군장병들은 다른 3군 장병들보다 훨씬 더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그것과 싸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뉘시가 유일한 취미이기 때문에 나는 매주 일요일엔 거의 들관 혹은 산속 저수지가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 뉘시를 즐기다 입질이 뜸 할 때 자주 고개를 들어 푸른 산이나 하늘을 쳐다보곤 하는데, 그런 때에 무심히 창공을 흐르듯 날아가고 있는 전투기에 시선이 가고 그 전투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하얀 물체를 쫓는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문득 문득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해 보곤 한다.

「저 조그만 전투기에는 지금 몇 사람의 군인이 타고 있을까? 하나 둘 …… 많으면 세 사람 정도? 등이 가렵거나 옷 속에 혹시 무슨 벌레라도 들어 갔을 경우 저 군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참아낼까? 무한한 하늘을 날고 있으면서도 조종석 밖을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답답함… … 철혹 속 밤하늘을 항진할 때의

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고독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어떤 훈련을 쌓았을까? ……」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땅 위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은 이웃 동료장병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무한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군장병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 방문을 통해 실제로 보고 들으면서 평소의 공군장병에 대한 나의 관념은 과히 엉뚱하지만 았았던 것을 알게 되었다. 깨끗하고 잘 생긴 용모의 장병들이었지만 모두들 하나같이 긴장 속에 살며, 적과 조우하기 이전이라도 항상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과 주위의 단조로움과 또 무서운 고독감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이 분명했다.

공군작전사령부에서 남·북한 전투기의 비행 상황판을 보면서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지도 모형의 바둑판 위에서 "초 읽기" 바둑을 실세 없이 두고 있다는 착각을 했다. 바둑판

위의 돌은 전투기. 이곳 남한의 기사(棋士)는 작전사령관…… 물론 그는 흰색 돌을 쥐고 게임을 벌이고 있을 터였다.

이런 착각 속에 우리 공군은 숫적 열세 속에 참으로 힘겨운 바둑을 붙들어야 북괴와 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비록 흰색 돌을 쥐고 게임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숫적으로 열세여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실수를 보이면 언제라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령부를 떠나면서 숫적 열세에 대한 기우는 단지 기우에 그친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되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북한 전투기의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 모든 장비와 무기의 우수한 성능, 그리고 조종사들의 풍부한 훈련 비행 등은 감히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은 값비싼 기름의 소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훨씬 뒤지고 있는 북한이 기름을 흥청 흥청 써 가

며 그들의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리라고는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중부 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전투비행단에 들렀을 때는 군대 병영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마치 넓은 벌판에 자리 잡은 하나의 기계 공단을 견학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밖에서 간간이 들려 오고 있는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굉음에는 아랑곳 없이 장병들은 연구와 실험에만 열을 쏟고 있었다. 지상에서 말없이 국가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밖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군 장병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었다.

일반적으로 공군하면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하늘을 나는 조종사들을 밖에서는 연상하곤 한다. 지상에서 작업복을 입고 손에 기름을 묻힌 채 기계와 싸우고 있는 공군 장병들은 이들 조종사들의 그늘에 가려 거의 망각되다시피 되어 왔다. 이번 방문은 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 공군 장병들의 존재와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공군작전사령부와 전투비행단의 방문은 우리와 같이 거의 군대에 관해 모르고 있는 소위 “문화인(?)”들에게는 실로 유익한 견학이었다. 이 값진 견학을 마치고 몇 가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순전히 내 개인의 생각이요 또 판단이다.

첫째는 주한 미군의 철수와 군지휘권 이양의 문제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데모 구호 중에는 “주한 미군의 철수”가 심심찮게 등장하곤 했다. 또 군지휘권의 조속한 이양을 촉구하는 발언을 서슴찮고 하는 식자(識者)들도 있었다.

언제가 될지 그 시간이 문제이지 미군이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토안에서의 우리의 군대를 우리들 자신이 지휘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군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점은 그들이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협조”라는 표현을 빌려도 좋고 “의존”이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다. 작전사령부를 둘러 보고 우리 공군은 미공군에게 “협조”나 “의존” 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특히 적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이의 분석에 있어 우리 공군은 미군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분명히 개인의 의견이지만 군지휘권도 당분간은 미군이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일 우리가 군지휘권을 당장 넘겨 받게 되었다면 따라서 한국 주둔의 전 미군이 우리나라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부질없는 생각이다. 비록 경제적인 부담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휘권을 이양했다 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떠맡긴 채 매사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지 누가 알겠는가? 아뭏든 우리 국군이 실질적인 자주 국방을 위해 제 발로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군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 주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불개입에 관한 것이다.

5·16 군사혁명 이후 과거 30여년
동안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논란을 벌여 왔
다.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글귀를 새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느니 안 되느
니 왈가왈부 한 바 있다.

그러나 공군을 방문하고 나면 누구
나 “군의 정치 중립화”라는 구호는
한날 잡꼬대에 불과한 소리라는 것을
당장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완전 무장을 한 채 이제나 저제나
출격 신호만을 비상 대기소에서 기다

리고 있는 조종사들을 직접 목격하고
생각해 보았다. 언제 그들이 “정치”
에 관심을 기울일 틈이 있겠는가?”

이번 방문을 주선해준 공군본부에
감사하며, 특히 여러 가지 유익한 공
군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신
참모총장님, 작전사령관님 그리고 비행
단 단장님 등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다
면 실제로 영공 수호에 종사하고 있
는 공군 장병들과 직접 얘기할 기회
가 없었다는 것이다. 소꿉잔 기울이
며 서로의 고충을 마음 터 놓고 밤
새껏 얘기할 날이 한 번 왔으면 한
다.

韓國宗教의

발전 方向

남 상 열

(중령 제 3526부대)

1. 人間과 宗教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속에서 종교와 인간은 서로 만나게 된다. 즉, 인간자신의 實存과 우주의 起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의 해답을 종교를 통하여 찾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宗教란 무엇인가?

학자들은 종교를 일컬어 “絕對信念體系” 혹은 “絕對價値體系”라고 하지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마음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信仰心”이라고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信仰心은 종교를 향한 關心으로서 宗教를 수용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性向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人間과 信仰」의 關係를 「나무와 뿌리」로 비유한다면 「人間과 宗教」의 關係는 「씨앗과 땅」의 關係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내 보내듯이 人間도 宗教라는 땅에 떨어져서 信仰의 뿌리를 내리고 새로 태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즐기와 가지도 왕성하게 자라서 좋은
숲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데 기여
할 뿐 아니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종교를 만나서 신앙의 뿌리를
박은 人間은 “훌륭한 사회” “아름
다운 社會”를 造成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世上的인 시험과 고난이 닥
친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승리
할 수 있는 信念과 意志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人間과 宗教는 둘이
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할 수 있다.

2. 國家와 宗教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오랜 세월을
두고 論議되어 왔지만 合意된 結論이
없으며 그 관계를 어떠한 視角에서
보느냐에 따라 方向도 크게 달라진다.

「史的으로 볼 때 종교와 국가는
상호 충돌과 합작 등 多樣한 時期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서로
완전히 나누어 설 수도 없고 하나

로 統合될 수도 없는 복잡한 關係에
놓여 있다.

즉, 人間과 宗教를 分離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人間이 모여서 사는 社會
가 모여서 이룬 國家를 宗教와 따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땅에 씨앗을 뿌렸지만 기후가 적합
하지 못하면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듯
이, 人間이 宗教를 만났지만 국가의
政策이 宗教의 自由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발전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宗教發展을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국가는
종교 앞에서 政治·經濟·文化的으로
선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종교는 국가 앞에서
權力鬭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
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多宗教社會에 있
어서 宗教의 政治的 참여는 宗教 간
의 對決은 물론 民族分裂을 초래할 위
험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敎理인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權勢들에게 굴복하
라. 權勢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정세는 다 하나님
의 정하신 바라”(로마서 13장
1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宗教는
國家 앞에서 批判勢力은 될 수 있지
만 도전세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종합적으로 國家와 宗教 간의 관계
는 相互必要 補完의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韓國宗教의 傳來와 發展

가. 佛 教

인도에서 발생한 佛敎는 中國을
거쳐서 西紀 372년에 우리나라에 傳
來되었으며 우리 民族의 文化發展과
국토방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
히 三國時代와 고려시대에는 佛敎가
國敎로 인정될 만큼 크게 부흥되고
발전되었지만 韓鮮時代에 와서는 政
府의 排佛政策에 의하여 수난의 길
을 걷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樹立 以後에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게 되었고 오
늘날에 와서는 한국에서 최대의 信

徒를 자랑하는 宗教로까지 발전되어
佛敎 中興期를 맞이하고 있다.

나. 改新敎

基獨敎는 西歐의 物質文明과 함께
1885年 이땅에 受容되어 전파되었으
나 日本의 強占으로 탄압을 받았으며,
특히 神社參拜의 強要 등 수난을 맞
이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6·25전쟁을 맞이하
여 北韓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또 한
번의 수난을 겪어야 했으나 政府의
안정과 더불어 宗教의 自由가 보장되
면서 다시 재건되어 오늘과 같이 큰
敎勢를 굳히게 되었다.

다. 天主敎

天主敎는 近世紀에 있어서 西歐文
化 창조에 精神的 기반을 제공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614년에 朝
鮮時代學者인 李穡光이 지은 “芝峰類
說”이라는 책을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1785년 부터 政府의 迫害가

시작되어 많은 순교자를 낳기도 하였으나 꾸준한 전도활동을 통하여 오늘에 있어서는 큰 教團을 形成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宣敎活動을 펴고 있다.

라. 儒敎

紀元 前 13世紀 初 中國大陸의 殷나라로 부터 移動되어 왔으며 고려 말엽에 이르러 元나라로부터 朱子學을 들여와서 새로운 學風을 造成함으로써 급격히 발전되었다. 특히 朝鮮時代에 와서는 政治에 크게 간여하기도 하였으며 宗教的 側面보다는 國民倫理的 側面에서 民族文化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 圓佛敎

원불교는 少太山 朴重彬에 의하여 1916년 시작되었다.

“萬有가 한 體性이며 萬法이 한 根源이다”는 理致를 깨닫고 敎理를 體系化하였다.

원불교는 佛敎를 現代化한 宗團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敎育과 社會事業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 지금은 상당한 敎勢를 갖고 있다.

바. 天道敎

천도교는 1860년 崔濟愚에 의해서 東學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그후 第三代 敎主인 孫秉熙에 의해서 천도교로 개칭되었다.

한편 日帝下에서의 民族運動에 앞장서서 영향력을 行事하였으며 社會組織을 통하여 많은 信徒를 확보하게 되었다.

사. 其他 宗教

韓國에는 수 많은 宗教가 竝存하고 있는데 全國 各地에 散在하여 있는 新興宗教의 수는 약 240여 종단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羅喆의 大際敎, 姜大成的 一心敎, 金奉南의 찬불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新興宗教의 특징은 첫째, 現世觀이 매우 강하고 둘째, 敎主를 神格化하여 모시며 세째, 敎主가 죽으면 分散되거나 구심점을 잃고 새로운 종교로 탈바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4. 韓國宗教의 現況

韓國은 단일민족, 단일언어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宗教의 발전을 쉽게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歷史 속에서 흘러 온 韓國人의 전통적 心性은 오늘날 多宗教社會·多元的 價値觀을 存在하게 하였다.

일부 學者들은 한국의 多宗教 狀況을 가리켜 社會分裂 또는 상호마찰과 갈등을 초래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만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첫째, 韓國宗教로 대표되고 있는 佛敎, 儒敎 및 基督敎 등이 民族文化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으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국민이 보는 종교는 만드시 배타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佛敎는 삼국시대 이후로 民族文化發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호국운동에도 앞장 서 왔다. 儒敎 또한 政治文化와 國民倫理思想 形成에 기여하였으며, 基督敎는 서양문명의 도입과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둘째, 韓國人의 宗教的 價値觀은 전통적인 倫理規範 안에서 形成되었기 때문에 획일적이 아니라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즉, 자신이 믿는 종교만이 絕對的이라는 信念보다는 다른 宗教라도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來世的 指向보다는 現世的 成就에 더 큰 關心과 비중을 두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韓國의 全人口 中 宗教人은 40%수준에 머물고 있다(부표 1 참조). 따라서 教勢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인구가 60%나 되기 때문에 宗團別로 전도활동에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國의 宗教는 敎理와 官敎活動의 범주에서 宗教 間에 충돌의 위험성은 매우 희박하다.

5. 韓國宗教의 課題

우리나라의 歷史를 통하여 볼 때, 어려운 극난을 당할 때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던 佛敎, 국가統治的

次元에서 德을 구현하고 善政을 베푸는 데 앞장섰던 儒敎, 그리고 西歐文化의 受容 계기가 되었던 基督教 그리고 民族運動의 효시가 되었던 天道敎 등 宗教가 국가에 기여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開放社會로 일컬어지는 現代產業社會로 접어들면서 宗教의 現實참여와 함께 宗教와 國家 간의 마찰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社會救援이라는 宗教的 敎理에 따라 行動하는 양식이 政治問題로까지 확대되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民主化 요구의 물결과 合勢하여 가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의 현실참여 문제는 궁극적으로 볼 때 宗教의 理想的 完全主義와 國家의 現實的 實用主義가 서로 調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宗教의 社會的 책임과 역할이 국가의 목표달성과 이익에 접합될 수 있느냐하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核心이 있다고 본다.

즉, 韓國宗教의 당면한 課題는 敎理에 따라 行動하는 宗教인과 法律에 따라

行動하는 社會人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事實이며 오직 서로 다른 신분 의 만남에서 合意를 통하여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6. 韓國宗教 發展의 方向

오늘날 우리나라를 선진 산업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와 후진 개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는 과도기적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韓國의 宗教問題도 이러한 現象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하나의 독립된 宗教問題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종교문제의 解決을 위하여 政策方向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첫째, 政府 산하에 宗教業務를 관장할 수 있는 宗教부서를 新設하여 政府와 宗教 간에 橋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특히 宗教團體의 이익을 보강하도록 한다.

둘째, 國民이 올바른 宗教觀을 갖을 수 있도록 基本敎育 과정에 “ 國家와

宗教” 과목을 新設 体系的 教育을 실 는 반면 宗教別 分派가 난립하지 못하
시도록 한다. 도록 규제함으로써 單一化된 창구를 유

세제, 政府, 宗教, 企業이 合同으로 社 도하여 意見이 統合的으로 전달되도록
會救援政策을 펴 나갈 수 있는 制度와 해야 한다.

절차를 樹立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끝으로 多宗教社會에서 多元的 價値觀
거론되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의 근로청 의 認定은 불가피하지만 北韓共產主義와
소년 福止事業 추진과 같은 社會政策을 의 對決에 있어서는 하나로 단결하여
擴大해야 한다. 國家目標와 理念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제, 宗教의 自由를 헌법으로 보장하 록 꾸준히 계몽해야 할 것이다.



시

하늘높이 날으리

전 호 명

<준위 제 3659 부대>

오늘은 맑은 날

하늘이 더욱 푸른 날

우리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필승의 인화단결로 뭉쳐

최상의 전력을 유지해 왔음으로

국방부 선정 최 우수부대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날

열심히 일 하였지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면서

군문에 들어오기 전

나 하나만 알던 옹졸한 생각

부모형제에게 기대어 보던

바람같은 시절
홀홀 털어버리고
사나이 장부로서 용감하게
앞장서서 일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 하였지.

그래서 얻은 보람
최 우수부대 공군 제 3659 부대

장교는 아버지되고
하사관은 어머니가 되고
사병은 아들이 되고
그 곳에 군무원 또한 모범이 되어
조조출근으로 하루를 열던 세월이
최 우수부대를 탄생시켰다.

하늘이 높다.
흰구름 뚱뚱 떠도는 하늘이

육지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도 더 넓은
번지없는 창공을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린 너와 나는
기분좋은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리라.

우리는 내일도 하나가 되어

Fighting Falcon

Bravo Phantom 편대가

영광의 날개를 펼치고

이 강산을 날으리

하늘 높이 날으리



군인과 군발이

고 영 규

< 중위 제 3659 부대 >

저물어가는 석양이 빌딩에 걸려 온 시내가 별경계 물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중심부는 수많은 인파와 장사꾼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아직 술을 마시기에는 어정쩡한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어깨를 서로 기대세명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미친개라도 만났듯이 그들이 갈 방향을 피해 길을 가고 있었다. 미팅장소를 못찾아 이 건물 저건물 훑어보며 걸던 나는 우연하게도 그들과 짱 부딪히고 말았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채 나오기 전에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

아왔다. 코에서 시벨전 먹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제서야 지나가는 행인이 중제에 나섰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주위들은 “군”이란 집단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시내에서 당한 어처구니없는 일로 말미암아 제복입은 이들의 호칭을 거리낌없이 “군발이”라 칭하게 되었다. 또한 삼년간의 군복무기간은 무의미한 시간, 속된 말로 “씩는다”고 속단했다.

그럴 즈음, 휴학을 하고 군입대를 지원했던 동생이 첫휴가를 나왔다. 시커멓게 그을은 피부와 떠벌어진 어깨에서는 대학시절 무언가에 늘 쫓기는

듯한 불안감과 낙담은 도저히 참아볼 수 없었다. 반가운 마음과 위로의 마음으로 “그동안 고생이 심했지?”라고 묻는 말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형! 고생이라고? 물론 처음에는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입대 전 생활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해. 특히 나란 존재도 국가와 국민이 꼭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입대전전 인생을 비판하며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학하던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확고한 인생관과 삶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게 했어!”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다. 한 해 전만 해도 부모님 애간장을 그토록 태우던 그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다. 십여일 동안 그와 함께 군대와 군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뇌리 속에 박혀 있던 “군발이”란 단어는 차츰 “군인”이란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늘 머리 속을 맴돌던

군문제를 적극적 해결하기 위해 졸업과 동시에 공군장교후보생에 지원했다. 대전교육사령부에서의 사개월간의 교육은 나의 체력과 정신력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토록 지겨웠다. 구보와 체력단련, 그리고 산악행군 등은 힘들고 고되었지만, 그에 배가되는, 아니 열 배가 되는 많은 체험과 함께 인내심, 강인한 정신력을 선사해 주었다. 동시에 남자들만이 사는 특별한 조직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정과 희생정신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했다. 이러한 군발이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군대는 춥고 배고프다. 군대는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는 곳이다”는 등 선배가 이야기한 것들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였던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던가를 깨닫게 했다. 물론 군생활이 힘들고 지겹다고 느낀 이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사실처럼 여겨지리라. 하지만 개구리가 움추리는 것은 더 멀리 뛰기 위해서이다. 군복무 살던동안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뛰어다닐 체력을 연마하

고,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던 시각들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안목을 키우며, 인내와 자기의지를 기른다면 군대처럼 훌륭한 체력 및 인격 도야장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깎대기를 아래서 보는 자는 원형이라고 할 것이며, 옆에서 보는 자는 삼각형이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느냐, 아니면 괴롭고 힘든 생활을 영위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의식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이런 뻔한 이치를 알면서도 가끔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권태로움과 나태에 빠져 군발이처럼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역겨움을 느끼

곤 한다. 이럴 때면 저 창공을 향해 땅을 박차오르는 팬텀기의 소리와 함께, “나는 대한민국 장교다” 라고 외치며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되뇌인다.

그렇다. 나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 하나는 조국의 영광을 수호하는 일이며, 또 하나는 군복을 벗는 날까지 “군발이”란 속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초급장교로서 솔선수범하고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대학시절의 나처럼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 “군발이와 군인”의 현저한 차이를 설명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유발시키는 초급장교로서의 길로 헌신할 것을 재삼 다짐해 본다.

사랑에 관하여

손 민 호

〈중위 제 3659 부대〉

最初의 人間關係는 아담과 이브의 만남이었다. 둘은 恩惠와 感謝로 充滿한 에덴낙원에서 完全한 - 금단의 열매는 99%의 完全성을 爲해서, 즉 아담과 이브가 人間이기 爲해서 必要한 것이다 - 自由와 幸福을 누릴 수 있었다. 이제 아담과 이브의 關係에서부터 本質的 意味의 사랑에 대한 考察을 시작한다.

아담과 이브는 最初로 存在한 人間이다. 이들의 行爲나 思考 하나하나가 原初的인 것이요, 創造였다. 따라서 最初로 創造된 人間關係는 男女關係이다. 神 - 人間係에서나 人間關

係에서나 太初에 사랑에 있었다. 사랑은 최초의 시작이고 關係의 創造이다.

아담과 이브의 만남은 하늘의 배려에 의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은 人間的 選擇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自然의 攝理에 의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發見한 순간 서로는 自身들이 이제껏 상대방을 向하여 걸어 왔음을 感知한다. 謀事在人 成事在天의 字句도 사랑에 관한 謀事在天 成事在人으로 修正되어야 옳다. 즉, 男女에게 만남의 인연을 배풀어 주는 것이 하늘의 일이라면,

이를 풍성하게 가꾸고 維持시켜 나가
는 것은 두 사람의 努力과 忍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랑에는 보다
경건한 자세가 요구된다.

아담이 의로워하므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브가 創造되었다. 이브는
아담의 存在를 爲하여 만들어졌으며,
反對로 아담이 온전하게 存在하기 爲
하여서는 이브의 存在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男女關係, 즉 사랑은 相互從
屬·所有의 關係이지 競爭·對立·平等
의 關係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은
穢生없는 支配·所有의 關係이며, 이를
爲해서 둘은 各者 完全한 人格體이어
야 한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倫理的 拘束도,
文化的 偏見도, 組織에 依한 機能要求
도, 生活의 근심도 存在하지 않았다.

그들은 完全히 自由로왔다. 사랑하
기 爲해서 우리는 完全한 自由人이
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몸담고
있는 時空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世界를 建設하는 것은
可能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新世界는
觀念이나 환상, 錯覺의 世界와는 확연

히 구별되는 것으로, 그 속에서 우리
는 自由人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랑의 實相은 어떠한 것인
가? 한 마디로, 男女關係에 있어서
男子는 로보트로 墮落하고 女子는 노
리게되기를 自請하고 있는 狀態라 하
겠다.

太初 이래로 神이 人間에게 내린 가
장 큰 刑罰은 이브에게 出產의 고통
을 주어서 수많은 새로운 人間關係를
派生시키도록 한 것이다. 現代化·文
明化는 錯覺이었으며, 其實 人間은 무
리를 이루면서 神이 人間에게 보장한
自由와 幸福을 이와 더불어 人間關係
를 하나하나 破壞하여 왔다. 이러한
破壞의 結果, 마침내 現代에 이르러서
는 最初의 人間關係인 男女關係가 最
後의 人間關係가 되고 말았다. 神은
人間에게 던진 復수를 한 것이다.

男女關係는 이제 남아 있는 最後의
人間關係이다. 이마저 破壞되면 우리
는 이미 人間일 수 없다. 우리에게
는 變身한 그레고르가 人間이기 爲해
서 그의 누이에게 대항했던 것보다
같은 鬭爭의 자세가 必要하다. 鬭爭

에는 강한 信念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宗教的 信仰과 사랑의 믿음은 둘 다 믿음으로써 絕對的 眞實을 派生시킨다는 點에서 類似하다. 거것도 사랑의 믿음 앞에서는 眞實이 된다.

사랑의 위력은 믿음에 있다. 現代의 不幸은 믿음의 不在에서 비롯된다.

믿음이 없는 社會, 그래서 사랑이 없는 社會, 그래서 정이라는 온기가 사라져 버린 社會, 文明化의 過程은 곧 破滅로의 接近이 될 수도 있게 되었다.

人間은 울음과 함께 세상에 태어난다. 이 울음은 一生동안 그와 같이 하며 悲劇的 요소로서 그의 生活의 內面을 形成한다. 人間이 가장 幸福하다고 느끼는 순간의 裏面에는 항상 가장 큰 슬픔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기쁨이란 일시적 허울이나 자기기만인 경우가 많다.

향락하는 者에게는 人生이 즐거운 것이지만, 存在와 本質에 도전하는 者에게는 人生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제껏 느낀 것은 사랑은 고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큰 고통을 감수하려

는 용기있는 者만이 사랑의 고통의 아름다운 승화를 통하여 完全한 기쁨을 누리고, 完全한 人生을 營爲하며, 本質에 到達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에는 끝없는 모험심과 근면성이 요구된다.

人間이 希求하는 上向 最後段階의 욕구는 持續性・永遠性이다. 그가 가장 幸福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그 狀態가 永續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人間이 有限한 存在임에야 그가 追求하는 永遠性도 有限의 制約을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가 永遠 속에居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정지한 순간 속에서이다. 이에 영원을 內包한 순간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人生의 절반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사랑은 이러한 귀중한 순간들을 가장 完全한 형태로, 그리고 가장 풍부하게 提供하여 준다.

향내나는 곳에는 무리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좋은 향기가 나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모이지만, 나쁜 향기가 나는 곳에는 파리와 잡벌레가 득실거린다. 향기는 일종의 정성이요 치장

이다. 분산된 정성은 위력이 강하지 못하다. 사랑의 향기를 내는 꽃은 외진 곳에 배타적 영역을 形成하고서 오직 하나를 위해서만, 그래서 가장 강한 향기를 발산한다. 향기의 主体는 女子이다. 따라서 향기없는 女子는 女子가 아니다. 스스로 女子이기를 포기한 女子도 女子가 아니다.

現實의 快樂을 追求하는 女子도 女子가 아니다. 男子는 最善과 最惡을 期待하는 極端 속에서 生活해야 하며 極端 속에 있을 때 성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일 이루고자 땀흘리는 女子는 女子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女子는 女子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진실로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고 있을 때 그들은 女子다. 그들은 오직 本有의 美의 과시에 關心을 가지고, 또 그것을 爲해 生活하여야 한다. 곱게 늙기 위한 준비로 고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울어지지 않은 生活 자세와 마음상태를 維持해야 한다.

10日紅의 꽃과도 같이 진정한 美는 종말의 추악함을 내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爲해 준비기간은 길고 종말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연인과의 離別後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行爲는 아직도 그가 상대를 좋아하고 있을 때 헤어졌다는 證據이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을 때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幸福한 것이다. 만남 그 自体가 헤어짐의 연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랑의 허위나 가식, 그 모순성에 대해서도 言及하여야 나의 글이 不當하게 한 쪽만을 強調하는 誤謬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 어찌구...”라는 題下에 글을 쓴것 자체부터가 스땅딸이 戀愛論을 쓴 것 만큼이나 어리석은 行爲에 속한다. 하겠다.

사랑은 論理가 아니다. 사랑은 理性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벅차다. 사랑은 自製의 表出手段을 가지지 못한 느낌과 感性의 領域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만들어 보는 愚를 또 범한다.



또 한 해가 저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하던가?
 정묘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어른이나 어
 린이에게나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졌던
 한 해
 하지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모두에게 주어졌던 시간을 뒤돌아 보자.
 모두가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은 무엇인가?
 정묘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 다시 후회하며 반성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잘 하겠노라 다짐해 본다.
 어쩌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후시나 하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또 한 해를
 대망의 '88년을 맞는다.

禹·美

표지화

'87 진중창작 미술전 동양화부문대상
 제 목: D 계곡으로
 작 가: 장 배 규

원 고 모 집

금속성의 폭음속에 촌자를 다루는 영공
 초계 임무.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다루는 작업
 속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보라매들.

사색과 낭만을 즐기기에 너무나 각박한
 시간들이기에 자칫하면 정서생활을 잃어버
 리기 쉽습니다.

장교 전문교양지인 「공군」은 여러분의
 고귀한 생활속의 글들을 모집합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붓을 다시 잡고 원고
 지 한칸 한칸을 메꾸어 보십시오. 잃어가
 던 문학세계가 다시금 새로와질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나온 글들이기
 에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 ☆ 모집대상 : 장교 및 그 가족
- ☆ 모집부문 : 군사저작, 교양,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전 부문
- ☆ 마감일자 : 제한없음(연중무휴)
- ☆ 원고매수 : 30매 내외 (200자 원고지)
- ☆ 제출처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 ☆ 기타사항 :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하며, 게재된 작품은 연
말 종합심사후 시상함.
- ☆ 문의전화 : (호) 5115, 5388
(직) 813-2691

영 권

1987년 제 4 호 (통권제 203 호)

1987년 12월 24일 인 쇄
 1987년 12월 30일 발 행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 군 교 재 창

“여성을 完全하게 支配할 수 있는
者는 이 세상을 所有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을 完全하게 사랑할 수
있는 者만 이 온 우주를 소유할 수
있다.” 同時에 다음과 같은 어느 賢
者의 말도 생각해 낸다.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나 변하기
쉬운 여자 마음에 너의 몸을 의지하

지는 말라” 이러한 젊은이의 과장된
虛辭나 賢者의 遵嚴한 충고보다는, 人
間이 先天的으로 아베크體質임을 暗示
하는 베이컨의 다음말로서 이 글의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랑 그것은 人間을 만들고, 友情
그것은 人間을 完成한다.”

정정 기사

공군 제 202호 P. 34 좌상단 <현재 이 제주해협도중략. . . . 3해
리로 하고 있다>의 내용은 고종회 [해양전략 제 45호 P. 40] 논문에서 발췌하였
으나 확인결과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함.

이제, 남의 찻잔을

정성껏 채워야 할 때입니다。

년 9월 17일이면 우리 서울하늘 아래
계인이 함께 모여

와합과 전진'의 대제전을 펼치게 됩니다。
마텐바텐'의 감격이래

리는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쓰고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달려 왔습니다。

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올림픽만큼은 멋지게 치러보자는

결같은 바람으로 찻잔을 잘 채워 왔습니다。
제 눈앞으로 다가오는 서울올림픽—

만년을 지퍼온 「동방의 드림볼」을
인류앞에 드높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은 하루하루가 더욱 중요합니다。
리 모두 자랑스런 올림픽 주인으로서,

리고 한민족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화국민으로서
지막 하나 남은 찻잔을

손 모아 정성껏 채워 갑시다。

올림픽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